

연 구 자 료

연구 92-15-65

• 지 역 연 구 •

스 리 랑 카

이 정 욱

1993. 6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머 리 말

스리랑카는 비교적 높은 취학율, 낮은 문맹율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등 사회복지를 중시한 결과 인근 여러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사회지표와 잘 교육·훈련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사회개발분야의 투자에 비해 경제부문에 대한 투자의 소홀로 1차산품 위주의 전통적 농업국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저개발국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1983년 이후 악화되어 온 싱하라인과 타밀인 사이의 민족분쟁은 이 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막는 주된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비능률적인 공기업, 높은 실업율, 누적된 외채 등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러한 낙후된 경제부문의 개발을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개방정책으로 경제정책기조를 바꿨으며 1988년에는 IMF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개발의욕으로 착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스리랑카간 실질 협력관계도 증대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의 풍부한 인적자원 및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앞으로 양국간 협력관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양국간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해 그동안 연수생초청, 개발경험전수, 청년봉사단파견 등 분야별 협력사업을 펼쳐 왔으며 스리랑카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同國에 대한 우리정부와 민간의 이해증진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스리랑카에 대한 기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 자료를 참고로 우리 협력단 연구실의 이 정옥 연구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용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나 이 책자가 한·스리랑카간 협력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우리 협력단의 공식전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1993 년 6 월

연구조사국장

目 次

I. 일반 개황	
1. 일반 환경	1
2. 정치 · 행정	9
3. 사회 · 문화	23
II. 경제 및 개발계획	
1. 경제 · 무역	34
2. 경제개발계획	47
III. 부문별 동향 - 일반부문	
1. 보건의료	65
2. 인력자원	81
3. 환 경	99
4. 빈곤 · WID	116
IV. 부문별 동향 - 산업부문	
1. 농 업	143
2. 수산업	156
3. 공 업	161
4. 에너지	173
5. 수송 및 통신	181
V. 개발원조 현황	
1. 스리랑카측의 원조에 대한 입장	206
2. 원조 현황	208
3. 양국간 원조	210
4. 국제기관 원조	222
5. NGO 활동	225
VI. 한 - 스리랑카협력	
1. 한 - 스리랑카 협력현황	227
2. 협력방안	236

I. 一 般 概 況

1. 일반 환경

1. 자연 환경

스리랑카는 인도대륙 동남부 印度洋 上에 위치한 島嶼國(동경 79도40분-81도55분, 북위 5도55분-9도50분)이다. 인도와는 불과 2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정학적으로 인도대륙의 영향권내에 들어있으며 동서길이 255 km, 남북길이 435km에 이르는 달걀모양의 작은 열대 섬나라이다. 국토의 총면적은 66,000km²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의 기후와 경관은 놀랄만큼의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가. 기 후

스리랑카의 기후는 년평균 26-30℃의 기온분포를 보이는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이다. 년중 기온차는 거의 없으나 지역별로 보면 북서해안지방은 38℃까지 올라가나 내륙산간지방은 21-26℃ 정도로 국토면적에 비해 지역별 기온차가 크다.

표 I - 1 콜롬보의 기온, 습도, 강우량

구 분	단 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월평균기온	℃	27.3	28.0	27.8	27.2	28.0	26.6
월평균습도	%	74.0	80.5	76.5	84.5	79.5	83.5
강 우 량	mm	6.2	147.0	565	187.7	103	387.1

자료 : Dept. of Meteorology, Colombo

스리랑카는 강우량을 기준으로 편의상 2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섬의 북부 및 동부에 위치하며 국토의 약 30%를 차지하는 乾燥地帶과 섬의 중앙부 및 남부, 서부에 위치한 濕潤地帶이다. 즉, 연간 강수량이 1,875mm 이하 또는 3개월간 계속해서 월평균 강수량이 102mm 이하인 지역이 건조지대이며 그외의 지역은 습윤지대이다.

건조지대에서는 관개수로 및 하천을 중심으로 水稻作 및 田作農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인구의 60~70%가 거주하는 습윤지대는 홍차, 고무, 코코넛의 주산지로서 되어 있다.

계절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으며 강우량의 차에 의해 雨期와 乾期로 구별되는 정도이다.

雨期는 5월~9월사이의 남북몬순기와 그 사이 4월, 10월의 몬순간기, 11월~3월사이의 북동몬순기로 나뉘어진다. 남북몬순기에는 중앙에서 남으로 뻗어있는 산맥의 南西斜面과 남서부평야지대에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지만 북부, 동부로 연결된 산맥의 東北斜面에는 연간 강수량이 500mm 이하로 장기간 건조한 기후가 계속된다. 한편 11~3월사이에 형성되는 동북몬순은 국토전역에 비를 내리는데 특히 산간지역과 동북해안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나. 지 형

지질학적으로 스리랑카는 南印度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지질시대의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 있다. 국토의 약 90%가 5억년 이전의 結晶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북부 자후나반도나 북서해안부 및 내륙부에는 石灰岩층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고대의 結晶岩은 이 섬토양의 모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장기간의 열대성기후 조건하에서 생성된 토양은 비옥도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스리랑카에는 남부지역 중앙부에 산간이 있는 이외에 섬의 대부분은

평탄한 지형이며 해안선은 몇개의 瀉湖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다.

중앙산악지역은 피두루탈라갈라山(2524m)을 중심으로 2000m가 넘는 13개의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변에 1000m를 넘는 高原이 연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안지역의 평원은 북쪽을 향해 넓게 펼쳐져 있으며 이 평원은 북부 자후나반도로까지 이어져 있다.

스리랑카의 江은 강우량이 많은 中央高原을 기점으로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흘러내려, 인도양까지 이어져 있다. 그중 우량이 가장 많은 강이 마하웰리江(335km)으로 중앙高原 서쪽에서 발원하여 북동부의 해안도시 트링코말리부근에서 뱃길만으로 흘러들어 간다.

다. 산 림

현재 스리랑카 국토의 약 40%에 해당하는 260만ha가 산림지역이나 화전의 보급으로 원시림형태의 울창한 산림은 드물다. 또한 일부 보존림을 제외하고는 산림면적의 대부분이 건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티크, 마호가니 등 양질의 산림자원이 있기는 하나 그 생산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산림적지라 할 수 있는 습윤지대는 차, 고무 등의 재배지로 개발되어 있어 用材用 임산자원의 생산량은 저조하다.

습윤지대에는 低地에 열대상록림이 형성되어 있으며 標高가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상록림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산림도 19세기 이후의 플랜테이션농업 및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상당부분 개간되었으며 상태가 좋은 원시림은 섬의 남부에 있는 상할라자 山林保護地區 또는 피구우루다네 스 鳥類保護地區 등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건조지대의 경우 강우량이 적은 만나루州 일부에서는 키 작은 나무밖에 없으나 그 외의 건조지대는 항상 녹림으로 우거져 있다.

스리랑카정부에서는 산림자원의 개발을 위해 식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부족, 기술인력의 부족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 역 사

스리랑카에는 先史시대부터 원주민인 베다族이 거주하여 왔다. 그후 기원전 543년 북부 인도의 아리아人 비자야王子에 의해 원주민 베다족을 정복하고 건설된 싱하라왕조가 2, 3백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기원전 247년에는 인도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어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부터 남부인도의 힌두교도인 타밀族이 침입해 오기 시작, 5~6세기경에는 스리랑카 북부지역에 타밀인에 의한 독립왕국(Ceylon Tamil)이 건설되었다. 타밀族은 힌두교를 신봉, 불교문화를 꽃피운 싱하라族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관습을 유지하였으며 11세기경에는 섬이 싱하라왕조와 타밀왕조로 분리되었다.

그후 1505년에 포르투갈의 지배하에 들어가 이때부터 포르투갈(1505~1658), 和蘭(1659~1796), 영국(1797~1948)의 통치를 차례로 받게됨으로서 스리랑카는 약 400년간에 걸쳐 오랜 기간동안 외국식민지배하에 있었다.

포르투갈은 서부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무단통치를 실시하였으나 천주교로의 개종을 장려하고 유럽의 앞선 물질문명을 전파함으로서 스리랑카에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으며 화란인은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섬 중앙의 켄디왕국을 제외한 해안지방을 거의 점령하였으나 통치의 주 목적이 향료무역의 독점에 있었으므로 포르투갈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온건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영국은 1815년 그때까지 스리랑카의 일부를 통치해 오던 켄디왕국을 멸망시킴으로서 쏘스리랑카를 식민지화 하였고 식민행정에 싱하라, 타밀 양민족을 참여시켰으나 타밀인을 우대, 양민족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1832년 영국은 스리랑카에 콜브르크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사법

등 제법령 공포, 행정·입법자문기관설치, 근대화의 기반작업 및 토지권의 확정 등을 통해 식민정책을 수행하였다. 또한 1860년대부터 영국은 스리랑카에서의 커피재배를 위해 인도에서 다수의 타밀족(Indian Tamil)노동자들을 이주시켰으나 1880년 커피나무 전염병의 만연으로 茶재배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홍차, 고무, 야자 등 3대 농작물이 스리랑카경제의 지주를 이루게 되었다.

영국 식민지하에서의 新경제제도채택과 영어공용어화교육 등 서구화의 영향으로 19세기 전반기에 스리랑카의 전통은 매우 미약하여졌으나 스리랑카인들 사이에 점차 민족의식 및 고유문화에 대한 인식이 싹트게 되었으며 서구민주주의의 발전과 인도의 독립운동에 자극되어 점차 민족자결을 요구하게 되고 독립을 위한 열망도 고조되었다.

이에 영국은 1931년 신헌법을 제정하여 입법기관으로 국민평의회, 행정기관으로 각료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1946년에는 內政에 관하여 완전자치를 규정한 새로운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2월 4일 스리랑카는 영국자치령으로 독립하였으며 1972년 5월에는 영국자치령의 지위에서 벗어나 국명을 실론(Ceylon)에서 스리랑카(Sri Lanka)공화국으로 바꾸었다.

독립후의 스리랑카의 역사는 유감스럽게도 이민족간의 갈등, 같은 민족간의 내분 등 民族紛爭으로 얼룩져 있는 바, 1983년 북동부지역의 타밀인에 의한 인종폭동은 4,000명에 이르는 인명을 희생시키는 등 민족간 갈등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스리랑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1978년 9월 스리랑카는 신헌법을 공포하여 國名을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민족과 인종

스리랑카는 인구 1,700만의 小國이나 복잡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민족간 분쟁이 최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83년 세계를 놀라게 한 인종폭동 이후에도 다수민족인 싱하라인과 소수민족 타밀인 사이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 싱하라인(Sinhalese)

싱하라어를 사용하고 대부분이 불교도인 이들은 남인도에서 건너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본인들은 아리아인(북인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싱하라인은 "高地싱하라(켄디 싱하라)인"과 "低地싱하라인"으로 구분되나 이는 역사적·지역적 분류이며 최근의 국세(國勢)조사에서는 이 구분이 폐지되었다. "고지 싱하라인"은 영국식민지사대인 1815년까지 지속된 켄디왕국에 살던 싱하라인임에 반하여 "저지 싱하라인"은 유럽인의 지배를 직접 받은 서해안에서 남, 동남해안 지역에 살던 싱하라인을 말한다.

또한 이외에 "그리스도교 싱라하인"도 약간 있는데 그들은 친유럽적인 그리스도교도들로 인식되어 이것이 싱라하인의 민족주의를 고양시킨 원인이 되었다.

나. 타밀인(Tamils)

타밀語를 사용하고 대부분이 힌두교도들인 이들은 남인도에서 건너왔으며 이들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타밀인은 주로 북부, 동해안의 농어촌, 중남부의 플랜테이션지역 및 각지역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스리랑카 타밀인"과 "인도 타밀인"으로 大別되나 이는 역사적 분류이며 스리랑카

타밀인은 기원전부터 계속 남인도에서 이주해 온 타밀인이고 인도타밀인은 19세기 플랜테이션 노동자로서 영국인에 의해 이주된 타밀인으로 1984년까지 무국적 상태에 놓여있었다. 힌두교도로서 하층계급 카스트가 많다.

다. 무스림 (Muslims)

종교를 기준으로 구별한 것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출신과 언어에 따라 "무어인"과 "말레이인"으로 분류된다. 무어인은 아랍계 상인의 후예들이며 남인도에서 건너와 9세기 무렵부터 정착하였고, 타밀어를 사용한다. 국적의 유무에 따라 "스리랑카무어"와 "인도무어"로 나뉘지만 오늘날 이 구분은 거의 무의미하다. 한편 말레이인은 주로 17세기 이후 네델란드 식민지시대에 말레이시아 및 자바에 건너온 사람들의 후손으로 말레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라. 바 가 (Burghers)

바가는 주로 네델란드인 등 유럽인과 싱할라인의 혼혈자손으로 코롬보주변 등 低地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일상언어는 영어인 경우가 많고 기독교도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독자적 Identity를 갖고 여러 언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적응력 있고 유능한 민족이다.

마. 베 다 (Veddhas)

싱하라어를 사용하는 불교도들이 대부분이며 스리랑카에 있어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민족으로 정글 속을 이동하며 생활하는 수렵·채집민족이다. 현재는 싱하라化되어 정착생활을 하고 있다.

표 I - 2 종교별 인구 (만명, %)

구 분	불 교	힌 두 교	이슬람교	기 독 교	기 타
1971	853.7(67.3)	223.9(17.6)	90.2(7.1)	100.4(7.9)	0.8(0.1)
1981	1,029.3(69.3)	229.6(15.5)	113.5(7.6)	111.2(7.5)	1.5(0.1)

자료 :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1981. of Census and Statistics Ministry of Plan Implementation

표 I - 3 스리랑카 민족 · 언어 · 종교 (만명)

민 족	1971년 (%)	1981년 (%)	언 어	종 교
싱 하 라	913.1(72.0)	1,098.6 (74.0)	싱하라어	불교 (90%)
고지싱하라	370.5(29.2)			기독교 기타
저지싱하라	542.6(42.8)			(10%)
타 밀	259.9(20.5)	269.7(18.2)	타 밀 어	힌두교 (90%)
스리랑카타밀	142.4(11.2)	187.2(12.6)	타 밀 어	기독교 기타
인도타밀	117.5(9.3)	82.5(5.6)		(10%)
무 스 림	89.9(7.2)	110.0(7.4)	타 밀 어	이슬람교 (100%)
스리랑카무어	82.8(6.7)	104.7(7.0)	말 레 어	
인도무어	2.7(0.2)	0.6(0.0)		
말 레	4.3(0.3)	4.7(0.4)		
바 가	4.5(0.3)	3.8(0.3)	영 어	기독교 (100%)
배 다	—	—	싱하라어	불 교 (100%)
기 타	1.6(0.1)	2.9(0.2)		
계	1,269.0	1,485.0		

자료 :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1981. of Census and statistics Ministry of Plan Implementation

2. 정치 · 행정

1. 행정조직

가. 정부형태

1972년 5월 헌법개정을 통해 英聯邦內 自治國에서 공화국으로 政體를 변경하였으며 총독제도 폐지하였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실질적인 권한은 수상이 갖는 내각책임제를 실시하였으며 英聯邦에는 독립공화국의 자격으로 잔류하였다. 그후 1978년 헌법개정을 통해 정부형태를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였다.

나. 헌 법

1972년 5월 전문 및 본문 16장 134조로 구성된 헌법안을 공포하였으며 그후 1978년 9월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변경하는 신헌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다. 행정조직

1) 대통령

국가원수, 행정수반 및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민직선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6년이며 한차례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 피선거권자는 30세이상의 스리랑카국민으로서 정당의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다.

- 장관겸직권 및 국무회의 주재권
- 고급공무원 임명권
- 외교사절 접수 및 파견권

- 국회해산권

- 의회에 의하여 거부된 법률안 또는 국가중대사 국민투표회부권등

2) 중앙행정기관

현재 22개의 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의 수, 관할 및 직무범위는 대통령이 수시로 조절가능하다. 수상은 현역의원 중 국회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상과 각료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장관은 대통령이 수상과 합의하여 현역의원중 임명한다. (그림 I-1 참조)

3) 지방행정조직

스리랑카 지방행정조직은 8개州로 나뉘며 그 밑으로 25개 행정구역 (Administrative District), 289개 AGA (Assistant Government Agent) 및 14,765개 Grama Niladari Divisions으로 구성된다. 스리랑카 정부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화와 권한위임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準국가적 행정기구로서 평의회 조직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각 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조직기구를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4) 개발원조와 행정

각 부처의 개발원조 요청안건은 먼저 정책기획 실시省 (Ministry of Policy Planning Implementation) 국가기획局에 수집되어 개발계획위원회의 심의후 각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승인후 이 안건은 공공투자 계획에 포함되어 재무省 대외자원局을 통해서 공여국 대사관에 정식 요청되게 된다.

그림 I - 1 스리랑카 국가 기구표(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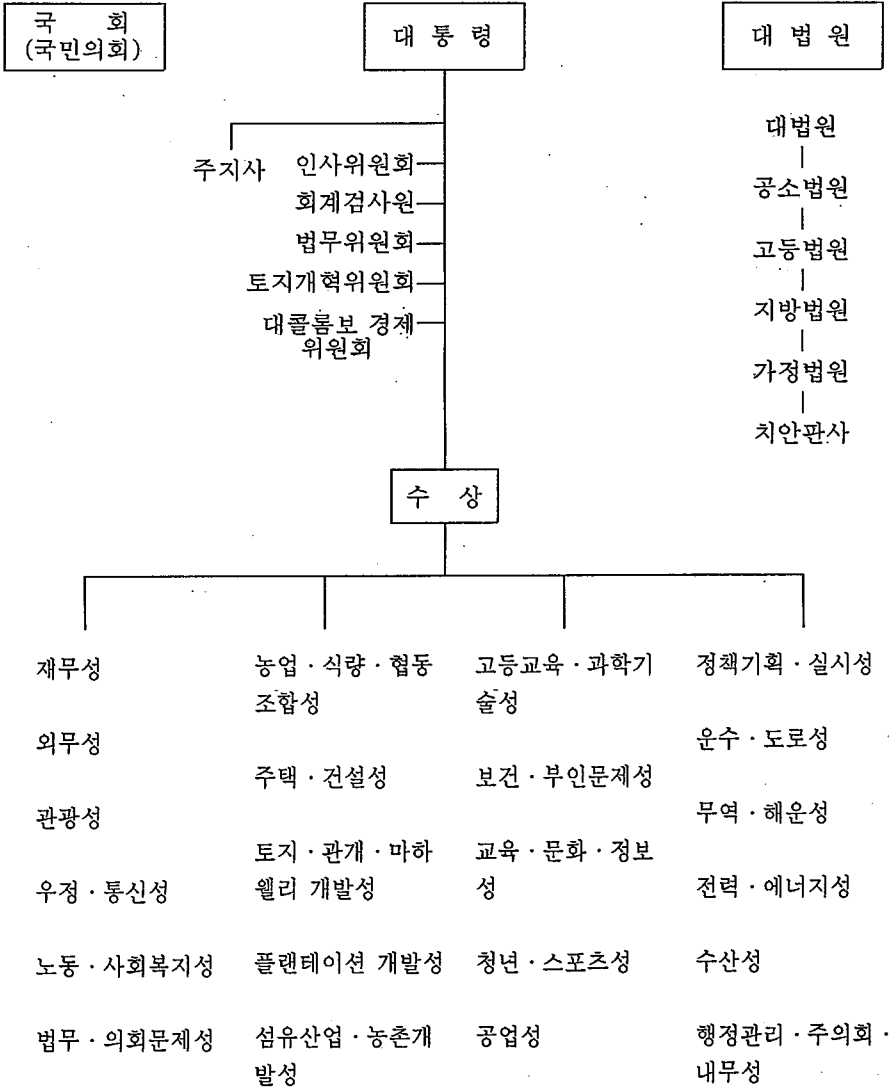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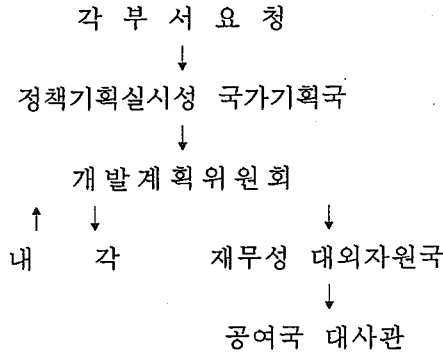


그림 I - 2 원조 요청까지의 흐름



2. 정치제도

가. 의 회

스리랑카에는 단원제 국민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정수는 225석, 임기는 6년제로서 다수당은 집권당인 통일국민당이다. 자유정당제로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이 자유이므로 정당간 이합집산이 심하다. 현재 통일국민당(UNP) 및 스리랑카자유당(SLFP)이 양대 주요정당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결성된 사회주의연합(USA)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18세 이상의 스리랑카국민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데 1990년 2월 현재 당파별 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표 I - 4 국민의회의 당파별 내역

정 당	UNP	SLFP	TULF	SLMC	USA	MEP	타민족소속 연	계
의석수	125	67	10	4	3	3	13	225

자료 : 동남아시아 요람, 동남아시아 조사회

나. 주의회

주의회는 1987년 7월의 스리랑카·인도평화협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1988년 제1회 주의회 선거가 실시된 바, 선거결과는 다음표와 같다.

표 I - 5 주의회 선거 결과

주 명	의 석 수	투 표 율	당 선 의 원 수						
			UNP	USA	SLM	LP	EPRLP /ENDLF	무소속	
북 중 앙	31	55	19	12					
북 서 부	50	62	29	19	2				
우 와	32	64	18	13	1				
사바라가무아	43	63	22	20					
서 부	102	51	52	42	6	2			
중 앙 부	54	63	35	18	1				
남 부	53	27	36	15				2	
북 동 부	71	62	1		17		53		
계	435	56	212	139	27	2	53	2	

자료 : 아시아트렌드 1989, 일본

다. 정 당

1) 통일국민당(UNP : United Nations Party)

당수 : 위제통가 대통령

1947년 8월 독립후 제1회 선거 이래 保革교체가 되풀이 되는 가운데 항상 보수진영의 중심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야와르데네 초대대통령은

자유주의, 비동맹정책을 중심으로 장기 안정적 기초를 굳혔다.

2) 스리랑카자유당(SLFP, SriLanka Freedom Party)

당수 : 시리아보 · 반다라나이케 여사

개혁중시 혁신정당으로서 독립이후 통일국민당과 더불어 스리랑카 정치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다라나이케 당수는 1960년 세계 최초의 여성수상이 됐을뿐 아니라 1972년에는舊실론에서 "스리랑카 공화국"으로 참된 의미에서의 독립을 달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3) 타밀 통일해방전선(TULF, Tamil United Liberation Front)

의장 : 무르게스 · 시바시탄 파람

1977년 6월 공인된 타밀정당으로 싱하라語의 공용어화 반대, 타밀인 분리국가 창설을 주장하였으며 1984년의 민족분쟁 해결을 위한 소정당 원탁회의에 출석, 정부안에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4) 스리랑카 무스림회의(SLMC, SriLanka Muslim Congress)

1980년 콜롬보에서 창설되었으며, 1986년 이후 정당활동을 하고 있다. 1988년 주의회선거 및 1989년 총선거에서 각각 27석, 4석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5) 인민통일전선(MEP, Mahajana Eksath Peramuna)

1956년 SLEP와 인민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정권을 잡았으나 그후 여당내 우파와의 대립 후 퇴진하였다.

6) 통일사회주의연합(USA, United Socialist Alliance)

1988년 1월 콜롬보에서 결성하였으며 同年 12월 스리랑카인민당

(SLMP), 평등사회당(LSSP), 스리랑카공산당(CPSC)과 좌익연합을 결성하였다. 1988년 주의회 선거에서는 139석을, 1989년 총선거에서는 3개 의석을 차지하였다.

7) 이람 인민혁명 해방전선(EPRLF, Eelam People's Revolutionary Liberation Front)

자후나지역의 타밀정당. 1988년 2월 11일 타밀 게릴라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정당으로서 인정되었다.

3. 정치체제의 변화

가. 실론독립에서 스리랑카공화국 탄생까지

스리랑카의 독립은 실론(Ceylon)의 독립에서 시작된다. 실론은 1948년 2월4일 실론 독립법의 시행에 따라 영국의 직할식민지에서 영연방내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는데 당시의 실론은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식민지와는 달리 내정과 외교는 자주독립성을 갖고 있었으나 국가원수는 영국국왕만이 될 수 있었으며 재판도 최종심은 영국추밀원이 관장하였다. 그 때문에 본래 의미의 共和國政體 독립국을 만들려는 운동이 스리랑카인들 사이에 계속됐지만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석수(하원의 윗이상)를 점하는 여당이 출현하지 않아 共和國政體는 실현되지 못했다.

독립후의 정치는 1956년 크게 변했는데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통일국민당은 식민지시대의 기업, 플랜테이션 경영자, 지주 등 영어교육을 받은 중산계급을 지지기반으로 삼은데 반하여 스리랑카자유당은 중소민족기

업가, 농민 등 상하라어 교육을 받은 중산계급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1956년 총선거에서는 스리랑카자유당이 대승을 거두어 반다라나이케 내각이 성립되었다. 同내각은 영국 해공군기지 철폐, 상하라어의 공용어화, 항만·버스의 국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립외교를 표방, 소련, 중국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1959년 9월 반다라나이케 수상이 암살되어 한때 정국이 혼미해졌지만 1960년 7월 총선거에서 반다라나이케 여사가 이끄는 스리랑카자유당이 압승하여 세계 최초의 여성수상이 탄생했다. 同내각은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국제분쟁의 해결 등 공적을 쌓았으나 신문사의 국유화문제로 국회에서 수상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통과되어 1965년 3월 통일국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다.

통일국민당의 다도리 세나나야케 내각은 외국원조 획득 및 사기업의 진흥에 주력했으나 홍차가격의 하락 등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1967년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 따라 루피화의 평가절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평가절하는 국민생활의 생계비를 앙등시켰으며 이로 인한 일반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1970년 5월 선거에서는 다시 반다라나이케 여사가 이끄는 좌익운동연합(자유당, 평등사회당, 공산당)이 전의석의 총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였으며 同연립내각은 1972년 5월 22일 국호를 「스리랑카 공화국」으로 변경한 신헌법을 공포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기간중의 정권교체는 모두 선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정권은 통일국민당(UNP, United National Party)과 스리랑카자유당(SLEP, Srilanka Freedom Party)등 2대 정당이 집권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표 I - 6 실론독립에서 스리랑카공화국 탄생까지의 정권의 변화

기 간	정 당	내 각 수 반
1947. 11 ~ 1952. 3	통일국민당	D. S. 세나나야케
1952. 3 ~ 1953. 10	"	다도리 세나나야케
1953. 10 ~ 1956. 4	"	유타라와라
1956. 4 ~ 1959. 7	자유당, 혁명평등사회당 싱하라어전선(연합정권)	반다라나이케
1959. 9 ~ 1960. 3	자 유 당	다하나야케
1960. 3 ~ 1960. 7	통일국민당	다도리 세나나야케
1960. 7 ~ 1965. 3	자 유 당	반다라나이케 여사
1965. 3 ~ 1970. 5	통일국민당, 자유사회당 연방당(연합정권)	다도리 세나나야케
1970. 5 ~ 1977. 7	자유당, 평등사회당, 공 산당(연합정권)	반다라나이케 여사

자료 : 스리랑카 경제사회 현황 (일본 국제협력추진협회)

나. "스리랑카공화국"에서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까지

반다라나이케 여사가 주도한 자유당내각은 사회복지증시, 기간산업 국유화, 외환관리체제 강화, 토지개혁 등 사회주의적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농작물의 흉작, 1973년 석유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실업증대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더우기 타밀어사용을 둘러싼 싱하라·타밀 양민족간 대립으로 자유당정권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었다.

1977년 7월 총선거에서 스리랑카자유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자유화를 주장한 통일국민당에 패배, 자야와르데네나이가 탄생하였다. 그후 1978년

8월 同내각은 헌법을 공포, 국명을『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대통령제를 도입, 자야와르데네 수상이신이 초대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자야와르데네 대통령은 그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再選되었으며 국민투표에 의한 임기연장이 결정되어 1989년까지 장기안정적 정권의 기반을 굳혔다. 同정권은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하여 비교적 출발이 순조로웠지만 1983년 7월부터 타밀분리독립운동의 활성화로 싱하라, 타밀 양민족간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정권은 혼미상태에 빠졌다.

스리랑카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함과 동시에 全정당이 참가한 원탁회의 개최 및 평화적 해결수단모색 등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한편 1987년 7월 스리랑카정부와 타밀과격파와의 停戰을 규정한 인도-스리랑카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며 同협정에 따라 "인도평화유지군(IPKF)"이 상주하게 되었고,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등 민족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였으나 이 합의에 대해 "타밀-이람해방호랑이(LTTE)", "싱하라민족주의 과격파인민전선(JVP)"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현지주재 인도군 및 스리랑카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을 강화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1988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통일국민당의 프레마다사수상이 당선되었다.

다. 민족항쟁의 종결 및 경제재건 노력

프레마다사정권은 통일국민당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前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그 슬로건을 "힘에 의한 대결이 아닌 합의와 타협에 의한 의사형성"으로 내걸고 민족분쟁의 종결을 위해 LTTE와 JVP에

대화와 화해를 요청, 인도군의 철수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재건을 위해 "자나사뵤아계획(빈곤퇴치 정책)"을 추진하였다. 타밀분리 독립운동의 발단이 된 북·동부주의 内戰은 IPKF 및 "이람인민 해방전선" 對 LTTE 사이의 분쟁에서 시작됐는데 분쟁의 장기화에 따라 인도정부의 후원을 받은 지방권력이 "타밀국가군(TNA)"을 조직하자 스리랑카 정부는 1989년 4월 LTTE와 화해하였다.

이에 따라 IPKE의 주둔 이유가 없어져 IPKE는 1990년 3월 철수하고 EPRLF(이람 인민혁명 해방전선)도 LTTE에 의해 토벌되었다. 그러나 LTTE는 스리랑카정부와의 협정을 파기하고 최근까지 군·관·민에 대한 테러활동을 계속하였으며 '93년 5월의 프레마다사대통령 암살도 이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JVP는 스리랑카정부의 화해요청을 거부하고 테러활동을 격화시켰는데 이 테러는 1989년에 1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살육항쟁으로 발전하여 일반시민의 JVP로부터의 이탈을 촉진시켰다. 1989년 11월 스리랑카정부는 JVP의 간부 다수를 체포, 처형하고 JVP 조직일부를 와해시켰으며, 이에 따라 남부를 중심으로 한 치안상황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스리랑카정부는 민족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재건을 위해 자나사뵤아계획(빈곤퇴치정책)을 추진코자 했으나 이는 IMF,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정책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1990년 예산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 편성목표를 조정하였다.

- a. 재정적자 및 국제수지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0% 이하로 억제하고 인플레이션도 7%로 억제함.

- b. 정부부처의 수를 반으로 줄이고 공무원수도 20% 감원
- c. 정부기업의 개편과 민영화 촉진
- d. 식량 및 비료보조금 삭감
- e. 관세율인하 등 세계개혁 추진
- f. 경제성장율을 3%대로 상향조정

4. 대외관계

가. 비동맹 중립주의

자아와르데네정권때 부터 스리랑카의 외교정책은 "비동맹중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UN헌장에 따른 주권, 독립, 자유를 표방하여 자유주의, 사회주의국가를 불문하고 우호관계의 증진에 노력해 왔다.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도 있으나 개방경제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서방중시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편 민족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일반시민의 희생 및 난민화에 대한 국제적 비판도 일부 있으며 기본적 인권을 보장토록 압력을 받고 있다.

나. 인도와의 관계

인도는 스리랑카 외교정책상 가장 중요한 나라이다. 인도와는 역사적, 지리적 배경뿐만 아니라 내정, 외교 등 여러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도의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는 곧 스리랑카의 국내상황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1948~49년의 입법조치에 의한 인도타밀인의 "無國籍"문제는 1988년

11월 인도타밀인에게 스리랑카 국적이 주어짐으로서 해결되었다. 또 1983년 7월 이후 민족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타밀인문제는 1987년 7월 인도·스리랑카 평화협정에 따라 "인도평화유지군(IPKE)"의 주둔이 결정됨으로서 해결되는 듯 했으나 스리랑카 정부와 LTTE와의 휴전협정에 의해 IPKE는 1990년 3월 인도로 철수했기 때문에 현재 스리랑카 정부는 평화협정의 합의사항을 쌍무적 내용으로 하는 우호조약체결을 추구하고 있다.

다. 근린제국과의 관계

민족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SAARC(남아시아 제국연합) 제국의 인권보장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1990년 7월 정당대표단을 SAARC제국에 파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스리랑카는 인도 및 근린제국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1992년에는 해마다 윤번제로 맡는 SAARC議長國이 되어 역내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등 SAARC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근동제국은 석유공급국 및 원조국으로서 스리랑카는 이들과도 우호관계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수십만명에 이르는 해외노동자의 송금이 국제수지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990년 8월 발생한 걸프전쟁 위기로 국제수지뿐 아니라 귀국후 이들 근로자의 고용문제가 표면화되었다.

5. 사법 제도

스리랑카의 법원은 대법원(Supreme Court), 공소법원(Court of Appeal), 고등법원(Primary Cour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스리랑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대법원장 이외에 6~1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다수결에 의하여 판결을 내린다. 또한 대법원은 헌법소송,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관한 소송, 의회특권침해에 관한 소송, 선거소송 등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며 하급법원으로부터 상고된 민·형사소송의 최종심이 된다. 또한 공소법원은 원장과 6~11인의 판사로 구성되며 인신구속영장의 발부, 초급법원으로부터 상고된 소송심사 등을 관할한다. 대법원 및 공소법원의 장과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6. 군 사

육해공군 3軍制를 취하고 있으며 최고사령관은 대통령이고 정규군(지원제)과 예비군(징병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병력은 49,000명이 조금 넘는다. 군사비는 1983년까지는 국가예산의 3.5%였으나, 민족분쟁의 격화로 1987년에는 10.7%로 증가하였다.

표 I - 7 스리랑카 군사력 (人)

군 대			準 군 대	
해 군	육 군	공 군	경 찰 1)	의용군 2)
40,000	5,500	3,700	21,000	5,000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89/90

※ 1) 28,000명으로 증원예정

2) 10,000명으로 증원예정

3. 사회 · 문화

1. 사회문화적 특징

스리랑카의 문화나 사회의 특징으로 제일 먼저 그 다양성을 지적하는 학자가 많듯이 실제로 스리랑카의 자연이나 문화는 놀라울 정도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작은 나라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자연환경 하에서 언어, 종교, 역사가 서로 다른 다수의 집단이 때에 따라서는 적대시 하거나 융합하면서 다채로운 문화 및 사회생활을 창출해 왔다. 같은 민족집단 내부에서도 카스트나 경제적 계층의 차이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양식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스리랑카사회를 여러가지 사회지표에 의해 정리해 보아도 좀처럼 명확한 전체상을 만들어 내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스리랑카人 자체가 원래부터 확고한 이데올로기나 단일한 行動原理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원리에 따라 그들의 행동양식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원리를 자유로이 선택, 그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그 자체가 타인들에 의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그들에게 여러가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사회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식구조는 오랜 佛教文化의 영향으로 인한 현실도피 경향 및 내세성과 서구적 합리주의추구 등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오랜 영국 식민지통치에 은연중 동화, 국민의 정치의식이 다른 新生國에 비해 높은 편이며 통일국민당과 자유당이 연이어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있다.

한편 2천년 이상의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스리랑카는 인도의 힌두사상 및 고대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일상생활양식에서부터 벽화, 조각, 건축물 등의 각종 문화유산에 이르기 까지 힌두교, 불교 및 베단타철학의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다. 특히 원시부파종교의 전래 이후 아누라다푸라, 폴로나루와, 캔디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불교사원이 건축되었으며 각종 불교설화와 조각 등을 비롯, 다양한 불교 문화유산이 남아있다.

스리랑카에는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풍습과 오랜 식민지 생활에서 형성된 서구풍습이 혼재되어 있다.

한편 국민의 대다수가 종교를 갖고 있는바, 그중 약 70%가 불교도이고 15%가 힌두교도이며 회교도 7%, 기독교도 6.5%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서양 물질문명과 상업주의, 그리고 독립 이후 한동안 득세했던 사회주의사상 등으로 점차 독실한 종교인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활중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2. 도시 및 농촌생활

1981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1,484만의 스리랑카 전체인구중 도시에 21.5%, 농촌에 78.5%가 살고 있다. 표 I-8에서 보듯 도시지역 인구증가율은 인근제국에 비해 비교적 낮는데 이는 농촌지역에서의 개간사업이나 공공투자가 인구이동을 지방으로 흡수하고, 한편 교통망의 정비로 도시에 대한 이주의욕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로는 콜롬보(61.5萬人, 1990년 추계), 자후나(12.9만), 그리고 캔디(10.4만)가 있으며 각각 도시별 특성을 갖고 있다.

콜롬보는 상업 및 국제도시이며 식민지시대의 수도이기도 하다. 또한 자후나는 스리랑카타밀인의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이고 캔디는 전통적인

高地싱하라인(캔디싱하라)의 수도이다.

스리랑카 대부분의 도시는 소규모이며, 식민지시대 영욕을 보여주는 도시(고르, 트링코말리, 마타라, 바티칼로아 등)나 싱하라의 역사를 전해주는 도시(아누라타프라, 포룽나르와 등)가 존재한다. 표 I-9에서 보듯이 5만인을 넘는 도시는 9개 도시밖에 없으며 콜롬보권 주변에 주요 도시가 많다.

교육 및 복지혜택 등에 있어서는 都農間 격차가 존재하는 바, 가령 복지시설의 이용이 전국적으로 무료이나 병원 등의 의료시설이 도시에 집중하고 있어 무료의료의 수혜자는 도시민이 대부분이다. 교육역시 무료이지만 국민학교 이상의 학교가 농촌에는 없기 때문에 중학교 이상의 교육은 도시에 나가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 농민으로서는 귀중한 노동력을 잃는 결과가 될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수업료, 교통비, 하숙비 등) 부담으로 자녀를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한편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비교적 적다. 1985년 平均値로 도시지역 월 평균수입이 479루피인 반면에 농촌은 233루피로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中央値로는 도시가 266루피, 농촌이 171루피로 도시와 농촌의 경제수준의 차는 비교적 적다.

표 I - 8 도시지역 인구 증가율

국 명	인 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 팔
인구증가율	4.0	1.3	5.6	4.5	7.4

자료 : World Development Report 1990

표 I - 9 스리랑카 주요 도시별 인구(천명, 1990년은 추계)

도 시 명	1981	1988	1990
콜 롬 보	590	609	615
데 히 와 라	174	190	196
자 후 나	118	127	129
모 라 토 와	135	162	170
고 툐	101	107	109
캔 디	98	102	104
고 르	77	82	84
네 곶 보	61	64	64
드 링 코 말 리	45	48	50
마 타 라	39	41	41
아 누 라 타 프 라	36	37	37

자료 : Statistical Pocket Book of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1992.

표 I - 10 도시및 농촌지역 소득비교(1인당 월수, 루피)

구 분	1981			1985			1981~85증가율(%)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평균치	185	251	169	284	473	233	53.5	88.4	37.9
중앙치	151	181	143	189	266	171	25.2	47.0	19.6

자료 : Labour Force and Socio-Economic Survey 1985/1986
Sri Lanka

3. 인구동태와 해외취업

가. 인구의 기본지표

스리랑카의 인구는 1981년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14,847千人, 1991년에는 17,247千人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밀도는 약 267인/km(1991)으로 비교적 높으며 이들 중 60%가 습윤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1980~90년 사이의 인구증가율은 1.4%였으며 1990~2000년의 인구증가율은 1.1%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인도 등 인근제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데 그 원인으로 높은 국민교육수준 및 1953년부터 시작한 강력한 가족계획정책의 추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同國의 인구 피라미드는 여전히 개도국 특유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스리랑카인구가 정지인구에 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총 인구에서 접하는 생산연령 인구의 비율은 61.8%로 높은 편이며 중소득국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남아시아 지역중에서 스리랑카의 인구의 부양부담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나. 인구이동 실태

1953년 이후의 인구이동상황을 보면 콜롬보를 비롯한 서부주의 인구비율은 1953년의 27.6%에서 1981년 센서스에서는 약간 감소한 26.4%가 되었다.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습윤지대의 인구비율도 53년의 64.6%에서 81년 57.4%로 감소하는 등 인구분포가 점차 균등분포화 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의 특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도시로의 인구이동도 미미한 수준으로 도시지역 인구증가율은 불과 1.3%에 머물고 있다.

표 I - 11 서남아시아 주요 국별 인구관련지표

구 분	년 도	스리랑카	인 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 구(백만인)	1990	17	849.5	112.4	106.7
인구밀도(인/km)	1987	249	238	128	712
년평균증가율(%)	80-90	1.4	2.1	3.1	2.3
도시인구비율(%)	1990	21	27	32	16
15~16세 인구비율	1990	62.7	58.7	53	54
粗사망율(/천명)	1990	6	11	12	14
粗출생율(/천명)	1990	20	30	42	35
기대 수명	1990	71	59	56	52

자료 : 세계개발보고 1992 세계은행, 세계인구연감 1987 국제연합,
세계아동 백서 1991 UNICEF

다. 해외 취업

해외취업자의 송금은 스리랑카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서 89년의 경우 송금액이 3억3천만 달러를 기록, 同國의 상품수출 총액의 약 20%에 상당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에 있어서의 세번째 외화 획득원이 되고 있다. 오일쇼크(1973)이후의 중동제국에서의 인력수요증대와 1977년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에 의한 해외진출기회의 확대, 국내에서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간 사람이 1988년에만 약 5만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숙련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노동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의 중·고급기술자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90년 8월 발발한 걸프전쟁으로 인하여 취업중이던 수십만의 노동자가 귀국하게 됨으로서 이라크 및 쿠웨이트에서만 1억2천만불 규모의 송금단절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실업문제도 악화되었다.

표 I - 12 총 인구의 추이

년 도	총 인 구	남 자	여 자	인 구 밀 도
1871	2,400	1,280	1,120	37
1881	2,760	1,470	1,290	43
1891	3,008	1,593	1,414	46
1901	3,566	1,896	1,670	55
1911	4,106	2,175	1,931	64
1921	4,498	2,381	2,117	69
1931	5,307	2,811	2,495	82
1946	6,657	3,532	3,125	103
1953	8,098	4,269	3,829	125
1963	10,582	5,499	5,083	164
1971	12,690	6,531	6,159	196
1981	14,847	7,568	7,278	230
1987	16,361	8,339	8,022	253
1988	16,586	8,455	8,131	257
1989	16,806	8,567	8,239	260
1990	16,993	8,662	8,331	263
1991	17,247	8,792	8,455	267

자료 : Economic and Statistics of Srilanka, Central Bank Statistical Year Book, 1992

4. 민족간 갈등

가. 타밀과격파의 출현과 그 배경

스리랑카에서의 민족분쟁의 시발점은 독립후 다수민족인 싱하라정권에 의한 민족주의의 대두이다. 즉 독립후 초대수상인 D.C. 세나나야케 및 2대 수상 다도리 세나나야케는 포르투갈 등 외세에 의해 멸망된 싱하라왕국의 부흥을 노리는 전형적 민족주의자였다.

또한 1956년부터 정권을 잡은 반달라나이크 여사도 열렬한 싱하라 민족주의자로서 토지없는 싱하라농민에게는 국가사업용 농지를 불하하는 등 특혜를 베푸는 반면, 타밀농민에 대해서는 부당한 취급을 하였다. 이 싱하라 우대정책의 중핵을 이루는 것이 소위 "公用語法"이었다. 이는 교육, 법률, 재판, 공무원채용시험, T.V 방송 등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싱하라語를 공용어화한 것인바, 이는 소수민족인 타밀인의 강한 반발을 사 1958년 분노한 타밀인들이 싱하라어 간판을 태워버리는 등 타밀인폭동을 초래하였다.

더우기 1977년 수상으로 취임한 자야와르데네는 마하엘리 종합개발사업을 6년으로 단축하면서 북부 타밀거주지역에 대한 간선수로건설을 취소하였으며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정책을 추진, 남인도의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여 이로 인해 자후나반도를 중심으로 한 타밀농민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와 같은 싱하라인 우대정책에 대해 타밀인 청년조직은 "이람공화국분리 독립운동"을 전개, 1970년 이후 타밀인 개척지에서 가까운 싱하라인 개척지를 공격하여 싱하라난민을 증대시켰으며 이에 대해 싱하라 청년들이 반격을 가하는 등 양민족간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었다.

나. 1983년의 폭동발발에서 1987년의 인도-스리랑카 평화협정체결까지

1983년 7월 23일 북부 자후나의 타밀인과격파에 의한 싱하라병사 살해사건을 계기로 콜롬보의 타밀인상점이 불타고 콜롬보 시내 전체가 방화의 불길에 휩싸이는 등 인종폭동이 발발했다. 이 폭동은 사망자를 400명 이상 발생시키며 감파하, 카루타라, 캔디, 누와라에리아, 트링코말리 등 스리랑카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인종폭동은 외형적으로는 스리랑카정부와 타밀과격파와의 대립양상을 보이며 진행됐는데 스리랑카북부, 동부를 중심으로 격화되어 1985년 5월에는 아누라다프라에서의 기관총난사로 일반시민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스리랑카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치안의 유지와 타밀 게릴라토벌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도정부의 중재하에 게릴라측과 정전교섭을 개시, 1987년 7월 29일 다음과 같은 스리랑카·인도 평화협정문이 조인되었다.

- a. 북부주와 동부주를 통할하는 주의회를 창설한다. (자치권의 대폭적인 확대)
- b. 타밀어를 공용어화 한다.
- c. 타밀과격파와 스리랑카치안군은 휴전한다
- d. 타밀과격파와 남인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스리랑카해군은 공동순찰을 실시한다.
- e. 스리랑카에 인도는 군사력을 제공한다.
- f. 스리랑카 외교정책에 관하여 인도-스리랑카간 별도의 협의 기구를 창설한다.

다. 평화협정후의 민족분쟁

평화협정에 따라 스리랑카에 5~10만 규모의 인도평화유지군(IPKF)이 주둔케 되어 스리랑카정부군과 이람분리독립운동을 주장해 온 타밀과격파와의 분쟁은 거의 종결되었다.

그러나 인도군의 주둔에 대해 북부지역에서는 "타밀-이람해방 호랑이(LTTE)"가, 남부지역에서는 "인민해방전선(JVP)"이 반대운동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LTTE는 인도군과 대립하게 되었고 JVP는 스리랑카정부군과 대립하게 되어 인근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한편 북동부주에서는 스리랑카-인도 평화협정에 따라 북동부 합병주가 탄생하여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이람인민혁명해방전선(EPRLF)"이 주정부를 조직했다.

스리랑카정부는 당초 인도평화유지군(IPKF)을 통해 LTTE를 진압할 방침이었으나 인도정부의 후원하에 트링코말리에 지방정권이 수립되고 이들에 의해 "타밀국가군(TNA)"이 창설되자 LTTE와 함께 TNA에 대항했다.

라. LTTE와의 화해 및 JVP의 퇴조

1989년 4월 싱하라-타밀사이의 정전을 계기로 LTTE는 스리랑카정부와 화해하였다.

스리랑카정부는 LTTE와 함께 인도군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한 소수민족 해방운동이 인도군의 철수요구 및 LTTE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 스리랑카정부에 유리한 상태가 되었다.

한편 JVP는 1983년의 민족분쟁 이전부터 싱하라인 민족주의를 주장해 왔는데 평화협정후에도 인도군의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스-인 평화협정에 따라 타밀인의 자치권확대를 가능토록 한 헌법개정 및 주의회설치법에 반대하고 평화협정을 거부하였으며 남부를 중심으로 정부관계자에 대한 테러, 파업 및 상점폐쇄강요 등 사회불안을 야기했다. 그러나 그들의 테러행위로 1987년 7월 - 89년 9월 사이에 1,000명 이상의 일반시민이 희생되자 일반시민들의 JVP離返이 촉진되었으며 1989년 11월 JVP지도자의 체포를 계기로 간부다수가 체포, 처형됨에 따라 이들 세력은 지리멸렬해지고 이에 따라 남부의 치안정세도 점차 개선되었다.

마. 인도군의 철수 및 프레마다사대통령 암살

인도에서는 1989년 11월 하원총선거 결과 간디수상이 이끄는 국민의회파가 패배하고 자나타다르黨의 V.P. 싱 수상이 정권을 잡았다. V.P. 싱 수상은 스리랑카와의 관계개선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인도-스리랑카간

현안과제였던 인도군의 철수를 실시했다. 1990년 3월 인도군 철수완료후 LTTE가 군사적으로 북동부주를 장악함에 따라 EPRLF의 주요간부는 인도군과 함께 국외로 탈출했으나 후에 LTTE의 공작원에 의해 살해되었다.

LTTE는 EPRLF토벌 후 스리랑카정부와의 협력관계를 파기하고 스리랑카 정부와 전투상태에 들어가 수천명의 전사자와 수만명의 피난민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민족자결과 인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LTTE에 호의적이던 국제여론도 이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악화되게 되었다. 이에 스리랑카정부는 LTTE가 장악하고 있는 동북부지역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 치안회복지역을 확대하였으나 '93년 4월 프레마다사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던 야당지도자 아슬라스무달리의 암살에 뒤이어 프레마다사대통령 역시 살해됨에 따라 향후 정국의 추이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편이다. 한편 프레마다사 대통령의 후임으로 등장한 위제통가대통령은 당내에서의 영향력 결여 및 야당의 정국수습압력으로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I. 경제 및 개발 계획

1. 경제 · 무역

1. 거시경제

가. 개 요

1984년 英聯邦內 自治國으로 독립한 스리랑카는 식민지연장형 경제구조가 1956년까지 지속됐으며 이후 반다라나이케를 수반으로 하는 민족주의 자유당정권이 집권함에 따라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념에 의거, 기업, 플랜테이션(열대농장)의 국유화 및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同政權은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악화된 경제제건에 실패하여 1977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정책을 지향한 자야와르데네 통일국민당정권이 등장했다.

한편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적 격차확대, 싱하라인과 타밀인 사이의 민족분쟁에 의한 치안문제 등이 빈발하는 상황 속에서 자야와르데네의 뒤를 이어 1989년 탄생한 프레마다사정권 역시 재정적자 및 대외채무의 확대, 걸프전쟁으로 인한 고용기회 부족과 해외취업자(수십만명 추산)의 귀국문제 등으로 경제개발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스리랑카경제의 주요지표는 표 II-1과 같은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스리랑카경제는 아직 저개발국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 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농업으로 농림수산부문이 GDP의 23%(19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동력의 45%가 이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플랜테이션방식에 의한 少數의 수출용 茶, 고무생산업자 외에는 小農(전체농가의 60% 이상이 0.6ha 이하의 농경지에서 영농)이 대부분이며 코코넛, 쌀, 잡곡, 야채 등을 재배하고 있다.

무역부문의 경우 이 나라의 전통적 수출품인 차, 고무, 보석의 비중이 감소하고 공업개발정책의 영향으로 봉제품 등 공업제품의 비율(51%, 봉제품 31%, 1989)이 높아지고 있다.

표 II - 1 스리랑카의 주요경제 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G D P	-	6,979	6,988	8,031	9,072
1인당 GDP	-	420.7	415.7	472.7	-
소비자물가상승율	7.7	14.0	11.5	21.5	12.2
환율(달러당)	29.44	31.80	36.04	40.06	41.37
경상수지	-326	-395	-414	-298	-268
무역수지	-472	-541	-550	-473	-474
수출	1,394	1,477	1,505	1,853	2,009
수입	1,866	2,018	2,055	2,326	2,483
대외지급준비자산	279	222	244	423	685
총외채	4,745	5,199	5,161	5,851	6,553
D.S.R.	23.2	21.7	18.6	13.8	14.1
재정수지/GDP	-8.7	-12.7	-8.6	-7.8	-7.5

자료 : IMF, IFS 1993.2.
World Bank Debt Tables 1991/1992

나. 경제발전 단계

1956년 이후 계속된 사회복지 중시정책 아래서 就學率, 識字率, 乳兒

妊産婦 死亡率, 平均壽命 등 교육, 의료면에서의 BHN(Basic Human Need) 충족정도는 중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농업은 홍차, 천연고무, 코코넛 등 1차생산물 의존적이며 제조업은 비능률적 정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은 470달러(1990년)로 인도네시아(570달러)보다 낮고 인도(350달러), 파키스탄(380달러)보다는 약간 높지만 여전히 저소득국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20년전과 비교해 보면 소득은 2배 정도 향상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II - 2 아시아 각국별 경제성장을 비교

(단위 : 달러, %)

구 분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1인당 GNP (1990)	470	350	380	730	1,400	470
GNP 평균성장률 (1965~90)	4.5	1.9	2.5	1.3	4.4	2.9

자료 :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과거의 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의 기본적 생활향상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높은 복지수준과 상반된 낮은 稅率은 국가재정을 압박하였으며 스리랑카 정부는 이 재정적자를 해외로부터의 원조로 보충해 왔다.

그러나 계속된 대외채무의 누적 및 재정적자확대로 스리랑카정부는 1988년 IMF·세계은행 등의 구조조정정책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스리랑카정부는 1988년 합의한 구조조정정책의 기본틀 안에서의 정책적 선택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화와 그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세부계획의 달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다. 경제 구조

스리랑카경제는 홍차, 고무, 코코넛(3대 전통상품)의 재배와 수출에

의해 획득한 외화로 국내필수물자를 수입하는 전형적인 식민지경제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차산품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스리랑카정부는 수입대체산업육성을 목표로 국내공업의 진흥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 3대 전통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77년 이후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농업, 공업, 금융부문 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공공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했다. 그러나 민족분쟁, 이상 기후, 1차산품 국제시세 하락, 국가경제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스리랑카경제는 1987년의 경제성장을 1.5%를 최저점으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평균경제성장을 2.5%를 기록했다. 또한 1인당 GNP성장율도 198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986년부터 1989년까지 0.3%의 저조한 연평균 성장율을 보였다.

한편 1990년에는 국내치안상태 개선, 기후순조 등의 영향으로 6.2%의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91년에는 4.8%성장에 그치는 등 하락세를 보였으며 재정·외환 사정도 근년들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표 II - 3. 경제성장을 추이

년 도	1985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성장을 (%)	5.0	1.5	2.7	2.3	6.2	4.8	4.3

자료 : Central Bank of Srilanka : Annual Report 1992

※ 1992년은 예상치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구성비는 1970년 이후 약간 변화했을 뿐인데 농업부문(1970년 28%에서 90년 23%)이 약간 감소했고, 공업부문(1970년 17%에서 90년 15%)도 감소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전통적 수출품(홍차,

고무, 코코넛)의 상대적 지위 하락(1985년 47%에서 90년 42%)을 보완하는 형태로 경공업(봉제업, 도자기등)부문의 수출(1985년 수출의 40%에서 90년 51%로)이 증대했는데 이는 정부의 외자도입정책과 輸出加工區域 개발 등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콜롬보 주변 2곳의 수출가공구역에서의 수출은 1983년 24억 루피(전체 수출의 10%)에서 89년 120억 루피(22%)로 눈부시게 증대했다. 또한 정부기업이 같은 기간,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한 반면 민간기업들은 년평균 18%(1983-90)의 높은 성장율을 시현했다.

표 II - 4 GDP의 산업별 구성 현황

(단위 : 백만 루피, %)

구 분	1985	구성비	87	88	89	90	구성비
농 립 수 산 업	28,366	25.9	27,409	27,985	27,666	30,011	23.2
광업 · 채석업	2,486	2.3	3,112	3,392	3,576	3,901	3.0
제 조 업	16,193	14.8	18,748	19,622	20,488	22,427	17.4
건 설 업	8,070	7.4	8,338	8,463	8,514	8,761	6.8
전 기 · 가 스	1,313	1.2	1,448	1,499	1,526	1,681	1.3
운 수 · 통 신	12,959	11.8	13,538	13,619	13,883	14,410	11.1
도 · 소 매 업	22,925	20.9	24,496	25,614	25,588	26,497	20.5
금융 · 부동산	4,975	4.5	5,490	5,819	6,168	6,556	5.1
주 택	3,432	3.1	3,550	3,603	3,650	3,705	2.9
행 정 · 국 방	4,432	4.0	5,435	5,462	6,140	6,355	4.9
서 비 스 업	4,419	4.0	4,358	4,423	4,530	4,940	3.8
합 계	109,570	100.0	115,922	119,050	121,729	129,244	100.0

자료 : Central Bank of Srilanka : Annual Report 1992

한편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대한 국내재원부족으로, 저축과 투자의 갭(GAP)은 1983년 이후 GDP의 9%에 이르고 있으며 이 차이를 대부분 외국자본에 의존하여 GDP에 대한 외채비율이 1983년의 56%에서 1991년 73%로 상승했다.

비효율적인 정부기업은 경쟁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화의 공급능력을 저하시켜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바, 현재 이들 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구조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II - 5 자금 갭 (GAP) 표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자금 수요	940	820	840	871	887
경상수지적자보충	597	545	557	513	459
원금변제	270	219	187	211	249
외화준비증감	113	12	58	64	108
IMF변제	86	58	41	83	71
자금 공급	954	883	715.5	755.5	769
민간자금유입	118	158	72	58	64
외국원조	576	465	505.5	588.5	583
IMF	206	85	58	-	-
직접투자	43	20	30	38	48
기타	11	155	50	71	74
자금 갭	-	-	124.5	115.5	118

자료 : OECF, 스리랑카 거시경제조사

한편 빈부의 격차는 지역간 격차와 함께 확대경향에 있으며 1990년 발생한 걸프전쟁에 따른 해외 취업자의 귀국(대부분이 부녀자)은 실업율을

상승시킨 결과(1986년 15.7%에서 1990년 20%)가 되었다.

상기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리랑카정부는 1988년 IMF와 구조조정정책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0년 4월 새로운 거시경제조정목표(PFP)를 입안했다. 이에 따르면 거시경제 체질강화, 정부기업 경영구조 합리화, 민간기업육성, 빈곤퇴치 등을 목표로 보조금삭감, 세제개혁, 통상산업정책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제수지 정상화를 위해 1989년 "공업화 전략"을 공표, 외화획득 가능성이 있는 수출지향형 산업의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스리랑카정부는 생산적 고용확보를 통한 빈곤층의 수입증대를 목표로 빈곤퇴치계획(자나사비아 계획)에 착수하였으나 세출삭감 등을 권고한 세계은행·IMF의 구조조정계획을 고려하여 현재 자나사비아계획을 원안보다 축소, 소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표 II - 6 거시경제조정(PFP) 목표(%)

구 분	1989	1990	1991	1992
GDP 성장을	2.0	3.0	3.0	4.0
물가	12.0	10.0	8.0	7.0
채무변제 비율 (이하는 對 GDP비)	26.6	22.1	23.0	22.2
총투자	21.1	20.6	19.3	20.0
총저축	10.7	11.3	11.4	13.7
정부수입	21.1	21.4	21.3	20.7
정부지출	33.8	31.8	30.3	28.7
재정적자	12.5	10.4	9.0	8.0
국내금융조달	6.4	4.1	2.6	1.4

자료 : 스리랑카 중앙은행 (1988, 89, 90)

라. 경제 동향

스리랑카는 1977년 통일국민당이 집권하면서 종전의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에서 탈피, 성장 및 고용창출에 중점을 둔 경제의 자유화, 개방화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1986년까지 5%내외의 확실한 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987-89년 중에는 민족분쟁의 격화에 따른 내·외국인투자격감, 관광부문위축, 가뭄과 1차산품 국제시세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율이 年2% 내외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1990년에는 국내치안상태 개선, 기후순조 등에 의한 농업, 제조업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6.2%의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1991년에는 제조업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기후불순에 의한 농업부문의 부진으로 전년보다 다소 둔화된 4.8%의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1992년에는 상반기의 극심한 가뭄으로 최대 환금작물인 홍차를 비롯, 주요 농산물의 생산이 격감, 경제성장율이 더욱 둔화되어 4.3%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마. 스리랑카경제의 문제점

경제구조상 해외시장 및 기상조건 등 외적요인의 영향을 받기쉬운 1차 생산물(차, 고무, 코코넛)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1984년까지 계속된 야심적 공공투자정책(GDP의 11~15%)의 무리한 시행으로 정부채무가 증대하였으며 이와함께 실질금리상승에 의한 민간부문의 자금수요압박은 스리랑카경제를 외자의존형으로 만들었다.

또한 정부지출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더욱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한 정부의 경직적 통화정책과 루피貨의 평가절상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국제수지적자 보충을 위한 새로운 외자도입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공공부문(중앙정부, 정부기업 합하여 125만명으로 전취업 인구 619만명의 약 20%)의 비대성과 비효율성도 경제악화의 주요인의 하나이다.

중앙정부는 GDP의 33~34%를 지출(경상지출 20%, 자본지출 13~14%)하고 있으며 경상지출의 반은 인건비로, 다른 반은 정부 채무이자, 각종 복지정책을 위한 이전지출과 정부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효율적인 정부기업을 온존시키고 민간부분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1983년 이후 치열해진 민족분쟁 및 과격파 싱하라인의 폭동은 국방·치안유지비의 증대, 북동부주에서의 徵稅곤란, 농·어업생산량 감소, 관광수입 감소, 외자도입 감소 등의 악영향을 초래하여 스리랑카경제를 한층 악화시켰다.

이와 같이 스리랑카의 거시경제를 둘러싼 문제는 여러가지이나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① 국민저축과 투자의 마이너스 GAP ② 이를 보충하기 위한 대외채무의 확대 ③ 사회복지정책 추진 및 대규모 공공투자예 따른 재정적자 확대 ④ 정부기업의 비대화와 비능률 등을 들 수 있다.

2. 무역

가. 무역구조

스리랑카의 대외거래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농업위주의 생산구조를 반영하여 1차산품 수출, 공산품 수입이라는 개도국의 일반적인 남북무역패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오랜 식민지시대를 통하여 형성된 농산품 위주의 생산구조 및 공업화의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전통적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변동은 수출농가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어 경제불안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은행 등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산업구조조정 및 스리랑카정부의 공업개발정책, 외국자본 유치노력의 결과 수출품에서 차지하는 공산품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등 구조변화의 움직임도 보인다.

표 II - 7 주요 품목별 수출입 (FOB) 추이

【수 출】

(단위 : 백만루피, %)

구 분	1983	비율 (%)	1989	1990	1991	비율 (%)
농산물	14,545	58.0	22,049	28,836	26,537	31.5
홍 차	8,295	33.1	13,664	19,823	17,867	21.2
고 무	2,852	11.4	3,112	3,080	2,641	3.1
코코넛	1,921	7.6	2,865	2,783	2,619	3.1
공산품	8,821	35.1	28,470	41,510	50,736	60.1
섬 유	4,738	18.9	17,631	25,163	33,261	39.4
의 복	2,682	10.6	2,242	3,974	3,289	3.9
광산품	1,132	4.5	2,693	3,484	2,562	3.0
보 석	940	3.7	2,204	2,933	2,353	2.8
수출 총 계	25,096	100.0	56,175	79,481	84,378	100.0

자료 : Central Bank of Sri Lanka : Annual Report 1992

【수 입】

(단위 : 백만루피, %)

구 분	1983	비율 (%)	1989	1990	1991	비율 (%)
소 비 재	11,639	25.6	20,962	28,420	32,357	25.5
쌀	765	1.7	3,396	1,758	1,589	1.3
소 맥	108	0.2	175	1,387	1	0.0
설탕	1,985	4.4	4,326	5,173	5,139	4.1
중 간 재	21,727	47.7	45,255	55,725	64,265	50.7
석유제품	11,024	24.2	8,376	14,372	12,887	10.2
자 본 재	12,077	26.5	12,018	23,412	29,792	23.5
기계류	5,261	11.6	6,278	9,885	11,881	9.4
수송기기	3,826	8.4	1,833	4,537	7,607	6.0
수입 총 계	45,558	100.0	80,225	107,729	126,643	100.0

자료 : Central Bank of Sri Lanka : Annual Report 1992

표 II - 8 주요 국별 수출입 (FOB) 추이

【수 출】

(단위 : 백만루피, %)

구 분	1983	비율(%)	1989	1990	1991	비율(%)
미 국	4,390	17.4	14,417	19,731	23,127	27.4
독 일	1,542	6.1	3,440	5,074	6,156	7.3
일 본	1,140	4.5	3,207	4,102	4,203	4.9
영 국	1,258	5.0	3,186	4,612	5,221	6.2
벨 기 에	-	-	3,002	3,881	3,261	3.9
네 델 란 드	-	-	1,616	1,946	2,442	2.9
싱 가 포 르	881	3.2	-	1,982	2,791	3.3
수 출 총 계	25,182	100.0	56,175	79,481	84,378	100.0

자료: Central Bank of Sri Lanka: Annual Report 1992('91년은 잠정치임)

【수 입】

(단위 : 백만루피, %)

구 분	1983	비율(%)	1989	1990	1991	비율(%)
일 본	7,460	17.8	9,350	13,035	14,827	11.7
미 국	2,698	6.4	4,938	8,322	7,221	5.7
영 국	2,858	6.8	4,512	5,486	6,880	5.4
독 일	1,766	4.2	-	-	4,214	3.3
대 만	-	-	4,183	6,243	8,580	6.7
홍 콩	1,274	3.0	3,963	4,822	8,792	6.9
한 국	-	-	3,409	5,122	-	-
싱 가 포 르	3,499	8.3	3,402	-	5,584	4.4
인 도	2,709	6.4	-	4,730	9,105	7.2
수 입 총 계	45,558	100.0	80,225	107,729	126,643	100.0

자료: Central Bank of Sri Lanka: Annual Report 1992('91년은 잠정치임)

나. 국제 수지

經濟自由化政策이 추진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국제수지사정은 크게 악화되어 왔다. 經濟自由化政策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스리랑카는 비교적 폐쇄적인 대외경제정책 하에서 공공부문 우선의 輸入割當制 및 엄격한 外換管理政策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심각한 국제수지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역 및 외환관리가 완화되고 전반적 경제자유화에 힘입어 경제활동이 활성화 됨에 따라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난데다 스리랑카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자본재와 석유 등 에너지수요가 증대되어 貿易收支는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貿易外收支 역시 운임, 보험료 및 외채지급이자 증대, 관광수입 감소 등으로 계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經常收支도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힘입은 상당규모의 移轉收支 흑자에도 불구하고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資本收支는 정부 장기차입금의 증대로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접투자는 적자 또는 약간의 흑자를 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상수지의 적자보전 및 채무변제를 위해 대외차입이나 외국원조에 의존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시키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

91년의 국제수지동향을 살펴보면 종합수지는 무역수지 적자폭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지의 대폭적인 흑자에 의해 전년에 이어 약100억루피의 흑자를 시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역외수지는 치안상태의 호전에 의한 관광수입의 증대(전년비 26%증가)에 의해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전수지는 걸프전쟁의 종결로 해외취업자들의 송금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 민간부문의 수지가 163.3억루피의 흑자를 나타냈다.

경상수지의 경우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전년비 2배인 211억루피로 증대했다. 그러나 자본수지는 외국 직접투자수취

액의 증대 및 일본, 제2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 정부자금조달의 증대로 271억루피로 대폭 증가했다.

표 II - 9 국 제 수 지 동 향

(단위 : 백만루피)

구 분	87	88	89	90	91
무역수지	-20,005	-24,268	-24,050	-28,145	-41,184
수출(FOB)	41,097	46,985	56,175	79,481	84,378
수입(CIF)	61,102	71,253	80,225	107,626	125,562
무역외수지	-4,625	-4,884	-5,609	-3,904	-4,448
이 전 수 지	14,537	16,775	18,591	21,669	24,504
경 상 수 지	-10,093	-12,377	-11,069	-10,390	-21,127
자 본 수 지	9,058	8,308	10,566	18,932	27,138
평 가 수 정	1,841	7	-108	752	235
오차, 탈락	-2,030	723	-1,294	2,097	3,723
SDR 배 당	-	-	-	-	-
총 합 수 지	-1,224	-3,339	-1,905	7,196	9,969

자료 : Central Bank of Srilanka : bulletin, 92년 2월호 (91년은 잠정치임)

다. 대외 채무

대외채무는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의 보전과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부분 해외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꾸준히 증가하여 1991년말 현재 총 외채잔액은 GNP의 약 75%인 6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총 외채의 약 70%가 양허성차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채상환비율(D. S. R.)은 1987년에 23.2%에 달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며 1991년에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위험수준으로 보는 20%를 하회하고 있다.

표 II - 10 외 채 추 이 (1986~91)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86	87	88	89	90	91
총 외 채	4,080	4,748	5,201	5,173	5,844	6,553
장기 채무	3,548	4,198	4,265	4,413	5,040	5,758
공 적	3,452	4,081	4,151	4,281	4,938	5,653
민 간	96	117	113	132	102	105
I. M. F 융자	347	277	359	366	410	401
단기 채무	185	273	577	394	394	394
對GNP比(%)	64.0	71.4	74.7	74.6	73.2	72.6
외채상환비율 (D. S. R.)	20.9	23.2	21.7	18.6	13.9	14.1

자료 : 世銀, World Debt Tables, 1992

2. 경제개발계획

1. 개 요

1947년 제1차 경제개발 6개년계획에 착수한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1차생산물(차, 고무, 코코넛)의 수출에 크게 의존적인 식민지경제의 토대위에서 독립한 同國은 해외시장

및 기상여건의 변화에 국내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더우기 잦은 정권교체에 따라 개발계획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도자 교체에 의한 일선현장의 혼란으로 개발프로젝트의 시행이 지체되는 등 개발계획시행 도중 중단된 개발계획도 많이 발생했다.

1977년 통일국민당의 자아와르테네정권 이후 프레마다사정권까지의 경제정책은 비교적 일관된 양상을 보였다. 1979년 이후의 개발계획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에 한정되었으며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매년 개정하는 Rolling Plan형태로 변경되었다.

2. 과거의 개발계획

제2차 6개년경제개발계획 이후의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제2차 6개년계획(1954/55~1959/60)

1955년 공포된 제2차 6개년계획은 제1차 6개년계획을 이어받는 형태를 취했으나 기본틀은 1952년 세계은행이 제안한 경제개발계획에 따랐으며 투자총액은 25억 2천9백만루피로 이중 12억루피는 이미 착수중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배정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56년 총선거에서 통일국민당이 자유당연합정권에 대패함과 동시에 소멸되었다.

나. 10개년 계획(1959/60~1968/69)

1956년 4월 출범한 반다라나이케 자유당연합정권은 해외의 유명경제학자 등의 연구를 토대로 10개년 개발계획을 작성했다. 이 계획의 기본목표는 ① 고용기회 창출 ② 국제수지 균형 ③ 생활수준 향상 ④ 경제다각화 ⑤ 국민소득의 공정한 배분 등 5개 항목이었다.

이 계획의 특징은 종전의 계획에서는 중시되지 않았던 공업화정책이 경제구조 다각화, 국제수지 및 고용대책으로서 각광을 받은 것이다. 이후 자유당 정권하에서는 정부기업육성을 통한 수입대체적 공업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외의 특징으로 개발계획으로는 처음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투자총액의 32%) 실시 및 원조자금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10개년계획은 시행 후 2년만에 국제수지위기에 직면, 1962~64년 사이의 단기계획으로 축소, 전환되었으며 이어서 1965년 총선거에서 자유당정권이 패배함에 따라 완전 폐기되었다.

다. 新5개년 계획(1972~76)

1965년의 총선거에서 통일국민당정권이 승리하여 잠시 경제개발 계획을 시행하지 않은 때가 있었으나 1970년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다시 대승함에 따라 1971년 11월 新5개년계획을 공표했다.

이 계획의 기본목표는, ① 장기적 차원에서의 경제구조 변혁추진 ② 국제수지 개선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위한 단기적 정책실시 ③ 불필요한 소비의 억제와 소득분배의 평등에 의한 사회적 긴장해소 ④ 주택, 위생,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과 영양수준의 향상 등 저소득층 대상의 제정책 실시 ⑤ 농촌사회의 활성화, 근대화, 농촌공업육성 등 5개 항목이다.

이 계획의 총 투자액은 148억 2천만 루피로서 그 대부분을 국내저축에 의존하고 해외원조는 불과 15억 루피밖에 계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계획 후반기에 오일쇼크로 인한 국제경제환경의 악화와 민족분쟁에 의한 政情不安으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라. 제1차 공공투자 5개년계획(1979~1983 Rolling Plan) 이후
1977년 총선거에서 압승한 자야와르데네 통일국민당정권은 당시의 경제침

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기업의 민영화 및 수출입 자유화 등 민간자본육성,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국제수지 안정화로 정책의 주안점을 옮겼다. 그 결과 경제는 급속히 활성화 되었으며, 이에 자신을 얻은 정부는 공공투자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5년에 걸친 정부투자계획의 기본지침으로 작성된 것으로 각 년도별 투자실적, 각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성숙도, 재원의 확보상태에 따라 매년 수정해 가는 Rolling Plan 방식의 임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계획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목표는 경제활동의 자유화 및 활성화에 의한 고용창출과 자본축적이며,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마하엘리 개발계획, 수출가공구 운영, 주택건설 등을 들 수 있다. 투자총액은 771억 700만 루피로 이 자금중 43%를 해외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그 후 공공투자 5개년계획은 매년 갱신되어 현재의 5개년계획은 12차계획(1990~1994)이 되는데 Rolling Plan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중 각 개별계획의 달성도는 명확하지 않다. 기본계획의 목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으며, 그때 그때 마다의 경제상황에 따라 투자의 중점이 다소 수정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1985~1989년 사이의 성과를 보면 평균 경제성장률은 2.5%로 목표치 2.9%에는 달하지 못했다. 부문별로 보면 공업부문의 신장이 평균 7.9%로 제일 큰 바, 이는 민간부문에서의 의류수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업부문과 서비스부문은 각각 평균 1.3%와 5.0%에 머물렀으며 인플레이션은 평균 8.9%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3. 현재의 개발계획

가. 개 요

현재의 개발계획은 公共投資 5個年計劃(1990~94)이다. 최근의 政情不安은 행정기능 및 운수·통신·금융 등의 원활한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기후불순과 함께 생산, 수출 등 스리랑카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표 II - 11 공공투자계획 주요 목표

구 분	1990년	1992년	1994년	'92~'94평균
GDP성장율(실질)	5.0	5.5	5.6	5.3
플랜테이션	-0.3	1.9	1.9	1.7
농 업	6.5	2.9	2.7	3.5
광공업 건설업	5.3	9.6	10.3	8.6
서비스업	4.8	4.4	4.0	4.4
GDP(89년가격, 10억루피)	365.4	294.6	328.6	-
국제수지(백억SDR)				
수 출	1,687	2,035	2,472	-
수 입	2,258	2,518	2,961	-
무역수지	-571	-483	-489	-
무역외수출	47	60	91	-
무역외수입	185	213	260	-
민간이전수지	245	944	244	-
경상수지	-464	-392	-414	-
공적이전수지	117	155	164	-
자본수지				-
중장기 차입	480	408	420	-
단기차입	28	11	8	-
상 각	150	190	190	-
해외직접투자	16	30	54	-
종합수지	30	23	41	-

자료 : Public Investment 1990-94

이와 같은 사정으로 현재의 개발계획은 IMF,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약간 소극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현재의 정정불안의 주요인중 하나인 실업문제 등 경제·사회문제는 향후 10년간 적어도 연평균 6~7%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민족간 갈등을 해결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구조조정계획을 실행할 강한 의지없이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불안이 계속되면 투자에 필요한 내·외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시급히 국제수지 악화와 인플레이를 억제할 단기적인 경제안정화 계획이 필요하다. 이 안정화계획의 중심과제는 재정적자를 억제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지출을 삭감하는데 있다.

이번 공공투자 계획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요목표, 지표 및 중점개발 계획은 아래와 같다.

경제성장율은 이전의 공공투자 계획에서 기대해 온 수치(3.3%)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외자도입으로 인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외국의 원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임시적이고 소극적으로 짜여져 있으나, 사회경제상황이 정상화되면 더욱 역동적인 개발계획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의 실행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대와 고용창출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 경우 제조업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의 민간투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공공투자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1) 주요목표·지표

【생산 및 투자】

- GDP 성장율 : 연평균 5.1%(前回計劃 3.3%)
(플랜테이션 농업 1.7%, 플랜테이션外
농업 3.5%, 鑛工業 8.6%, 서비스 4.4%)
- 1인당 국민소득 : 연평균 3.5% 성장
- 국내 총자본 : GDP比 22% 유지

- 국민저축율 : 14%(1990)에서 17%(1994)로 증대
- 민간투자(국내총자본 比) : 1990년 52%에서 1994년 56%로 증대
- 정부소비 : GDP比 10% 정도를 유지
- 인플레이율(GDP 디플레이터) : 1990년 19.5%에서 1994년 5.5%로 억제

【 재 정 】

- 세입 : GDP比 22% 유지
- 재정적자 : GDP比 1990년 10.8%에서 1994년 7.8%수준으로 삭감
- 국내차입 : GDP比 1990년 4.5%에서 1994년 2.3%로 억제

【 국 제 수 지 】

- 경상수지 적자액 : 1990년 4억6천4백만SDR에서 1994년 4억1천4백만 SDR로 감축
- 同(GDP比) : 1990년 7.7%에서 1994년 4.1%
- 중장기 미상환 채무(GDP比) : 1990년 72.8%에서 1994년 65.2%
- 채무변제 비율(對수출) : 1990년 16.9%에서 1994년 13.9%
- 외환준비고(對수입) : 1994년 3.0개월분

2) 중점개발계획(1990~1994) 목표

- ① 경제구조 개혁
- ② 경제안정화
- ③ 행정개혁
- ④ 정부기업의 구조개선
- ⑤ 빈곤 퇴치
- ⑥ 민간기업육성

⑦ 부흥사업추진

다. 세부 내역

1) 경제구조 개혁

스리랑카는 의료, 교육 기타 사회서비스에 의해 평균수명, 식자율, 의료지수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됐으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발전에 비해 경제성장은 정체되어 있다. 이는 1977년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의 추진으로 다소 개선되는 듯 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의 저성장, 거시경제의 불균형, 높은 실업율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최근의 민족분쟁에 의한 정정불안도 경제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1989년에 등장한 新정부는 평화정착, 경제안정, 행정개혁실시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하였는데 정부는 경제의 구조적개혁 없이는 경제안정화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나 한편 급격한 경제개혁이 경제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염려, 경제개혁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IMF의 Policy Frame Work Paper(PFP)에서 제기된 구조조정계획도 국내정치상황의 변화에 맞게 실시하고자 하였다. 1989년 3월 스리랑카국회 예산연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었다.

- 경제성장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비중을 높이고 민간부문 경영환경의 개선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인다.
- 정부는 이 계획에 의해 돌아올 이익을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 (자나사워아 계획은 그 첫번째 시도로 빈곤층이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정하였음)

이중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개혁이며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규모 축소, 낙후된 공공부문의 경제·재정상태 개선이 거론되고 있는바,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수의 삭감, 정부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이다. 1990~1994년 사이의 개발계획기간 중 스리랑카경제는 세제개혁, 무역 및 금융자유화, 전전재정운영 등 보다 개선된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

2) 경제안정화 계획

경제안정화 계획의 핵심은 재정적자규모의 축소이며 그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 - 12 재정적자 축소계획

년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재정적자 (GDP比)	10.8	9.3	8.5	8.1	7.8

자료 : Public Investment 1990-94

이에 따라 공공지출도 1990년의 GDP比 8.8%에서 1991년부터 94년까지는 9% 수준으로 억제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의 경우 공공지출규모가 급식제도 보급, 자나사뵤아계획 실시, 식량배급정책의 확대에 의해 GDP대비 34%를 넘어섬에 따라 정부는 재정적자의 삭감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1988년에 GDP 18%였던 세입규모를 1990년에는 20.4%로 증대시켰으며 1994년까지 19~20%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稅入증대방안으로는 징세체제강화, 비축식량 판매, 중앙은행의 이익에

대한 과세 등이 고려되고 있는데 국가세제위원회는 1990년말의 세제개혁안을 토대로 税制의 개선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총매상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한다.
- 소득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 과세단위를 개인에서 세대단위로 한다.

3) 행정 개혁

행정개혁위원회는 행정부문의 과잉인력과 축소 및 왜곡된 임금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제안서를 작성했다. 1989년 3월 정부는 이 제안서에 따라 장관수를 28명에서 24명으로, 행정각부의 수를 45개에서 24개로 축소하고 관계직원 300명을 해고하였다.

同 제안에서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인원도 일부 동결하고 공무원 급여체계는 이 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현상유지하되 연금의 삭감가능성을 조사, 검토하여 지금까지는 10년간 근무한 자의 경우 55세때 급여의 85%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금지급 근무기간을 최저 30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본 행정개혁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수익성없는 계획의 폐지와 계속중인 계획의 경비절감을 통한 공공지출 삭감이다.

한편 1988년도 IMF의 Policy Frame Work Paper(PFP)에서는 다음 4가지에 행정개혁의 중점이 두어졌다.

- 보조금제도의 축소
- 스리랑카 철도, 교통, 항공, 해운, 시멘트, 제당회사등 국영기업조직 쇄신
- 식량배급계획 수정보완
- 대규모 灌溉計劃(마하웰리계획) 및 설탕자급을 위한 투자 지원

1990년 정부는 Air Lanka, 실론해운, 스리랑카시멘트 등 정부계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1990년 원조예산을 삭감했으며 비료, 소맥 등에 대한 보조금지원도 중단했다. 또한 경영난 및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스리랑카교통국과 스리랑카철도의 재정부담이 증대함에 따라 스리랑카정부는 교통국의 민영화와 스리랑카철도의 개편에 착수했다. 마하웰리계획(B 프로젝트)도 공공지출삭감을 위해 연기되었다.

4) 국영기업의 구조개혁

행정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국영기업 구조개혁방안은 다음과 같다.

- 공공투자관리국 산하의 국영기업 정리통합(민영화 포함)
- 국영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제적, 재정적 구조개혁
- 비효율적 국영기업의 폐지

同위원회는 우선 工業省산하의 정부계기업 United Motors, 스리랑카섬유, 실론산소 등을 민영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나머지 20개사의 국영기업은 폐지해야 할 것, 민영화가 가능한 것, 민영화前에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 등으로 분류하는 한편 국영기업의 계속적 운영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지표를 작성하였다.

스리랑카 전체 수출액의 6%를 점하고 있는 것이 플랜테이션 작물인데 그 40%를 생산하는 국영기업이 심각한 재정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부는 국영기업의 기능회복을 위해 이같은 국영기업의 개혁계획을 공업성에서 다른 부처로 확대실시하는 등 그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5) 빈곤 퇴치

사회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서의 빈곤퇴치정책의 핵심은 식량배급계획, 급식제도계획, 자녀사취아 계획 등이며 이중 자녀사취아 계획은 빈곤층의 노동력을 생산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보조금을 지출하는 이 사업이 목표한 바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대상자층에 대한 공평한 지원과 나아가 이들 빈곤층이 경제성장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빈곤퇴치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스리랑카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것은 빈곤층 사람들이 구조조정계획 추진과정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복지정책 또는 빈곤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경제환경의 개선인바, 스리랑카 정부는 IMF의 PFP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조조정계획이 단기적으로는 빈곤층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소매과 교통운수부문에 대한 지원중지는 일반 소비재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나 한편으로 급식제도보급, 식량배급정책, 자나사뵤아계획 등 정부가 추진중인 빈곤퇴치정책은 이러한 일반소비재 가격상승의 영향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빈곤층의 소비수준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는 비료의 대부분을 공공의 플랜테이션과 대규모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그다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긴축 재정·금융정책의 운영에 따른 빈곤층에의 악영향은 이번 중기 구조조정계획중 자나사뵤아계획에서의 빈곤층대상 취업(수익)기회의 확대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입증대수단을 増稅에 의존하고 있어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이 커질 염려가 있다.

6) 민간기업 육성촉진

스리랑카의 민간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키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비교우위 있는 제품생산(수출)의 활성화
- 자유경쟁적 투자환경조성 및 각종 규제 철폐
- 국내저축과 국내 및 해외로 부터의 투자촉진

- 사회간접자본 정비, 조직관리기술 향상, 생산력 증대, 기타 생산비 절감을 위한 투자강화
-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대강화
- 국내시장지향적 공업구조에서 수출지향적 공업구조로의 이행 촉진
- 인구증가에 대응한 고용기회 및 소득원의 제공
- 경제구조 다각화 및 국제수지 개선
- 소득분배의 평등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및 이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

7) 부흥 사업

스리랑카의 특징적인 만성적 민족분쟁은 교육, 의료, 통신, 도로 등 사회·경제인프라의 황폐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충분한 재건계획이 실시되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東北지역에서 민족분쟁의 영향이 심각한 바, 이 지역의 재건문제는 균형있고 효율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흥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치안이 미확보된 지역에서는 사업에 착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일부 농민들은 민족분쟁으로 난민화하여 도시근교에 집단거주지를 형성하는 등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민족분쟁의 하루빠른 해결과 부흥사업의 조기추진이 요망되고 있다.

4. 마하웰리 綜合開發計劃

가. 배 경

마하웰리개발계획은 식량증산, 전력개발,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스리랑카 정부가 197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역점개발사업이다.

마하웰리江은 스리랑카 제1의 큰 강이며 전장 335km, 국토면적 65,610km² 중 10,000km²가 이 강의 유역으로서 그 수자원은 78.9억㎥에 달하는데

이는 소스리랑카 하천수량의 1/4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이 광대한 강유역은 연간강우량이 1,000mm이하인 건조지대가 대부분이며 반면, 수도인 콜롬보를 중심으로 전국토의 1/4에 지나지 않는 남서부에 전인구의 70%가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지는 모두 개발되어 더이상의 여유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마하웰리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건조지역을 관개하고 농업용지를 확충함과 동시에 전력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UNDP, FAO와 스리랑카정부간에 공동조사에 의한 개발계획이 1965~68년에 걸쳐 수립되었다.

당초 이 계획은 30년에 걸쳐 15개 댐건설을 통해 365천ha 규모의 농업용지 공급과 970MW의 수력발전시설을 갖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높은 실업율, 전력부족, 국내농업생산의 부진 등에 대처하기 위해 1977년 정부는 마하웰리계획을 1988년까지 조기 완공키로 결정함으로써 同계획은 마하웰리개발 촉진계획 (Accelerated Mahaweli Programme)으로 축소조정되게 되었다.

이 마하웰리개발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은 총 450MW의 발전능력을 가진 5개의 저수지(Kotmale, Victoria, Madura Oya, Randenigala, Rantambe) 건설 및 각종 관개시설의 확충을 통한 125천ha의 새로운 토지개발 등으로 되어 있다.

1979년 말부터 1980년초에 걸쳐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 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을 얻어 본격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에 들어갔으나 추진과정에서 同계획은 부분적으로 수정되거나 연기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정부는 마하웰리 개발촉진계획과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78년에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마하웰리 개발성), 1979년에는 Mahaweli Authority of Srilanka(마하웰리 개발청)를 창설하였다.

나. 계획의 진척 상황

1) 식량증산과 개간이주

모라가하간다를 제외하고 개발계획에 의하여 건설된 대부분의 댐이나 저수지가 완성되어 이곳에 이주한 75,512세대(346,000人)가 토지이용이나 관개용수 이용상 편익을 받고 있다.

灌漑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경지면적은 기존경지가 7.8만ha, 新개간지가 5.4만ha 등 모두 13.2만ha에 이르고 있다.

한편 쌀생산 현황을 보면 국내 쌀생산의 17%(1990)를 마하웰리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고추, 양파 등 환금작물의 도입도 진행되어 이 지역농가의 소득은 3,000루피/日로 건조지대 평균 농가수입의 2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주식인 쌀생산에 있어서의 마하웰리지역의 역할은 지대한테 用水의 확보에 따라 작황이 안정되어 있으며 평균수확량도 증대하여 재배면적의 확대와 함께 쌀증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표 II - 13 이주자수 및 수혜면적(1990)

【개간규모】

농 가 戸 數	농가외 세대	제 2 세 대	합 계
63,944 戸	8,744 戸	2,794 戸	75,512 戸 인수 : 346,600 人

【灌漑 수혜면적】

기 존 경 지	신 개 간 지	합 계
77,853 ha	54,297 ha	132,150 ha

자료 : Planning and Monitoring Unit, Mahaweli Authority

표 II - 14 마하웰리 지역과 전국의 쌀생산 비교

년 도	재배면적 (천ha)			생 산 량 (천톤)			평균수확량 (톤/ha)	
	전국	마하웰리	%	전국	마하웰리	%	전국	마하웰리
1981	877	19.8	2.3	2,230	81.3	3.7	3.1	4.1
1982	845	22.3	2.6	2,156	89.4	4.1	3.3	4.0
1983	824	56.7	6.9	2,484	239.6	9.6	3.6	4.2
1984	990	72.5	7.3	2,420	320.4	13.3	3.1	4.4
1985	881	76.4	8.7	2,661	325.7	12.2	3.5	4.7

자료 : Mahaweli Project and Programme 1987

2) 전력 개발

마하웰리유역의 전력개발은 IBRD, ADB 등 국제기관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원조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강유역의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전력부족상태의 스리랑카에 산업에너지를 공급하여 경제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에 공헌하였다.

마하웰리유역의 수력발전량은 606MW 규모이며 이는 火力發電 연료비용 절감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1984년 이후 마하웰리유역의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1990년 8월 현재 스리랑카 전체 발전량의 56.8%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지나친 수력의존적 전력생산구조(91년의 경우 전체발전량 3,376Gwh중 3,116Gwh가 수력발전임)로 가뭄 등 기상재해에 의한 전력수급의 차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표 II - 15 마하웰리 지역의 발전량 (GWH)

년	마하웰리 발전량	전국 발전량	점 유 율
1984	524.58	2260.50	23.2 %
1985	982.57	2464.00	39.9 %
1986	1277.28	2652.00	48.2 %
1987	826.54	2707.00	30.5 %
1988	1366.95	2776.23	49.2 %
1989	1470.74	2855.28	51.5 %
1990.8	1191.31	2096.95	56.8 %

자료 : The Mahaweli Development Programme Planning and Monitoring Unit, MASL, October, 1990

표 II - 16 주요 댐의 건설비, 발전량, 관개면적 및 원조국

구 분	Haduru Oya	Kotomale	Victoria	Randenigala	합 계
원 조 국	카 나 다	스 웨 덴	영 국	서 독	
건설비(억루피)					
댐, 발전소	25.3	80.75	66.1	45.9	218.05
도로	1.3	6.95	14.1	1.1	23.45
합 계	26.6	87.70	80.2	47.0	241.5
건 설 기 간	1980~83	1979~85	1980~84	1982~86	
발전전력(MW)	-	200	210	126	536
관개면적(천ha)	40	20	54	20 ※	134

자료 : The Mahaweli Development Programme Planning and Monitoring Unit, MASL, October, 1990

다. 마하웰리 계획에 대한 평가

마하웰리 개발계획은 식량증산이나 전력개발에는 공헌했으나 스리랑카 최대의 프로젝트로서 투자에 걸맞는 이익을 창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즉 기존의 저수지를 개량함으로써 보다 관개농지를 확대할 수 있으며 농지로부터의 수입도 증대시킬수 있다는 점과 환경문제를 경솔히 다룬 측면이 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개간이주사업에서의 싱하라인 우대 등 민족감정을 간과한 점이 있으며 경제적 효과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내부수익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다.

1988년 12월 마하웰리개발계획을 중시하던 자와와르데네 정권이 물러나고 경제개발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을 중시한 프레마다사정권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마하웰리개발청의 위상이 하락하였으며 세계은행 기타 원조기관들의 이 계획에 대한 평가가 주목되고 있다.

Ⅲ. 부문별 동향 - 일반부문

1. 보건의료

1. 개 요

가. 보건 지표

스리랑카의 보건지표는 인근제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주요 보건지표를 타국과 비교하면 (표 Ⅲ-1) 乳兒死亡率, 5세미만 어린이死亡率 모두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높으나 다른 서남아시아제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있으며 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 乳兒死亡率, 妊産婦死亡率은 1930년대-1950년대에 걸쳐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림 Ⅲ-1)

사망율은 유아사망율의 저하에 따라 1950년대에는 인구 1,000대 10까지 감소하였고 출생율의 경우,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형인 小産小死型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림 Ⅲ-2)

표 Ⅲ - 1 보건관련지표 각국 비교

나	라	5세 미 만 아 사 망 율	유아사망율	1인당 GNP	0 세 兒 평 균 수 명
네	팔	193	121	170	52
방	글라데시	184	105	210	51
파	키 스 탄	162	103	380	57
인	도	145	92	350	59
미	얀 마	91	64	220	61
태	국	35	27	1,420	66
한	국	31	17	5,400	70
일	본	6	5	25,430	79
스	리 랑 카	36	19	470	71

자료 : 세계아동백서, UNICEF, 1991

그림 Ⅲ - 1 유아사망률 및 임산부사망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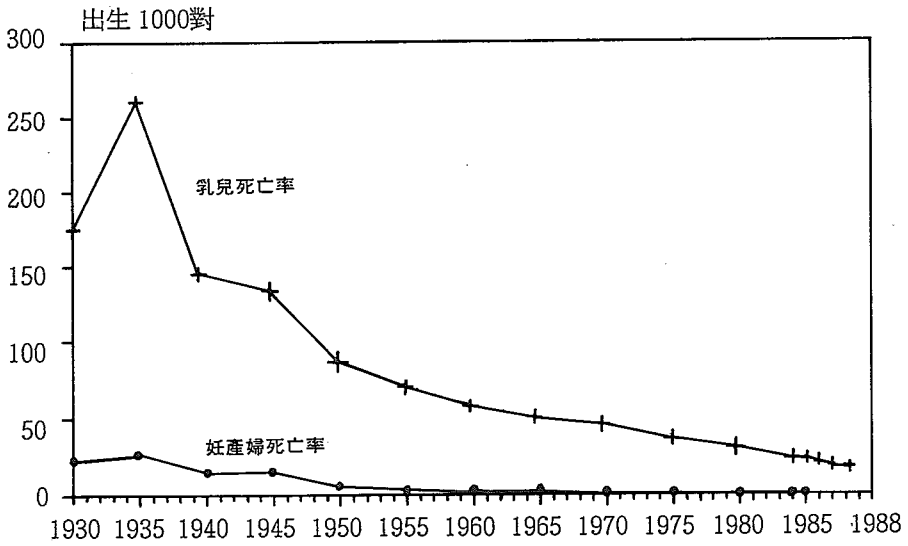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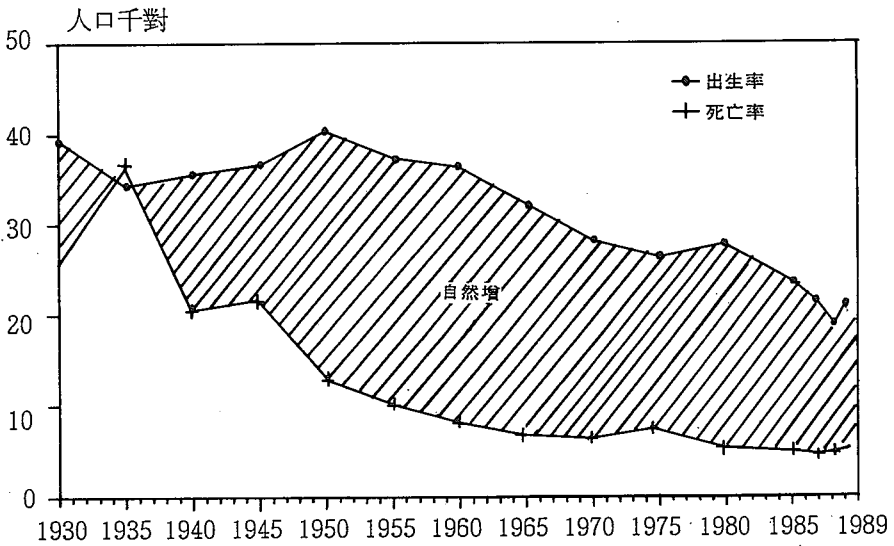


그림 Ⅲ - 2 출생률 및 사망률 변화추이



이와같이 스리랑카의 보건상태가 양호한 원인은 영국통치 시대이후에도 스리랑카정부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는 무상의료서비스에 의한 국민건강관리 및 UNICEF 등의 협력에 의한 EPI(면역확대 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 높은 교육수준에 의한 소아건강 관련지식의 축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新生兒死亡率, 乳兒死亡率에 있어서 지역간격차(표 Ⅲ-2)가 존재하며 누와라에리아, 캔디, 마타라와 같은 중앙고지대 및 콜롬보에서 특히 높은 사망율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콜롬보의 경우 의료기관은 비교적 정비되어 있으나 열악한 생활환경, 영양불량 또는 母親의 보건지식 부재와 사회보건분야 인프라의 미정비로 인하여 빈곤층가정의 유아사망이 빈발하기 때문이며 중앙고지대의 경우에도 모친의 낮은 교육수준 및 사회보건분야 인프라의 미정비를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Ⅲ - 2 보건지표 지역비교

지 역	신 생 아 사 망 율	유 아 사 망 율
누 와 라 에 리 아	46.2	32.1
캔 디	35.5	25.0
라 트 나 푸 라	33.8	22.8
마 타 라	33.5	21.7
콜 롬 보	32.2	22.5

자료 : Annual Health Bulletin, 1989

나. 질병구조

1) 사망구조

표 Ⅲ-3은 주요 병원내 死因을 나타낸 것인데 主要死因으로 虛血性心疾患, 腦血管疾患, 消火器疾患 등이 死因의 상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외에 특징적인 것인 농약중독이 死因의 6위, 外傷 7위, 악성종양 8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허혈성 심질환은 과거 10년간 항상 死因의 10위안에 있었으며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 발병율이 높다. 이는 코코넛기름을 다량 사용하는 식생활패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농약중독이 많은 지역은 마타라, 함반토라, 라트나푸라 등 中小農工地區인 바, 농약의 품질관리 및 사용기준에 대해서 정비되어 있지 않아 향후 정비할 필요가 있다. 外傷의 경우에는 內戰에 의한 것과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치적문제의 해결과 함께 향후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한 교통사고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2년 질병분류는 1989년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특징적인 것은 전염성질환이 최근 5년에서 10년사이에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다른나라의 주요사인과 비교하면(표 Ⅲ-4)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개도국은 모두 死因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염성질환, 특히 이질과 호흡기전염병으로 스리랑카의 사망구조와는 약간 다르다. 즉 스리랑카에서는 일본에서 死因의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이 각각 死因의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개도국의 질병구조와 비교하면 오히려 선진국인 일본의 그것에 가까운 편이다.

표 Ⅲ - 3 스리랑카의 主要死因

1989년		1982년	
死因別 順位	死亡率	死因別 順位	死亡率
1 허혈성심질환	13.5	1 순환기계질환(심장, 폐)	38.6
2 뇌혈관질환	10.6	2 전염병	24.2
3 소아기체질환	9.3	3 외상기 · 중독	23.4
4 진단불명	8.6	4 호흡기질환	21.0
5 폐순환기계질환	8.6	5 신생아질환	17.5
6 중독(농약중독등)	7.7	6 진단불명	12.2
7 외상	6.4	7 소아기질환	8.8
8 악성종양	6.4	8 악성종양	7.4
9 호흡기질환	6.0	9 신경질환	7.3
10 신생아질환	5.5	10 비뇨기질환	3.6

자료 : Annual Health Bulletin, 1989, 1982

표 Ⅲ - 4 타국의 主要死因

순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볼리비아	PNG	일 본
1	위장병	기생충	이질	폐렴	악성종양
2	호흡기질환	말라리아	심질환	조산기사망	심질환
3	노인합병증	조산기사망	폐렴	말라리아	뇌혈관질환
4	不明熱	결핵	폐결핵	이질	폐렴
5	기관지천식	이질	기타전염병	隨膜炎	사고 · 중독
6	황달	외상 · 중독	腦外傷	결핵	노쇠
7	과상풍	순환기질환	영양불량	심질환	자살
8	피부병	기타소아기질환	左同	악성종양	만성간질환
9	조산기사망	産料합병증	隨膜炎	외상 · 중독	위염
10	기생충	기타	간경변	産科합병증	고혈압

2) 병원내 질병

병원내 질병의 주된 원인은 표 Ⅲ-5(198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外傷 1위, 말라리아 4위, 腸感染症 5위로 되어 있는 점이다.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1940년대에 박멸됐지만 그후 사람이 살지 않는 동북부지역으로의 이주가 행해지고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1960년 전후부터 再發하여 이후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0년에 한번씩 크게 유행하고 있다. 말라리아 퇴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USAID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으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1987년에는 인구 10만명당 1,200명을 넘는 발병율을 보였다. 한편 腸感染症 및 肝炎의 경우, 과거 10년간 발병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EPI(예방접종확대계획)대상 疾病의 경우에는 그 계획시행(1978년) 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표 Ⅲ - 5 병원내 질병 순위

발 병 순 위	발병자수 (10만명당)
1 외 상	1371.4
2 호흡기 질환	1124.2
3 진단불명	988.6
4 말라리아	772.6
5 장 감염증	708.1
6 류원병	432.1
7 피부병	419.7
8 소화기계 질환	411.1
9 바이러스성 질환	394.9
10 비노기 질환	269.3

자료 : Annual Health Bulletin, 1989

다. 영양상태

5세이하 어린이의 경우 영양실조가 전체 어린이의 10%, 영양불량이 25%로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칼로리 섭취량은 1,500(1980)칼로리에서 1,900(1990)칼로리로 개선되었다. 또한 未熟兒의 출생율은 22.3%(1989년)으로 비슷한 GNP를 가진 인근제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

다. 그러나 스리랑카인의 신생아 표준체중이 없기 때문에 통계상 오류로 高率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기타 영양소결핍증으로는 요소결핍증, 빈혈, 비타민 A결핍증이 눈에 띈다.

2. 보건서비스 현황

가. 행 정

1) 조 직

현재 스리랑카는 정치적으로 권력의 지방분산(Decentralization)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각 州政府로의 권한이양이 권장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 행정은 주정부와 중앙정부로 二元化되어 있으며 지방의 말단 보건의료행정은 주정부가, 전체의 보건의료 행정, 해외원조의 창구역할 및 교육병원과 전문병원 관리는 중앙정부가 맡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國家保健評議會(National Health Council)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으며 그 집행은 國家保健委員會(National Health Committee)의 保健向上組織(National Health Development Network)이 담당하고 있다. 名州에는 보건향상조직 밑에 州보건평의회가 있으며 현재 同평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州政府의 보건행정조직을 보면 州別로 보건담당 지방장관을 두고 있으며 그 밑에 懸保健서비스국장이 州전체의 보건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보건행정 주무부처인 保健・婦人問題省(Ministry of Health and Women's Affairs)은 1989년 이전까지의 보건행정분야 주무부처였던 보건성과 부인문제・교육병원성(Ministry of Women's Affairs and teaching Hospital)을 통합한 기관으로서 이중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보건행정 담당차관이하의 조직이며 그밖에 여성문제를 전담키 위한 담당차관을 두고 있다. 또한 관리국, 예산국, 기획국외에 공중위생국, 의료서비스국, 연구검사국 등이 있다.

2) 예 산

保健·婦人問題省의 1991년 전체예산은 46억 9천만 루피이며 이는 국가전체예산(1,309억루피)의 3.4%이다. 표 Ⅲ-6은 1982년부터 1990년까지의 보건지출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지출, 자본지출 모두 治療醫學分野에서 地域保健分野로 보건정책의 중점이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보건관련 자본적지출의 신장율이 매우 큰데 1988년의 경우 82년의 17.3배에 이르고 있어 스리랑카정부가 이 분야에서의 시설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 - 6 보건성 예산지출 추이

(단위 : 千루피)

구 분	1982	1984	1986	1988	1990
행 정 비 용	65.7	79.7	172.7	482.7	-
임상서비스	690.8	966.4	1,051.8	1,517.6	-
지 역 보 건	169.9	436.1	343.4	745.3	-
합 계	926.5	1,482.3	1,567.9	2,746.2	2,182.5

자료 : Nation Health Development Plan('90년은 스리랑카 중앙은행 1990)

나. 의료지원 체제

1) 병원

공립병원의 病床數는 전국적으로 46,620병상(1989년) 규모로 인구 1,000명당 2.8병상이다.

이외에도 사립병원이 있으나 그 규모는 분명하지 않다. 병원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데 인구 1,000명당 2병상 이하인 縣은 트링코말리(1.2 병상), 안파라, 마타라, 함반토타 등이며 3병상 이상을 갖고 있는

縣은 콜롬보(4.9병상) 및 캔디 등이다.

소규모병원의 경우에는 상하수도, 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병원내 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등 이의 개선이 스리랑카 의료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공립병원은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敎育病院 (Teaching Hospital 11개소)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의학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병원이며 1,000병상 이상을 갖춘 전문적 종합병원이다. 스리랑카 제3차진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최고수준의 병원으로서 保健·婦人問題省의 관할하에 있다.

b. 州病院 (Provincial Hospital 7개소)

名州의 중심도시에 있으며 500~1,000병상을 갖춘 2차진료기관으로 각 주정부의 관할하에 있다.

c. 基幹病院 (Base Hospital 21개소)

名州의 비교적 큰 도시에 있는 150~6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다. 주변의 작은 병원, 진료소 등으로 부터 환자를 받는 한편, 필요시에는 보다 상급병원에 환자를 수송하는 2차진료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d. 縣病院 (District Hospital 120개소)

병상수 20~300을 갖춘 지방병원이며 일반진료사(General practitioner)와 진료보조사(Assistant medical practitioner)가 진료하고 있다.

e. 末端病院 (Peripheral Unit 122개소)

일반진료사가 혼자서 진료하고 있으며 100병상 이하의 병동과 약국을 갖추고 있다.

f. 地方病院 (Rural Hospital 119개소)

비상근 진료사(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또는 진료보조사가 혼자 진료를 하고 있으며 8~64병상을 갖추고 있다.

g. 診療所(Central Dispensaries 361개소)

병동을 갖지 않고 외래환자만 치료하는 진료기관의 최소단위이다.

h. 專門病院

산부인과(2곳), 소아과, 안과, 치과, 나병원, 암연구소,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전부 9개의 전문병원에서 스리랑카의 의학교육 및 전문과목별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2) 醫藥品

모든 의약품의 공급은 保健省의 관할하에 의약품公社(SPC)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공립용 및 민간용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의약품의 제조는 일본의 무상자금협력에 의해 國營 必須醫藥品製造公社(SPMC)가 1988년 설립되어 同年 필수약품 11종, 97백만錠을 제조했다.

3) 보건의료기자재 관리

국립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용기자재의 공급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건성내의 의료기기 서비스부(Bio-Medical Engineering Services)가 담당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며 교육병원에서는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직접 민간대리점에 유지관리를 위탁하거나 또는 인근 대학에 관리를 의뢰하는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4) 지역보건 체제

스리랑카의 지역보건체제는 母子保健 및 家族計劃을 중심으로 家族保健, 環境保健, 保健教育, 傳染病對策으로 나뉘어져 있다.

a. 家族保健

가족계획은 UN인구활동기금 및 인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피임용구의 공급 및 지도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보건성은 또한 면역확대 프로그램(EPI), 痢疾 및 폐렴대책, 출생아 체중조사, 임신부보건, 소아영양상태개선, 소아정신위생, 학교보건 등 가족보건 관련분

야에서 주로 UNICEF의 협력을 받아 보건행정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들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건성 공중위생담당자를 대상으로 NIHS(건강의학연구소)가 이들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b. 環境保健

환경보건행정의 주 대상분야는 화장실위생, 식료품위생, 산업위생 분야이다. 화장실위생 분야의 경우, 스리랑카정부에서는 화장실 위생상태 개선을 통한 질병퇴치를 목적으로 저소득층의 화장실설치를 위한 자금공여(세대당 700루피)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한편 식료품위생 분야의 경우에는 식품법을 제정, 식료품위생관리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NIHS(건강의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10가지종류의 식료품 위생검사 및 이들 업무종사자에 대한 훈련을 행하고 있다.

산업위생 분야의 경우는 1982년 부터 콜롬보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WHO의 자금협력을 받아 의사, 공중위생담당자 및 각 공장 위생담당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

c. 保健敎育

보건성 보건교육부는 1985년 설치되어 현재 61명의 보건교육관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각 縣에 2명~5명씩 배치되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치과보건 및 학교보건 등 각종 보건교육을 행하고 있다.

d. 傳染病 對策

전염병 疫學調査는 MRI(국립의학연구소)가 맡고 있으며 EPI 대상전염병은 과거 15년간 감소추세에 있다. 소아마비의 경우는 1989년 4명의 환자밖에 발생하지 않았다(1985년에는 264명 발생). 그러나 결핵의 경우에는 환자수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질에 대한 대책은 주로 UNICEF에

의한 ORT(經口補水療法 : Oral Rehydration Therapy)에 의하고 있으며 ORS(經口補水鹽 : Oral Rehydration Salt)의 공급은 SPC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레디릿지웨이 소아과병원의 ORT센터에 의해 그 취급자에 대한 교육이 행해진 후 1990년 이질에 의한 사망율은 1983년의 1/3로 감소했다. 그밖에 말라리아, 결핵, 성병, 광견병에 대해 특히 계획을 세워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병율이 높은 말라리아에 경우에는 별반 그 대책이 행해지고 있지 않으며 향후 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의료인력

a. 의료인력현황

스리랑카 및 일본, 방글라데시, 인도의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수는 표 Ⅲ-7과 같다. 이들 표의 인원수는 공무원만의 숫자로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을 비교하면 의사, 간호사 모두 일본의 1/10이하의 수준이며 방글라데시와 비교하면 간호사수는 양호하나 의사수는 적다.

한편 공중위생부문 종사자의 경우에는 간호보조사·공중위생검사관·산과의 수를 합산하면 인구 10만명당 26.7명이 되는데 이는 일본의 38.2명과 비교하면 적지만 임상부문 종사자수에 비하면 비교적 충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臨床検査技師, 放射線技師, 藥師 등 보건의료부문 종사자는 매우 부족하다.

지역별로 보면 의사·간호사 모두 콜롬보에 집중되어 있다(인구 10만명당 의사 44.6명, 간호사 129.2명). 의사수의 경우에 인구 10만명당 5명 이하인 縣이 트랑코말리의 1.3명을 비롯하여 22개 縣중 7개 縣이나 되며 기타 의료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생활환경 및 치안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 의료인이 지방으로의 진출을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중위생 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미미하며 콜롬보의 경우에 공중위생 검사관이 가장 적고(인구 10만명당 2.6명) 산과의 경우에도

콜롬보는 전국에서 4번째로 적다.

표 Ⅲ - 7 국별 보건의료분야 종사자현황

(단위 : 천명)

직 종	일 본		방글라데시		인 도		스 리 랑 카	
	人數	비율 *	人數	비율	人數	비율	人數	비율
의 사	193.6	157.7	20.7	20.8	158.7	25.3	2.3	14.0
의 료 조 수	-	-	8.2	8.2	-	-	1.2	7.1
치 과 의 사	68.6	55.9	0.6	0.7	8.8	1.4	0.3	2.0
약 사	84.3	68.7	6.1	6.2	불 명		0.5	3.1
保 健 婦	23.5	19.2	50.0	50.1	13.3	2.1	0.1	0.9
산 과	23.3	19.0	24.0	24.0	160.9	25.7	5.1	31.1
간 호 사	694.9	566.0	4.3	4.4	153.5	24.5	9.5	56.4
검 사 기 사	50.8	41.7	1.6	1.6	불 명		0.5	3.2
방사선기사	28.8	23.6	0.4	0.5	불 명		0.2	1.4
물리치료사	7.9	6.5	-	-	불 명		0.2	1.1

자료:일본:국민의 위생동향 1990, 스리랑카:Annual Health Bulletin 1989,
방글라데시:제3차 5개년계획평가 1987, 인도:인도 보건의료 통계 1984
*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종사자 수임.

b. 의료인력 양성체제

의사, 약사, 치과의사, 진료보조사의 양성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의 경우에는 콜롬보대학, 페라데니아대학, 자후나대학, 루후나대학 등 4개 대학에서 의학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며 의과대학졸업 후의 교육기관으로서 The post-graduate Institute of medicine이 있다. 간호사 양성은 전국 9개 간호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同간호학교에서는 가족보건 담당자의 양성도 담당하고 있다.

또 공중위생 산과 및 保健婦(Public Health Nursing Sisters), 공중위생검사관(Public Health Inspectors), 약사의 교육은 NIHS(국립건강의학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치과의사, 방사선 기사를 위한 전문학교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6) 전통의료

스리랑카 국내에서 전통의학(Ayurvedic Medicine)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89년의 경우 33개 시설의 1,876병상에서 진료실적이 입원환자 17,641명, 외래환자 84,141명에 이르고 있는 바, 이 분야에서는 94명의 전통의학 의사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3. 개발계획

스리랑카 보건성에서는 WHO 알바타선언에 근거, "2000년 까지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 Ⅲ-8에서와 같은 보건지표 향상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전국민이 평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민족적, 사회계층적, 지역적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표 Ⅲ - 8 스리랑카의 보건서비스분야 2000년 목표달성 지표 (%)

지 표	1985년(실적)	1995년	2000년
유아 사망율	34	18	15
신생아 사망율	23	11	7.5
소아 사망율	9.2	2.0	1.7
임산부 사망율	0.8	0.4	0.3
0세아 평균수명	남 67.8 여 71.7		남 69.5 여 73.0
미숙아율(2,500그램이하)	-	20	18
예방접종(전국)	80	100	100
예방접종(지방)	-	100	100
신생아 파상풍 퇴치	-	5/100,000출생	0/100,000출생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율	-	84	88
피 임 륜	-	67	72

자료 : Annual Health Bulletin, 1989.
National Health Development Plan, 1990

스리랑카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자나사비아계획의 하부 계획인 스바사비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PHC (Public Health Care)의 확대, EPI·가족계획을 포함한 母子保健의 촉진, 말라리아 등 전염병퇴치, 상하수도정비, 보건교육, 영양상태개선, 기타 일반적인 질병퇴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 아래 州 또는 縣단위로 가족보건담당자 및 공중위생검사관, 保健婦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4. 개발원조 동향

표Ⅲ-9는 1989년도 원조기관별 원조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Ⅲ-10은 보건의료분야 항목별 해외원조자금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1988년의 경우 보건관련 전체지출액(보건성, 교육병원성, 전통의학성 담당분)이 117,886천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해외원조(31,554천달러, 상하수도정비분야 제외)에 예산의 약 25%를 의존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보건부분에 있어서도 최대의 공여자는 일본이며 향후 同분야에 있어서 그 역할은 중요하다. 미국, 영국, 네델란드 및 국제개발협회(IDA)의 원조는 대부분이 상하수도 정비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외의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 USAID는 지금까지 말라리아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보건분야원조를 행해왔는데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 이 분야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정비로 대상분야를 변경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NIHS(국립건강의학연구소) 건설원조를 87년에 행하였다.

임상의학 분야에 대한 원조는 그 대부분이 일본에 의한 것이며 가족계획은 UN인구위원회가, 또 PHC 및 질병통제는 UNICEF, WHO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표에는 실적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핀란드가 스리랑카에 있어서의 3차진료기관인 콜롬보종합병원 확대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표 Ⅲ - 9 對스리랑카 보건분야 기관별 원조금액(천달러)

원 조 기 관	원조액(1989년)
국제기관 원조	
국제원자력기관(IAEA)	89
국제개발협회(제2世銀, IDA)	3,390
UN개발계획(UNDP)	186
UN인구기금(UNFPA)	574
UN아동기금(UNICEF)	1,246
세계보건기구(WHO)	2,066
아시아개발은행(ADB)	2,517
소 계	10,446
양국간 원조	
캐나다	664
미국	1,744
영국	2,989
일본	18,198
네덜란드	112
노르웨이	800
스웨덴	1,137
소 계	25,654
N G O	
국제 가족계획	76
핀란드 가족계획 기금	43
국제개발센터	106
인구위원회	2,905
소 계	3,130
합 계	39,230

자료 : UNDP

표 Ⅲ - 10 분야별 해외원조자금(천달러)

분 야	1988년	1989년	1990년
정 책 결 정	2,676	1,616	313
P H C	1,553	2,120	1,416
면역등 질병통제	8,424	2,617	1,032
가족 계획	2,113	5,509	9,938
임상 의학	16,788	15,786	756
상 하 수 도	12,823	11,476	7,645
합 계	44,377	39,124	21,100

자료 : UNDP(1990년은 추정치)

2. 인력자원

1. 현 황

가. 개 요

스리랑카 교육정책의 특징은 독립전인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無償教育 및 母國語에 의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점이며 그 결과 表Ⅲ-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서남아시아 제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識字率(남자 92%, 여자 82%)을 보이고 있다.

표 Ⅲ - 11 서남아시아 제국의 교육지표 비교(%)

나 라	識 字 率			국민학교취학율 (주)			국민학교 수료율	중학교진학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스 리 랑 카	92	81	87	105	102	104	88	63	69
인 도	58	29	43	113	81	98	n. a	50	27
파 키 스 탄	43	18	30	51	28	52	28	26	11
방글라데시	45	19	33	76	64	49	64	24	11
네 팔	34	11	26	104	47	82	n. a	35	11

자료 : 세계 아동 백서(1991), UNICEF

주) 국민학교 취업율은 입학연령인구집단 총수에 대한 입학자 비율임

스리랑카의 교육행정 담당기관으로는 敎育 · 高等教育省(1990년 현재)이 있으며 교육제도는 一般敎育, 高等教育 및 職業敎育 등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스리랑카의 교육제도는 영국의 교육제도와 유사한데 ① 국민학교 입학연령 5세, ② 대학입학까지의 일반(초·중등)교육기간이 13년, ③ 대학·기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은 자격시험에 의한 선발에 의한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거리컬럼상의 특징을 보면 국민학교 前半期는 기초학습(읽기, 쓰기, 셈하기등)이 중심이며 後半期는 종교, 수학, 사회, 기술, 영어 등을 가르치고 있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사회생활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前半期에는 생활 및 직업기술교육을 행하며 수료시 前期 一般修了課程 試驗(G.C.E.O/L,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Ordinary level) Examination)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 후기 또는 기술전문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고등학교 후기는 理科, 商科, 文科 등 3코스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료시 後期 일반교육 수료과정시험(G.C.E.A/L, General Certification of Education (Advanced level) Examination)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게 된다.

나. 일반(초·중등) 교육

일반교육은 의무교육(국민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전반기 3년 및 고등학교 후반기 2년(대학진학과정)으로 구별되며 5-3-3-2제를 취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99%는 국립이며 나머지 1%의 사립학교도 거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대부분 併設되어 있으며 남녀공학이다(표Ⅲ-12, 13 참조). 또 민족이나 종교에 따라 싱하라학교(싱하라어), 타밀학교(타밀어), 무스림학교(타밀어)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외에도 불교 승려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Pirivena school(1980년 현재 282개교)이 있다.

就學率에 있어서의 남·여 차별은 거의 없으며(표Ⅲ-11) 학년별 취학을(표Ⅲ-14)도 의무교육기간 동안은 81.9%~91.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留級率은 국민학교 8.0%~9.7%, 중학교 4.6%~6.6%로 국민학교쪽

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退學率의 경우 2.1%~8.1%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

이 就學率과 退學率을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Ⅲ-15), 취학율은 남부州, 서부州, 북중양州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동부州, 북부州, 우와州는 낮은 수준이다. 퇴학율은 국민학교, 중학교 모두 북부州, 동부州에서 현저하게 높아 의무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기회의 지역간 격차가 인정된다.

표 Ⅲ - 12 스리랑카의 초·중등학교數

초 · 중 등 학 교	학 교 수	비율 (%)
국민학교	3,639	37.5
중 학 교(국민학교 병설)	1,003	10.3
고등학교(전반기, 국민학교·중학교 병설)	3,212	33.1
고등학교(전반기·후반기, 국민학교·중학교 병설)	1,505	15.5
고등학교(전반기·후반기, 중학교만 병설)	355	3.6
총 계	9,714	100.0

자료 : Ministry of Education (1987)

표 Ⅲ - 13 사용언어별 학교수

분 류	사용언어	남자학교	여자학교	공 학	합 계	비율 (%)
싱하라校	싱하라語	95	130	6,844	7,069	73.2
타 밀 校	타 밀 語	28	29	1,861	1,918	19.9
무스림校	타 밀 語	11	20	639	670	6.9
합 계	-	134	179	9,344	9,657	100.0

자료 : 上 同

표 Ⅲ - 14 초중등학교의 유급별 · 퇴학율 · 취학율

구 분	아동·학생 총수(인)	학년	학 생 수 (인)	유급율 (%)	퇴학율 (%)	진학율 (%)
국 민 학 교	1,993,994	1	426,203	8.0	-	82.3
		2	426,073	9.6	2.1	89.6
		3	399,308	9.4	2.5	90.2
		4	387,923	9.7	3.9	91.5
		5	354,487	8.5	5.5	88.5
중 학 교	877,453	6	317,958	6.4	6.4	90.9
		7	295,135	6.6	6.6	89.1
		8	264,360	4.6	7.1	81.9
고등학교전기	796,986	9	235,841	3.6	8.1	75.5
		10	213,330	1.6	-	69.7
		11-1	217,802	-	-	60.1
		11-2	130,007	-	-	45.4
고등학교후기	164,762	12	67,170	-	-	35.5
		13-1	59,201	-	-	25.5
		13-2	38,391	-	-	18.7
합 계	3,833,159					

자료 : Ministry of Education, Policy Paper (1990)

표 Ⅲ - 15 州別 취학율 및 퇴학율

州 名	취학율 5~16세	퇴 학 율		진 학 율		
		국민학교	중학교	國→中	中→高前	高前→後
서 부	88.23	0.79	3.05	92.94	92.82	22.90
중 앙	85.54	1.96	4.26	86.14	89.63	20.29
남 부	90.86	1.74	3.64	88.95	91.51	21.12
북 부	82.21	10.23	8.75	76.79	88.08	21.75
동 부	75.03	4.95	10.14	74.46	81.40	21.14
북 서 부	87.43	1.70	4.72	87.42	90.73	20.30
북 중 앙	87.44	1.82	5.57	84.64	88.77	15.23
우 와	81.99	1.37	4.92	84.90	88.19	17.29
사바라가르와	85.56	1.66	3.77	88.64	92.50	18.86
평 균	85.86	2.38	4.72	86.64	90.38	20.60

자료 : 上 同

다. 고등교육

고등교육의 관리운영은 UGC(University Grants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대학(8개 종합대학, 1개 단과대학, 1개 공개대학, 1개 사립의과대학)과 고등전문학교(7개교)로 이루어져 있다(표 Ⅲ-16). 교육기간은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계는 3년, 農工獸醫學系는 4년, 그리고 의학계는 5년으로 되어있다.

1990년도의 경우 대학생 총수는 약 2.8만명인데 이는 약 150만명인 同세대인구의 2%수준으로 대학입학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종합대학의 학과구성을 보면(표 Ⅲ-17) 文科系 73개 학과, 理科系 133개 학과이며 학생수는 (표 Ⅲ-18) 총 수가 1988년도의 경우 29,781명으로 1985년도의 1.57배에 이르고 있다. 文科 및 理科系의 구성비율은 1985년 55 : 45, 1988년 54 : 46으로 文科系 비율이 높다.

스리랑카 정부는 理科系(특히 의사, 기술자, 농업기술자등)의 인재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文科系 정원을 감원하고 理科系 학생을 증원하는 한편, 학부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수요원의 해외유출이 심해 同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文科系 졸업생의 취업기회가 적고 고학력자 실업율이 눈에 띄게 높다.

표 Ⅲ - 16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및 학생수

학 교 의 종 류	학생수(인)	세 부 내 역
대학 및 그 상당기관	24,739	종합대학 8, 단과대학 1 사립의과대학 1
통신교육대학	9,851	공개 대학 1
기술전문학교 · 직업전문학교	21,430	고등 전문 학교 7
합 계	56,020	

자료 : 上 同

표 III - 17 종합대학의 학부구성현황

대 학 명	인문 과학	법학	자연 과학	의학	치 의 학	수 의 학	농학	공학	건축 학	합계
콜롬보	11a	1	6	15	-	-	-	-	-	33
페라데니아	14	-	6	15	5	3	7	7	-	57
케라니아	16b	-	7	-	-	-	-	-	-	23
자아와르데네	11c	-	5d	-	-	-	-	-	-	16
모라토와	-	-	-	-	-	-	-	10	3	13
자후나	12	-	5	10	-	-	-	-	-	27
루후나	8	-	6	12	-	-	-	-	-	29
이스탄	-	-	5	-	-	-	-	-	-	8
합 계	72	1	40	52	5	3	13	17	3	206

자료 : Statistical Hand Book(1988), Statistics on Higher Education in Sri Lanka (University Grants Commission)

* a : 교육계 4개학과 포함 b : 사회학 8개학과 포함
c : 경영학 4개학과 포함 d : 응용과학 5개학과 포함

표 III - 18 종합대학의 단과대학별 학생수(人, 상단 1985년, 하단 1988년)

대 학 명	인 문 과 학	법 학	자 연 과 학	의 학 치 의 학	농 학 수 의 학	공 학 건 축 학	합 계
콜롬보	1,466	461	660	966	-	-	3,553
	2,642	970	1,260	1,336	-	-	6,208
페라데니아	1,505	-	499	835	699	957	4,495
	2,283	-	895	1,029	1,075	1,535	6,817
케라니아	2,101	-	446	-	-	-	2,547
	2,908	-	921	-	-	-	3,829
자아와르데네	2,815	-	380	-	-	-	3,195
	4,362	-	667	-	-	-	5,029
모라토와	-	-	-	-	-	913	913
	-	-	-	-	-	1,805	1,805
자후나	1,329	-	609	360	-	-	2,298
	1,259	-	572	346	-	-	2,177
루후나	662	-	416	473	193	-	1,744
	1,543	-	1,208	613	256	-	3,440
이스탄	-	-	115	-	53	-	168
	180	-	197	-	99	-	476
합계 1985	9,878	461	3,125	2,634	945	1,870	18,913
1988	15,177	970	5,540	3,324	1,430	3,340	29,781

자료 : 上 同

· 스리랑카에서의 기술 및 직업훈련은 여러기관에서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대학 및 대학원 수준의 전문공학교육
- 2) 기술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 3) 기능공에 대한 기술, 취업연수교육
- 4) 숙련공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과정(주로 短期)

이외에도 고용주에 의한 現職敎育이나 전통적 숙련공조합에 의한 制度外的 研修가 행해지고 있다.

1) 대학 및 대학원수준의 전문공학교육

이는 각종 학교등에서의 기술교육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코스 수료후 자격등록된다.

표 III - 19 대학 및 대학원수준의 전문공학교육

교 육 기 관	교 육 분 야	비 고
페 라 데 니 아 大 모 라 토 와 大 공개대학공학부 공 학 연 구 소	일반공학, 과학기술 " 토목, 전기 기계, 컴퓨터 "	4년과정, 입학시 G.C.E. A/L (수학, 과학) 必 수료후 과학기술사(학사) 학위 수여 工大수준 교육과정

자료 : Education and Training in SriLanka. Vol. 1(1989)

2) 기술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현재 기술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은 전국 24개 기술전문학교 및 그
부속기관(5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세부과정은 표Ⅲ-2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전문학교에서 행하는 직업기술훈련은 각 코스별로 여러 형태의 강좌가 있는데 그 수강율은 평균 88.32%로 상당히 충실한 편이다. 특히 HND 全日制(106.1%), NC 定時制(94.16%), SC 全日制(99.89%)의 수강율이 높다.

수강자의 과정별 합격율을 보면 HND가 14.4%, ND가 3.9%, NC가 45.9%, NCC가 8.0%, 그리고 SC가 28.7%로 저조한 편이다. 한편

G.C.E.O./L 수준이거나 그 이하에서 수강할 수 있는 NC, NCC, SC를 합한 분야별 受講率은 상업분야 74.2%, 기술분야 25.8%로 기술분야 수강자가 매우 적다.

여기서 각 과정별 합격율을 살펴보면(표Ⅲ-20), 합격율은 각 학년별로 40.1%, 28.5%, 11.3%, 3.7%로 상급과정에 진급함에 따라 합격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수료율은 HND 4년 과정이 불과 2.3%, NC 3년과정은 7.8%인 반면, NCC 1년과정 48.3%, SC 과정이 66.9%로 수강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수료율을 기술분야 및 상업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10~18%, 12%이며 양쪽 모두 전체 입학생의 10% 정도만이 수료하고 있을 뿐이다.

본래 기술전문학교는 수료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하는데 이처럼 수료자가 적다는 것은 향후 고려할 문제이다.

표 Ⅲ - 20 과정별 합격율(人, %)

과정	기간	수강자	제 1 학년		제 2 학년		제 3 학년		제 4 학년		수료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HND	4	930	478	51.4	135	19.1	83	8.9	21	3.7	2.3
ND	3	242	134	55.4	25	35.7	-	-	-	-	10.3
ND	2	598	202	33.8	897	26.2	-	-	-	-	14.6
NC	3	1471	798	54.2	461	49.3	115	13.4	-	-	7.8
ND	2	1436	664	46.2	134	14.9	1	100	-	-	9.3
NC	1	2753	494	17.9	-	-	-	-	-	-	17.9
NCC	3	30	12	40.0	7	70.0	3	100	-	-	10.0
NCC	2	618	376	60.8	169	27.2	-	-	-	-	27.0
NCC	1	178	86	48.3	-	-	-	-	-	-	48.3
SC		344	230	66.9	-	-	-	-	-	-	66.9
		8670	3457	40.1	1018	28.5	202	11.3	21	3.7	

자료 : Education and Training in Sri Lanka. Vol. 4 (1989)

HND : Higher National Diploma Courses

ND : National Diploma Courses

NC : National Certificate Courses

NCC : National Craft(Trade) Certificate Courses

SC : Short Courses

표 III - 21 기술전문학교의 課程別 강좌내용

	과 정 명	강좌수	강 좌	기 간	자 격
1	국가 상급 수료 과정 (Higher National Diploma Courses)	5	회계학, 경영학 토목공학, 기계 공학, 전기공학	全日 4년 全日 3년	G. C. E. A/L 합격자 G. C. E. A/L 합격자 (응용과학, 수학, 물리등 3과목)
2	국가 수료과정 (National Dipolma Courses)	6	농학 경영학 가정 보석세공, 수공업	全日 3년 全日 2년 全日 2년 全日 2년	G. C. E. O/L 합격자 (6과목, 수학, 물 리, 영어 포함) G. C. E. A/L 합격 (경제, 경영학, 회계등 3과목) G. C. E. A/L 합격자 (가정포함 3과목) G. C. E. O/L 합격자 또는 NCGE
3	국가자격 과정 (National Certificate Courses)	17	경영학 숙기, 영업, 토목 기계, 보석 전기외	全日 2년 全日 2년	G. C. E. O/L G. C. E. O/L
4	국가기능자격 과정 (National Craft Certificate Courses)	20	기계, 자동차수리, 전기, 목공, 라디 오, 배선, 배관, 용접, 전기기계, 공기조절외	全日또는 定時 1~3년	G. C. E. O/L 학력 9년의 강좌에 따라 다름
5	단기 과정 (Short Courses)	20	목조, 라디오, 철 공, 오토바이수리, 조화인형, 양복재 단, 염색외	全日또는 定時 3개월~ 1년	학력 8~9년 강좌에 따라 다름

자료 : Education and Training in Sri Lanka, Vol. 1 (1989)
NCGE : National Certificate of Genaral Education

3) 기능공에 대한 기술·직업교육

기술전문학교와 모라토와대학, 공개대학(통신교육), 기술자훈련원(TTI), 국립실습훈련소(ATI)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주요과정은 표 Ⅲ-22 와 같다.

표 Ⅲ - 22 기술전문학교 이외의 주요 기술·직업연수과정

훈련기관	과 정	연 수 내 용
모라토와 대 학	국가과학기술수료 과정 (NDT)	자격:G. C. E. A/L, 기간:3년
공개대학	직물기술자격 과정 - 모직, 편물, 의류기술, 직물 검사 과학기술 과정 - 토목, 전기, 통신, 기계	기초과정 2년, 21일간 기초 연수 30주간 특별 실습
TTI	기술자 과정 - 토목, 기계, 전기	연수기간 3년, 1년간 집체 교육
ATI	기능공연수 과정	3년간, 12개월기초연수, 4개월 고급연수, 20개월공장내 실습

자료 : Education and Training in Sri Lanka, Vol. 1 (1989)

※ TTI : Technician Training Institute,

ATI : Apprenticeship Training Institute (독일원조)

NDT : National Diploma in Technology,

4) 견습공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코스(단기)

주로 青年問題·스포츠省 산하의 국립 직업실습훈련국(NAB, National Apprenticeship Board)에서 실시하고 있다(표 Ⅲ-23 참조).

교육과정은 전부 190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계의 수요가 높은 직종부터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 1988년도의 경우 120강좌, 2,325명이 수강하고 있다.

한편 1982년부터 1987년 까지의 수강자의 증가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74%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민대상 실습과정은 142% (256명에서 1,619명) 증가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훈련과정 실시상의 문제점은 TTI나 ATI의 경우에는 현대적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실습이 효과적이나 NAB에서는 실습용의 현대적 기자재 부족으로 중퇴자가 1986년도의 경우 20~30%나 된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노동성 산하의 기능향상센터와 자동차센터에 21개 강좌(6개월에서 1년의 단기과정)가 설치되어 있으며, 運輸省이 기능공양성을 목적으로 CGTTI(Ceylon German Technical Training Institute)를 두고 있고 住宅建設省 사업추진을 위한 건설숙련공 양성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표 Ⅲ - 23 국립 직업실습훈련국(NAB) 훈련課程 현황

	課 程 名	기간 (월)	1986년도 수강자수		수 강 자 격
			신규수강자수	수료자수	
1	기술자 양성과정 (학생대상)	6	561	741	대학재학자
2	기술자 양성과정	12	317	295	NDT 2년수료자
3	특별훈련 과정	48	286	141	G. C. E. O/L 합격자
4	특별훈련 보조과정	12~48	100	54	G. C. E. O/L 합격자
5	기술자 기술실습과정	12	225	155	G. C. E. O/L 합격자
6	기능공 실습과정	6~48	4,493	2,697	G. C. E. O/L 학력 7~8년
7	임시기능공 실습과정	6~48	884	259	학력 8년 이상
8	농민대상 실습과정	12	1,649	1,017	학력 6년 이상
	합 계		8,515	5,359	

자료 : Education and Training in SriLanka, Vol. 4 (1989)

마. 교원양성 체제

대개 대졸자가 중등교육과정을, 고졸자가 초등교육과정의 교원직을 맡고 있다.

교원이 되기위한 조건은 G. C. E. A/L(고등학교 후기수료시)시험에서 3과목 이상 합격한 자중 최저 13년간의 학교교육을 이수 한 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표 Ⅲ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 현재 교직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교원이 전체교사의 38.2%나 되어 교사의 자질향상이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현직교육(교사 재직중의 교육)은 교원대학(Teacher's College, 18개소, 3년과정) 및 NIE통신교육코스(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30개소, 3년과정)에서 행해 왔으며 1985년부터는 교원채용 전에 교원전문교육을 교육대학(College of Education, 7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원은 일반적으로 급료가 적고 교육 최저기간이 13년으로 되어 있어 우수한 인재의 채용은 어려운 형편이다.

표 Ⅲ - 24 초·중등학교 교원수

구 분	남 자	여 자	합 계	비율(%)
대학졸	14,503	19,164	33,667	24.0
① 교직과정 수료자 a	88	135	223	0.1
② 기 타 b	14,415	19,029	33,444	23.9
고등학교졸	38,740	65,985	104,725	74.8
① 현직교육을 받은자 c	31,243	48,498	79,741	56.9
② 단기교육을 받은자 d	2,276	4,382	6,658	4.8
③ 기 타 e	5,221	13,105	18,326	13.1
기 타 f	730	959	1,689	1.2
합 계	53,976	86,108	140,081	100.0

자료 : Ministry of Education, 1987

※ a : 대학 졸업후 1년간 교직과정을 수료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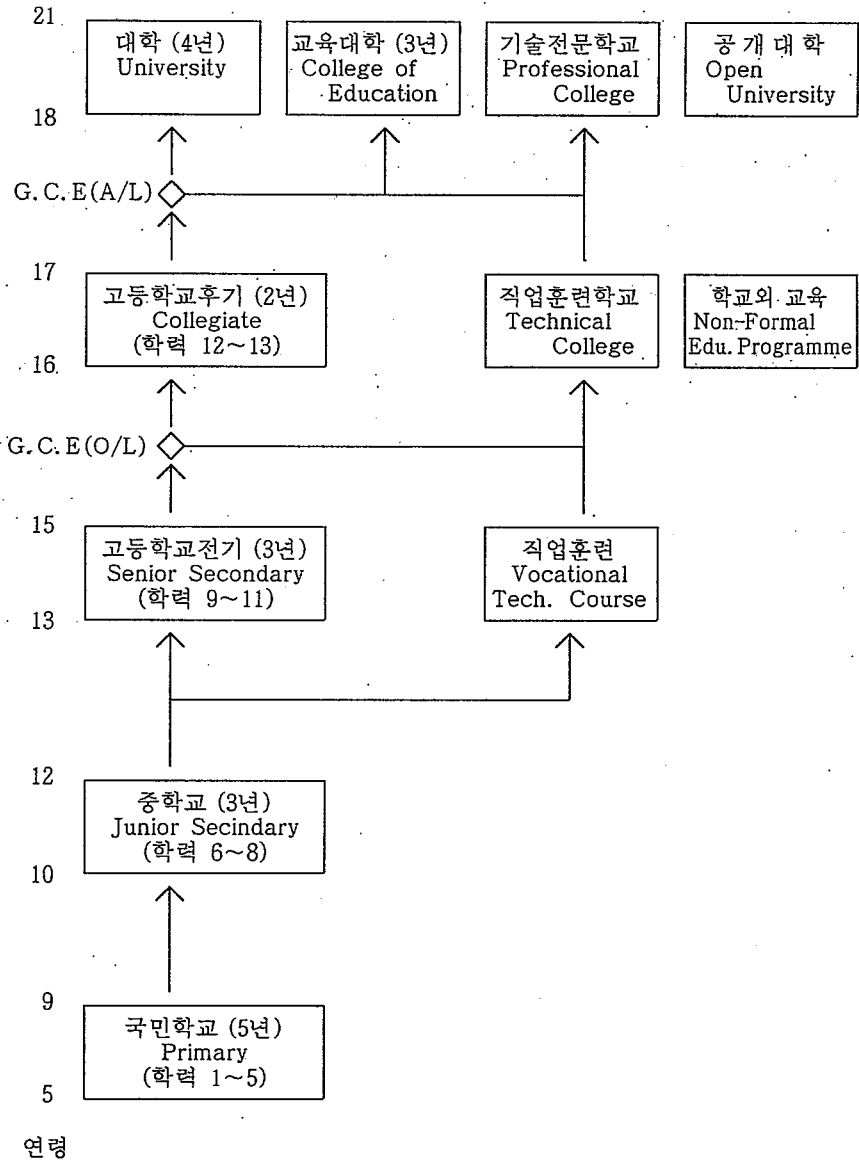
b : 대학 졸업후 교직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자

c : 교원채용후 3년간의 교직전문교육을 교원대학에서 받은자

d : 교원채용후 단기교직전문교육을 받지 않은자

e, f : 교원채용후 교직전문교육을 받지 않은자

그림 Ⅲ - 3 스리랑카의 교육제도



2. 개발 계획

인력자원 개발예산은 "공공투자 5개년계획(1990~94)"에 따르면 표 Ⅲ-25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자원 개발예산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국가예산의 4.4%에서 9.9%까지 늘릴 예정이며 그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일반교육 계획 : 州정부 教育局 주관하에 교원훈련제도의 개선 및 연수제도 확대, 통학이 불편한 지역에서의 학교 신설, 커리큘럼의 지방분권화 등을 추진한다.

b.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컴퓨터 도입 : 신속한 기술정보의 입수를 목적으로 모든 G.C.E. A/L급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한다.

c. 퇴학자를 위한 직업훈련과정 개발 : 청소년 퇴학자가 기술 및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 용접, 재봉, 라디오수리 기술 등 약 50개 과정, 1만명 교육을 목표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d. 직업 훈련센터 설립 :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 25개 공장기계조작센터를 설치, 연간 5,000명의 여성을 훈련한다.

e. 지방청년센터 설치 :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직업훈련기자재의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청년서비스 위원회(National Youth Services Council)의 주도하에 5개州(남부, 중부, 북서부, 북중앙, 사바라가트와)의 州都에 州立 청년개발센터를 설치한다.

f. 콜롬보大 理科大學의 연구설비 개선 : 최신의 연구설비를 도입하여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g. 자후나대학(工·醫大) 연구설비 개선 : 理工大 학생교육의 질적 개선과 첨단설비 도입을 통한 의학기술의 향상을 도모한다.

h. 공개대학 시청각교육센터 설립 : 공개대학에서는 지금까지 통신교육자료 送付 및 정기적 출석강의에 의해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시청각교육이 미비했던 바, 향후 시청각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시청각교육 기자재의 보급 및 시청각시설의 활용에 의한 개방대학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한편 스리랑카 教育省은 "中期 教育개발계획(1990~94)"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모든 국민에 대한 11년간의 의무교육 제공
2. 지역간 격차의 해소
3. 플랜테이션 지역에서의 학교신설
4. 과학, 수학, 영어, 역사교육 강화
5.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컴퓨터 보급
6. 훈련된 교원을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원교육체제 개선
7. 중학생에 대한 생활기능 및 기술교육실시 및 퇴학자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
8. 종교에 기초한 도덕교육의 강화
9. 취학전 교육을 위한 교회 및 기타 사회기관과의 연대강화

표 III - 25 인력자원 개발계획(1990-94)

T : 총경비 FA : 외국원조액

(백만루피)

예 산 지 출 항 목	내역	1990	1991	1992	1993	1994	1990~1994
교육 · 고등교육							
①일반행정	T	10.8	15.0	18.0	22.0	25.0	90.8
	FA	-	-	-	-	-	-
②일반교육(국립학교)	T	10.0	67.0	191.0	243.0	310.0	821.0
	FA	-	-	-	-	-	-
③청소년장려위원회 (Youth Commission Recommendation)	T	-	200.0	255.0	300.0	320.0	1075.0
	FA	-	-	-	-	-	-
④국립교육연수 · 연 구소	T	58.2	234.0	30.0	3.0	3.0	328.2
	FA	30.0	204.0	-	-	-	234.0
⑤IDA프로젝트	T	-	315.2	418.8	475.0	478.3	1687.3
	FA	-	286.5	375.0	425.0	428.0	1514.5
⑥과학기술자재	T	-	30.0	40.0	50.0	60.0	180.0
	FA	-	-	-	-	-	-
⑦교원 교육	T	183.0	58.0	50.0	58.0	70.0	419.0
	FA	25.0	25.0	-	-	-	50.0
⑧교육 서비스省 (Education Services Ministry)	T	-	1.5	1.6	1.7	1.2	6.0
	FA	-	-	-	-	-	-
⑨고등교육계획省 (Project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T	16.5	3.5	3.5	4.2	4.5	32.2
	FA	-	-	-	-	-	-
⑩기술 전문학교	T	216.5	393.0	350.0	110.0	100.0	1169.5
	FA	157.4	316.0	160.0	60.0	-	693.4
소 계	T	495.0	1317.2	1357.9	1266.9	1372.0	4008.5
	FA	157.4	831.5	535.0	485.0	428.0	2491.9
試 驗 局	T	7.5	14.0	7.2	3.2	2.2	34.1
	FA	-	-	-	-	-	-
교육 출판국	T	0.5	1.0	2.0	2.0	2.5	8.0
	FA	-	-	-	-	-	-
일반교육 州評議會	T	556.0	525.0	595.0	685.0	800.0	3171.0
	FA	220.0	103.0	-	-	-	323.0
대학인가 위원회 (U G C)	T	300.0	295.0	380.0	435.0	500.0	1910.0
	FA	-	-	-	-	-	-
합 계	T	1369.0	2152.0	2342.1	2392.1	2676.7	10932
	FA	432.4	934.5	535.0	485.0	428.0	2814.9
국 가 예 산	T	30772	39563	33189	29217	27043	159790
	FA	15185	22336	14348	8752	8285	66906
국가예산 대비 인력 자원예산 비율, %	T	4.4	5.4	7.1	8.2	9.9	6.8
	FA	2.8	4.2	3.7	5.5	6.8	4.2

자료 : 공공투자 5개년 프로젝트(1990-1994),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 : Ministry of Policy Planning & Implementation

3. 개발원조 동향

가. 개 요

인력자원분야에 대한 외국원조는 스리랑카 인력자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敎育研修나 연구프로젝트 등 기술협력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표 Ⅲ-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총액에서 이 부분의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불과하다.

1988년과 90년의 원조내역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및 "기술 및 관리교육·훈련"이 각각 771만 8천달러에서 18만 7천달러, 1,880만 1천달러에서 186만 6천달러로 급격히 감소한데 비해서 "초등교육"은 159만달러에서 441만달러로 증가했다.

표 Ⅲ - 26 인력자원에 대한 원조동향(천달러)

항 목	1987以前	1988	1989	1990
교육정책 및 교육계획부문	415	495	119	160
초등교육 부문	-	1,590	3,408	4,418
고등교육 부문	9,068	7,718	801	187
기술 및 관리교육·훈련	32,839	18,801	23,943	1,866
제도外 교육부문	-	220	200	100
합 계	42,422	28,824	28,471	6,731
원 조 액	414,350	662,240	712,844	169,766
인력자원 원조 비율 (%)	10.0	4.3	4.0	4.0

자료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DCR), UNDP

나. 국제기관 원조

인력자원분야에 대한 국제기관의 원조액비율은 1990년도에는 31.9%(907만 달러), 累界 65.8%(56.607 백만달러)를 점하고 있어 양국간 원조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관으로 ADB, IDA (제2세계은행) 및 UNDP (UN개발계획)를 들 수 있다.

ADB와 IDA는 각각 97.7%, 100%가 유상원조자금이며 주로 기술교육이나 직업훈련이 원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UNDP는 장래의 공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희망하는 스리랑카정부의 뜻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투자 5개년계획"에 따르면 IDA는 1990년부터 5년간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기자재 개선, 교육기자재 공급 및 관리, 교육기자재 사용의 지역간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7천 5백만 달러의 자금협력을 할 예정이다. 또한 ADB는 기술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의 질적·양적 개선을 위해 제1기에 이어 제2기 기술교육계획을 1989년부터 7년간 계획으로 실시 중이며 이를 위해 총 4천 5백만 달러중 3천 6백만 달러의 유상자금협력을 행하고 있다.

다. 양국간 원조

인력자원 개발분야에 대한 양국간 원조의 주요국은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이다.

1989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일본이 국립교육연구소와 컴퓨터기술연구소등에 대한 원조로 인력자원분야 원조총액의 53.7%를 점하고 있으며 인력자원분야에 있어서 최대원조국이 되고 있다.

또한 "공공투자 5개년 계획(1990-94)"에 따라 스웨덴(SIDA)은 1986년부터 6년간 510백만 루피를 원조하고 있는데 이는 플랜테이션지역에서 複數學年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국의 185개교 국민학교에 대한 교육기자재 지원, 케가레·마누라·콜롬보縣 등 지역학교 교육시설개선,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독일(GTZ)은 1981년부터 국립실습研修所(ATI)에 대해 9천만루피 규모의 원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1985년부터 연간 450명에 대한 직업훈련(5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3. 환 경

1. 자연 환경의 역사적 변화 — 이주와 개간

인도계의 싱하라, 타밀인의 초기이민생활은 북부의 低地帶(건조지대)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수백개의 농업용저수지가 이들에 의해 造成되었다. 아니카트라고 불리우는 수물식 제방과 用水路를 조합한 정교한 灌溉시스템이 여기서 발전하였고 주곡인 쌀도 재배되었다. 즉 산골짜기에서의 관개시스템을 이용한 水稻作, 산비탈에서의 과수원이나 채소재배, 약간 높은 구릉부에서의 화전경작과 그 휴한지를 이용한 가축방목이나 綠肥, 땔감채집 등을 혼합한 전통적 농업이 이들 초기 이주자들에 의해 北部低地帶에서 행해졌다.

한편 16세기에 들어서 포르투갈의 통상로 획득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콜롬보가 선택되었으며 이때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스리랑카의 남서부 해안저지대에 자생하는 시나몬의 재배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스리랑카에 있어서 외국인에 의한 상업적 농업생산의 시초이다. 그후 17세기에는 포르투갈에 대신하여 네덜란드가 영향력을 강화, 스리랑카에 원시적인 플랜테이션 농업이 행해졌다. 이 시기에 후추와 커피가 도입되었으며 코코야자 재배확대 및 사탕수수, 담배 등과 같은 상품가치 높은 상업작물의 재배가 장려되었으나 이는 남서부 저지대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후 19세기에 영국이 지배권을 획득하자 습윤지대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험 많은 유럽인에 의한 커피 플랜테이션이 시작되었으며 키나노키(키니네의 원료가 되는 나무), 차, 고무의 재배도 시도되는 등 플랜테이션 발전의 신시대가 열렸다.

이들의 발전과 함께 플랜테이션 농업을 위한 여러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도 건설되었다.

이러한 플랜테이션 농업의 발전 및 그 농지의 확대에 의하여 남서부 저지대의 화전 경작지와 뽕밭 등 전통적 농업형태가 변화하게 되었다. 한편 플랜테이션 농장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로부터 타밀인(통칭 인도 타밀인으로 불리며 초기에 이주한 스리랑카 타밀인과는 구별된다)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오늘의 민족구성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 유럽통상제국의 이익을 위한 상업 플랜테이션은 습윤지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건조지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이었다. 건조지대에서는 습윤지대 플랜테이션의 노동자로 인도에서 대량으로 유입된 자본력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쌀농사가 중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때 버려졌던 전통적 관개시스템에 대한 보수가 추진되었다.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스리랑카의 자연환경은 역사적으로 보면 古代의 싱하라, 타밀인에 의한 건조지대로의 이주와 전통적 농업의 확대에 의해서 변화되었다. 또한 유럽통상제국의 지배와 상업적 플랜테이션의 확대에 의해서 점차 습윤지대 저지연안부에서 내륙부 고지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주로 저지싱하라인에 의해 경영된 코코야자 재배가 연안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연환경 역시 크게 변했다.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섬을 개발한 결과 고대에는 남부 및 서부의 습윤지대를 덮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밀림의 대부분이 소멸하였으며 현재는 국토의 27%인 174만ha(1986년 FAO추계)가 산림으로서 남아 있는데 불과하다. 농지면적은 국토의 29%인 188.7만ha(1987, FAO)이나 지속적인 산림의 개간에 의해 넓어지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 농업은 GDP의 23%,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며 취업인구의 약 50%에 대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이기도 하다.

2. 현황 - 인구증가와 경제개발에 의한 환경변화

가. 국토의 이용상황과 환경

스리랑카의 국토면적은 약 6.5백만ha인데 그중 약 5.7백만ha가 다음과 같이 이용되고 있다.

표 Ⅲ - 27 국토이용 현황

구 분	면 적	비 율
산림면적	1.6 백만 ha	28.1%
화전경작면적	1.0 백만 ha	17.5%
차, 고무, 야자재배 면적	1.0 백만 ha	17.5%
水田경작 면적	0.8 백만 ha	14.0%
야생동물보호지역 면적	0.7 백만 ha	12.3%
초지 · 임야면적	0.5 백만 ha	8.8%
高地 1년생작물 재배지	0.1 백만 ha	1.8%
합 계	5.7 백만 ha	100%

인구의 증가와 보다 윤택한 생활에 대한 욕구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국토 이용에 의해 유지되어 온 자연의 균형을 파괴하였으며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수요를 증대시켰는데 독립당시의 스리랑카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키 위해 산림을 아무런 규제없이 벌채했다.

스리랑카의 인구는 1946년에는 6.7백만명 이었으나 현재 17백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서기 2,000년에는 2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의 농지로서 인구증가로 인한 농산물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해결책은 최신 영농법을 사용한 토지이용의 효율성향상 여부에 달려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리랑카 국토의 주된 이용상황은 산림, 농업, 축산, 동식물보호 등으로 대별되는데 정부는 이미 화전경작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신하여 高地 1년생작물 재배, 果樹·목재용이나 땔감용 樹木의 植木, 사료작물 재배 등 복합영농을 장려하고 있다.

이미 남부의 습윤지대 일부에서는 토양유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토양에 포함된 유기질의 감소가 보고되고 있다. 건조지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여 농작물의 連作으로 토양의 비옥도가 저하되고 관개시설의 보급에 따른 鹽害발생 및 地下水位의 상승이 보고되고 있다.

나. 산림 파괴

스리랑카의 인구는 1,724만명(1991), 인구밀도가 약 280인/km²(1991)이며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인구증가율은 1.1%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증가율은 과거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이는 과거 활발히 행해졌던 플랜테이션농업 경영을 위한 노동력유입이 독립 후 중단되었고 많은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이 인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인구증가는 생활에너지 수요 및 새로운 농업용지 수요 증대, 가옥건설을 위한 用材需要, 가축사육을 위한 放牧地수요의 증대를 의미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93%가 땔감을 사용하여 취사를 하는 스리랑카로서는 생활연료수요의 확대가 유발시킨 산림파괴를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표 Ⅲ-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4년-76년과 1984년-86년 사이의 목재생산량은 산업용, 생활연료용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생활연료용 목재생

산량이 산업용의 10배 이상인 것은 주목할 만 하다.

표 Ⅲ - 28 용도별 목재 생산량(천㎥)

년 도	산 업 용 · 목 재	연 료 용 땔 감
1974 ~ 76	506	6, 593
1984 ~ 86	678	7, 847

자료 : Selected Indicators of Food and Agriculture Development
in Asia Pacific Region, 1978-88, FAO

또한 통계상에는 북부지역과 중앙건조지대가 미경작지로 되어 있지만 이들 지역도 계절적으로는 전통적 화전경작지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100만ha에 이른다.

스리랑카 山林局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森林地는 국토의 44%인데 이중 상당부분이 전통적 화전농업에 의해 심각하게 황폐화 되고 있으며 현재 소비되는 목재의 대부분이 농업용지 또는 기타 개발목적을 위해 개간된 산림과 습윤지대에서의 계획적인 벌채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자연상태의 나무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산림면적은 현재 국토의 27%인데 이 비율은 국토의 생태적 안정과 수자원 및 목재 등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수준으로 생각된다.

이미 파괴된 산림은 山間部에서의 토양유실 및 河床으로의 퇴적을 초래하였으며 乾期에는 水量을 저하시켜 국토의 대부분이 한발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말라리아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한편 마하웰리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약 2.6만ha의 산림이 새로운 이주와 농지개발로

인해 유실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 沿岸환경 파괴

인구증가와 국토개발이 산림파괴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沿岸部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지적되고 있다. 연안부에서 소규모 산업이나 관광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건축자재로 산호, 석회석의 채굴 및 모래의 채취가 활발하며 이로 인해 생태계파괴가 야기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기와지붕 색칠 등 건설용재로서 石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역사적으로 석회는 해안부의 석회채굴장으로 부터 채굴되었다. 그후 남부, 동부지역에서 해안 산호초를 원료로 한 간편하고 값싼 제조법이 개발되었으며 산호를 건축용재로 지나치게 채취하게 되면서 파도의 저항을 흡수할 수 없게 된 해안선이 유실되게 되었다. 스리랑카정부는 오늘날의 채취를 금지하고 과거의 채굴법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산호채취의 금지는 남서부에서만 약 1,400명의 일자리를 잃게 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리랑카 남부, 남서부 및 자후나半島部에서는 몬순기의 파도, 해면상승 등으로 19세기부터 해안선의 침식이 두드러져 護岸, 防波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북서부 및 서부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약 6,000ha에 이르는 망글로브 자생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이 최근의 생태계변화에 영향을 받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도 해안침식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망그로브林의 생태적, 경제적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망글로브林이 없으면 연안어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망글로브 자생지를 도시개발을 위한 매립지로서 사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남부와 서부의 망그로브 자생지는 거의가 논으로 개간되었으며 콜롬보부근에 남아 있던 망그로브 자생지는 개발목적으로 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망그로브林 자생지는 산호초와 함께 태풍이나 강풍 등 자연의 위협에 대한 천연 방어물로서 오랜세월 동안 연안부를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연안부 어민의 생활을 여러면에서 돕고 있다. 예컨대 갈게나 바구니 등 가내산업의 원료로서 사용되기도 하며 어망이나 돛을 튼튼히 하거나 또는 漁般의 부패방지제로서 요긴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 외에도 材木은 가옥 등 건축재목이나 가구용 기타 여러가지 도구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漁般製造 및 일상의 펠감材로도 공급되고 있다. 특히 망그로브 자생지 주변 해안은 새우, 게, 패류 등의 서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번식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는 바, 스리랑카人이 섭취하는 어류단백질의 웅는 이들 연안부에서의 어획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森林局은 망그로브林 조사를 타연구기관과 함께 실시, 그 대책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라. 산업 공해

스리랑카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이들은 財貨의 생산 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인구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들 기업에 의한 산업폐기물의 발생 및 환경오염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석회석이나 시멘트원료, 보석, 煉瓦원료, 도자기원료 등의 채굴은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안선의 유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고무 가공공장, 제지공장, 피혁제조공장, 빠띠크 염색공장, 질소비료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는 지하수, 하천, 연안부를 오염시키고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스리랑카 환경청에 따르면 1990년 현재 공해유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약 4,000개사이며 그중 115개 기업이 주요 공해유발기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미 환경보호허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기술적 미숙함 및 체계적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4,000개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독자적인 공해방지시설을 설치 할 만한 여력이 없다. 이들이 여과없이 내보내는 산업폐기물은 공공하수도나 배수구 혹은 지표에 침투되어 향후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마. 도시 환경

스리랑카의 도시화 경향은 다른 서남아시아제국에 비하면 완만한 편이며 도시인구비율은 1946년부터 1971년까지의 경우 21~22%, 인구 2만이상의 도시만을 고려하면 11.4%~16%이다.

도시화 경향은 완만하지만 산업화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이들 도시에서의 생활폐기물의 다양화와 폐기물량의 증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3세계 대부분의 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폐기물은 가까운 저지대 습지나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 바, 이들 지역은 불법거주자들의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들 불법거주자數는 1971년 조사에서는 15만7천명을 상회하였으며 이들을 포함해서 기준이하의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콜롬보 인구의 67%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열악한 상하수도시설 및 공공교통체계 역시 도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산업공해 및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바. 주거 환경

주거상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주민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생활폐기물의 방치, 대기오염도의 심화, 밀집한 주거환경 등은 질병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열악한 주거환경 하에 있는 농촌지역, 도시지역, 플랜테이션, 개간지의 빈곤층에 대해 소액의 주택건설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1981년 조사(The 1981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로는 전체인구 14.8백만명중 2.8백만명만이 정상적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이나 플랜테이션에서는 대부분이 간이주거(Semi Permant Structure) 형태로 생활을 영위, 전체 국민의 39%가 UN에서 정한 "1室 3人"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上水道의 경우에는 급수율이 17.6%에 불과하며 도시지역에서도 48.7%만이 급수되고 있다. 화장실·수도 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주거형태중 33.5%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37.7%가 한국의 재래식 변소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수세식의 경우는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또 전체 가구중 80%가 야간 조명시설로서 등유램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1971년 9%에서 1981년 15%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간이주거형태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율이 1%에 불과, 일반주거의 34%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스리랑카정부는 1978년~1983년에 걸쳐 10만주택건설계획(Hundred Thousand Houses Programme)을 실시하였으며 그후 1984년에는 이를 확대, 100만주택건설계획(Million Houses Programme)을 개시했는데 이는 농촌계획 및 도시계획, 플랜테이션주거계획 등 하위계획(Sub Pro-

gramme)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밖에 개발계획이나 이주정책과 관련한 移住地에서의 주택공급계획으로 SSHSP(Settlement Scheme Housing Sub Programme)이 있다.

3. 환경 행정

국가차원의 환경보존 및 자연환경 보호정책은 기본적으로 스리랑카헌법 제6조, 27, 28항에 명시되어 있다. 환경행정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본문을 적는다.

CHAPTER 6 ARTICLE 27;

"The state shall protect, preserve, and improve the environment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CHAPTER 6 ARTICLE 28;

"The exercise and enjoyment of rights and freedom is inseparable from the performance of duties and obligations and accordingly it is the duty of every person in Srilanka to protect nature and conserve its riches"

또한 국가차원의 환경보전 및 자연자원보호에 관한 정책은 다음 2개의 정책, 지침을 통해 행해지고 있다.

a. 국가안전전략(SLNCS)

이는 스리랑카에 있어서의 급격한 자연자원의 파괴·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며 1988년에 작성되었다.

스리랑카정부도 조림, 수자원 보전, 토양유실방지, 산호초 보호, 연안지역의 적정개발 등 개발에 있어서의 환경의 중요성을 일부 인식하고 있다.

b.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1984년 1월부터 모든 개발계획은 정부의 결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가. 국가안전전략(The National Conservation Strategy : SLNCS)

國家安全戰略은 자야와르데네 대통령의 주도로 IUCN(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과 USAID(미국국제개발처)등 국제기관의 원조를 받아가며 환경청(The Central Environmental Authority, CEA)이 1988년 12월부터 실시하였다.

이는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보호전략이 아닌 현재 국제사회가 구상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목적으로 한 환경전략으로 스리랑카에 있어서의 환경행정의 전략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국가안전전략은 스리랑카의 자연자원 보호와 개발에 관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책정된 바, 단순히 장래의 정책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토양, 광물자원, 수자원, 대기 및 산림, 초지, 습윤지대, 망그로브림, 산호초 등 스리랑카 생태계는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이는 농민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스리랑카나 다른 제3세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많은 산업국가가 유해한 폐기물의 방치,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바, 문제는 이 문제가 한 나라, 지역, 대륙에 한정되지 않는 세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IUCN이 각국 정부에 자연 및 자연자원의 보호필요성을 경고하고 그 가이드라인(세계환경 전략/The World Conservation Strategy)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안에 대해 스리랑카는 그 목적과 필요성을 인식, 선구적으로 SLNCS를 준비한 나라이다.

나. 환경관련 행정조직

스리랑카의 환경담당 행정기관은 1980년에 제정된 법령(The Environmental Act No.47 of 1980)에 따라 설치된 환경청이다.

그 기능은 환경관련정책의 입안과 각 정부기관의 환경관련정책, 계획의 조정이다. 환경청에는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Council)가 부설되어 있으며 同협의회에는 국토개발廳, 에너지省, 도로省, 교육省, 노동省, 국무省, 기획·실시省, 섬유산업省, 플랜테이션 산업省, 운수省, 외무省, 수출가공구省 등 各省 및 마하엘리개발省이 참가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名省간의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조정하고 있다.

다. 환경관련 법제도

스리랑카의 환경관련법 및 법령은 다음과 같다.

- (1) IRRIGATION ORDINANCE, 1990 : 관개사업에 관한법령
- (2) WATER HYACINTH ORDINANCE, 1909 : 식물보호에 관한
법령
- (3) HOUSING AND TOWN IMPROVEMENT ORDINANCE,

- 1915 : 주택 및 시가지 정비에 관한 법령
- (4) FERTILIZERS ORDINANCE, 1920 : 비료에 관한 법령
- (5) PLANT PROTECTION ORDINANCE, 1924 : 식물보호에 관한
법령
- (6) FAUNA AND FLORA PROTECTION ORDINANCE, 1937 : 동
식물보호에 관한 법령
- (7) FISHERIES ORDINANCE, 1941 : 어업에 관한 법령
- (8) FACTORY ORDINANCE, 1942 : 공장에 관한 법령
- (9) TOWN AND COUNTRY PLANNING ORDINANCE, 1946 : 시
가지 및 국가건설계획에 관한 법령
- (10) QUARRIES, MINES AND MINERALS ORDINANCE, 1947 :
채취, 채굴 및 광물자원에 관한 법령
- (11) SOIL CONSERVATION ACT, 1951 : 토양보전에 관한 법령
- (12) WATER RESOURCES BOARD ACT, 1964 : 수자원局에 관한
법령
- (13) TOURIST DEVELOPMENT ACT, 1968 : 관광개발에 관한 법령
- (14) ATOMIC ENERGY ACT, 1969 :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법령
- (15) FOREST ORDINANCE, 1970 : 산림에 관한 법령
- (16) AGRICULTURAL LANDS LAW, 1973 : 농경지 이용에 관한
법령
- (17) MINES AND MINERALS DEVELOPMENT ACT, 1973 : 광업
및 광물자원에 관한 법령
- (18) NATIONAL WATER SUPPLY AND DRAINAGE ACT, 1974 :

급수 및 하수에 관한 법령

(19)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1978 : 도시개발
공사에 관한 법령

(20) PESTICIDES ACT, 1980 : 농약에 관한 법령

(21) NATIONAL ENVIRONMENTAL ACT, 1980 : 환경에 관한 법령

(22) COAST CONSERVATION ACT, 1981 : 해안선 보전에 관한
법령

(23)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1981 : 해양보전에
관한 법령

(24) NATURAL RESOURCES, ENERGY AND SCIENCE AUTHORITY
ACT, 1981 : 자연자원, 에너지 및 科學公社에 관한 법령

(25) NATIONAL ENVIRONMENT ACT, 1988 : 환경에 관한 개정
법령

이 가운데 1980년 제정된 "환경에 관한 법령" 및 1988년에 개정된
"환경에 관한 개정법령"이 오늘날 환경행정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스리랑
카 환경관련법 및 관련행정조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ENVIRONMENTAL
LAWS AND INSTITUTIONS OF SRILANKA-COUNTRY ENVIRONMENTAL
PROFILE-USAID, 1988을 참고 할 것)

라. 환경보전 및 보호문제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스리랑카에서는 1988년 제정된 "환경에 관한
개정법령"등 법제도를 통해 환경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제4차 개발계획

이나 환경영향평가제 시행, 국가안전전략(SLNCS) 제정 등 환경행정의 정책적 기반도 점차 정비되고 있다. 다만 환경정책의 적극적 추진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 1) 인구 압력
- 2) 환경에 관한 정책입안 및 계획의 미숙
- 3) 관련 법체도의 미정비
- 4) 환경행정 담당조직의 미정비
- 5) 사회적 무관심과 낮은 참여율

공업부문에 대한 환경정책은 특히 낙후되어 있다.

1977년 자유주의적 개방정책 실시 이후 원재료 및 기계류의 수입이 자유화되며 민간경제가 성장했다. 그 결과 해외로 부터의 투자, 특히 합작사업이 촉진되고 금융, 기술, 경영관리의 노우하우도 축적되었으며 수출도 증대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산업활동에 의해 초래된 환경오염이 큰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1984년 환경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가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서 의무화 되도록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서는 "공해 처리기술은 산업기술의 일부이어야 하며 그에 관한 경비는 당해 산업이 지불해야 하고 사회의 부담으로 돌려져서는 않된다."는 기본방침이 정해졌다. 그러나 스리랑카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초보적 수준이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소극적인 지적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1988년에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환경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의무

화한 개정 환경법(THE NATIONAL ENVIRONMENTAL ACT OF 1988)이 제정되었으며 환경청은 1990년 1월부터 환경보호허가제(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ICENCE SCHEME)를 도입했다. (스리랑카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 절차, 시스템에 관해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환경영향평가(EIA)-JICA, 1989년"을 참고할 것)

5. 개발원조 동향

스리랑카의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기관, 원조기관의 협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연구협력 : 환경분야 정보수집 및 환경실태보고서 작성 지원
- 2) 특정 환경영향평가 : 개발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실시
- 3) 환경행정 : 환경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한 조직적, 인적, 기술적 지원
- 4) 환경교육 : 지역주민의 환경 및 환경문제에 대한 계몽
- 5) 국제적 조직망 형성을 위한 협력 : 여러나라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협력

이들 기관은 각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국가차원에서의 환경전략에 관한 환경실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환경 체계 구축의 경우에는 USAID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USAID는 국가안전전략(SLNCS)의 작성 및 환경관련정보의 제공 등으로 크게 공헌하고 있는 바, 그 중 최초의 것은 1979년에 정리된 DRAFT ENVIRONMENTAL REPORT ON SRILANKA-COUNTRY ENVIRONMENTAL PROFILES-USAID이다.

또한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도 환경분야 협력의 정책자료로서 환경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에선 예컨대 아시아개발은행이 작성한

FOREST MASTER PLAN FOR SRILANKA : MAIN REPORT, 1986
을 들 수 있다. 그밖에 UN환경계획(UNEP)은 남아시아지역 환경문제를
전담키 위한 남아시아환경계획(SOUTH ASIA COOPERATIVE ENVIRONMENT
PROGRAMME/SACEP)을 설립(1981), 이 분야의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한편 환경관련 NGO는 그 대부분이 스리랑카 국내에서의 환경교육 및
환경실태조사를 주된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UNEP 등 국제기관 및
NORAD(노르웨이 국제개발원조청), SIDA(스웨덴 국제개발청) 등 각국
원조기관과 공동으로 환경교육이나 인재양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환경영향평거나 환경행정에 관한 협력은 실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각국 정부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
행도 특정 환경영향평가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마하엘리 개발계획이나
수력발전개발 등 대형원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향후 스리랑카정부의 환경행정체제 정비·확충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조직적, 인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실제적 협력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빈곤 · WID (Women in Development)

1. 빈곤현황

가. 개 요

스리랑카는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현재 20% 가까운 실업률(약 120만명)과 생산성 낮은 대량의 취업인구(위장실업자군)를 안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는 독립 이후 계속된 사회개발정책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업(Unemployment),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 등 스리랑카의 빈곤문제는 농촌지역 고용촉진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정책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량의 절대적 빈곤층을 갖고 있는 다른 서남아시아 제국에 비해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다.

나. 소득격차의 확대

다른 개도국과 비교하면 스리랑카는 平均壽命, 乳兒死亡率, 文盲率, 1인당 GNP 등 소위 사회생활지표상으로는 매우 양호한 상태에 있다. 또한 1977년 이후 계속된 경제개발정책으로 실질소득이 증대하였고 고용역시 확대되었으며 중동지역으로의 해외취업은 많은 빈곤층을 구제하였다. 도시의 경우에는 무역 및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따라 고용기회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疾病, 營養失調, 失業 등으로 대표되는 빈곤문제는 경감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빈곤층의 생활환경과 제조건의 악화, 소득격차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1인당 월수입 80루피를 "빈곤라인(Line)"으로 삼고 있는데 1980년의 경우 전인구의 22.5%가 빈곤라인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25.6%, 도시지역 17.2%, 플랜테이션 9.2%의 비율을 보였다. 스리랑카 인구의 70%가 농촌인구인데 이중 3이 빈곤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것이다.

다음 표 Ⅲ-29, 30은 각 계층별 소득과 지출의 분배상황을 나타낸 것인데 이를 보면 1963년~1973년에 걸쳐 약각 회복된 下層 40%의 소득/지출상황은 그후 1978/79년에 다시 악화되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표 Ⅲ-31은 각 부문별 소득분포를 지니係數로 표시한 것인데 1973년부터 1978/79년 사이에 플랜테이션을 제외한 각 부문은 소득격차가 확대됐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1978/79년 이후에는 소득격차의 확대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 - 29 계층별 소득분포상황 변화 (%)

계 층	1963	1973	1978/79	1981/82	1985/86
최하위 20%	3.87	4.97	3.76	3.7	4.8
제 2 계 층	8.13	10.08	8.36	8.08	8.5
제 3 계 층	12.37	15.85	13.22	12.5	12.1
제 4 계 층	20.44	23.21	20.35	19.2	18.4
최상위 20%	55.26	45.24	54.31	56.52	56.1

자료 : 스리랑카 중앙은행

표 Ⅲ - 30 계층별 지출분배상황 변화 (%)

계 층	1963	1973	1978/79	1981/2
최하위 20%	5.45	7.17	5.73	5.73
제 2 계 층	9.6	12.12	10.33	9.59
제 3 계 층	13.81	16.2	14.28	13.37
제 4 계 층	20.22	21.56	19.76	19.4
최상위 20%	52.31	52.31	49.87	51.81

자료 : 상 동

표 Ⅲ - 31 각 부문별 소득분포변화(지니係數)

부 문	1963	1973	1978/79	1981/82
도 시 지 역	0.49	0.4	0.51	0.54
농 촌 지 역	0.44	0.37	0.49	0.49
플 랜 테 이 셴	0.27	0.37	0.32	0.32
전 국	0.49	0.41	0.49	0.52

자료 : 上 同

다. 실업문제

失業率은 1970년대 초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다음 표 Ⅲ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8~1981년 사이에는 다소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의 경우 실업인구는 약 12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1970년 이후 스리랑카에서 年15만명 전후의 새로운 노동인구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모의 실업인구는 1977년 이후의 성공적 경제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1년 이후 실업율이 다시 상승하여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스리랑카가 갖고 있는 실업문제의 특징은 실업층이 중등교육, 또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청년층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1978~1982년 기간동안 전체 실업율은 경감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14세~18세 인구의 실업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연령층 실업자는 대부분 학교교육에서의 自意·他意에 의한 탈락층인데 이들은 정치적 불안기에는 영향을 받기 쉽고 정치투쟁에 휩쓸릴 가능성도 높다. 다음에 표시한 表 Ⅲ-33으로부터 얼마나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25세 이하 취업인구의 76.5%가 실질적으로는 실업상태에 있는데 다른 조사에서는 이들 실업자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次世帶 職業을 引受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업율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에서도 19~25세

사이의 실업율은 1973년, 78년, 81년의 경우 각각 47.5%, 31.1%, 28.8%를 보이고 있는데 그 위 연령인 26~35세 실업율은 15.2%, 13.1%, 8.8%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表 Ⅲ-34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등교육 또는 그 이상의 고등교육 졸업자 대부분이 실업상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태는 교육내용이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이 고용흡수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3년 이후의 민족분쟁은 이 실업사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고질적인 난제가 되고 있다.

표 Ⅲ - 32 지역별 실업율 변화

부 문	1973	1978/79	1981/82
도 시 지 역	32.1	20.7	14.2
농 촌 지 역	24.5	14.6	12.0
플랜테이션	12.0	5.6	5.0
전 국 평 균	24.0	14.7	11.7

자료 : Consumer Finance Survey/Central Bank of Srilanka

표 Ⅲ - 33 연령별 실업율 변화

년 령 별	1973	1978/79	1981/82
14 ~ 18	65.8	30.7	30.8
19 ~ 25	47.5	31.1	28.8
26 ~ 35	15.2	13.1	8.8
36 ~ 45	3.9	2.7	1.7
46 ~ 55	1.2	0.8	0.5
55 이상	0.8	0.2	0.1
전체평균	24.0	14.7	11.7

자료 : 上 同

표 Ⅲ - 34 교육수준별 실업률

교육수준	실업률(%)
무학(문맹)	2.5
무학(식자)	0.2
초등 교육	14.3
중등 교육	40.1
GCE (OL)	32.8
GCE (AL)	8.9
대졸	0.4
대학원이상	0.8

자료 : 上 同

라. 빈곤층의 유형과 특징

특정 직업집단이나 지역집단을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으나 여러 자료를 참고해 보면 다음 집단이 매우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1) 빈농 및 농업노동자

스리랑카 농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小規模營農을 들 수 있다. 즉 총 농가의 5%만이 5 에이커 이상의 경지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쌀경작면적 전체의 25%~30%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경지면적 1에이커 미만의 농가는 약 35만세대로 전체 농가의 4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경작면적의 12%만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小農은 대부분 영농자금의 만성적 부족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영농수입으로 빈곤한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

2) 天水畚 의존적인 건조지대 농민

이들 전면적으로 기후에 의존하여 營農하고 있는 건조지대의 농민은

여러 지표로 볼때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소규모耕地 이외에는 다른 소득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이들 경지는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플랜테이션 노동자

약 20만세대의 小作農가족 중 약 30만~35만명이 800개소의 플랜테이션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들의 소득은 과거 100년간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한편 교육기회 및 취업기회의 제한으로 다른지역 주민들에 비해 신분상승의 기회는 적다.

플랜테이션 노동자의 문제점은 그들이 원래 식민지시대에 취업을 위해 인도에서 건너 왔다는 점과 그 중 상당수가 부녀자라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남성우위의 사회 관계가 지배적이며 여성은 경작, 출산, 가사 등 여러가지 과중한 노동에 혹사되고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예컨대 1985년의 경우 이 지역에서의 유아사망율은 50/1,000이었는데 이는 전국평균의 2배이다. 플랜테이션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대개 한사람이나 두사람의 교사가 맡고 있으며 이들은 빈약한 교육시설을 가지고 복수학급·학년을 담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4) 도시빈민층

도시지역에는 약 15만~17만 세대의 도시빈민이 슬럼이나 간이주거형태로 살고 있는데 이들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속에 있으며 미래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스리랑카의 경우에 도시화 경향은 완만하지만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이미 수도인 콜롬보 뿐만 아니라 제 2, 3의 도시에서도 크든 작든 이러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이 출현하고 있다.

이 지역 거주자의 대부분은 미숙련 노동분야 및 일용 노동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떤 조사에서는 이들 중 60%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전염병이나 이질 등 열악한 환경으로 부터 오는 질병의 발생율이 높고 영양실조도 농촌보다 도시의 이러한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5) 영세어민

스리랑카 어업종사자의 대부분은 영세어민이며 채래식 漁具와 무동력선에 의한 조업형태가 전체의 75%를 점하고 있다. 이중, 빈민층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약 16,000명~19,000명으로 추산되는 영세어업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타직종으로의 취업기회가 적고 계절적인 취업주기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하여 안정적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6) 농촌수공업자

약 10만 세대에 이르는 농촌의 소규모 수공업자(대장장이, 도장공, 목수 등)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들 기술을 가진 자영업자의 성장은 스리랑카 농촌사회발전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전자금부족, 기술적 낙후성 및 비효율적 유통체제 등으로 인하여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7) 민족분쟁지역 주민

분쟁지역은 12개 지역에 이르고 있으며 민족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1987년까지 10만세대 40만명이 가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보건서비스체제가 마비되어 소아마비,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다. 또, 분쟁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각종 보조금 및 기타 경제개발정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산·유통 등 시장기능의 마비로 이들 분쟁지역경제가 완전히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남부 지역, 중앙구릉지역, 자후나 반도 등 민족분쟁의 피해지역에서는 지역경제체제의 붕괴로 인한 가정파탄, 고아발생, 학교교육 중퇴자 속출 등 분쟁의 종결 및 지역부흥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2. 빈곤대책

가. 개 요

스리랑카는 독립 이후 오랜기간 동안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인근 서남아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소득국 정도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는 정부세출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지출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그 내용에서도 사회정책 중시방향을 선명히 알 수 있다.

표 Ⅲ - 35 스리랑카정부 예산의 분야별 세출변화(%)

분 야	1972	1981	1985	1986	1987	1990
국 방 · 군 사	3.1	1.7	2.6	8	9.6	7.4
교 육	13	7.2	6.4	8.4	7.8	9.9
보 건	6.4	3.5	3.6	4	5.4	5.4
주택 · 사회보장	19.5	13.7	11.1	11.1	11.7	14.9
경 제 서 비 스	20.2	13.6	10.2	10.2	29.2	16.8
기 타	37.7	60.3	66.2	58.3	36.3	45.6

자료 : 세계개발 보고, 1992

1972년의 경우에는 교육, 보건, 주택 · 사회보장, 경제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이 많았으나 1981년 이후 이들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율이 대폭 감소되고 기타 항목에 대한 지출과 국방비가 신장하고 있다.

치안 · 국방비는 1981년 1.7%에서 민족분쟁이 격화된 후인 1986년, 1987년에는 각각 8%, 9.6%로 상승하고 있다.

그림 Ⅲ-4 ~ Ⅲ-7은 교육, 보건, 주택, 사회보장, 경제서비스 등에 대한 예산지출비율을 서남아시아 제국의 그것과 비교한 것이다.

그림 Ⅲ - 4 정부세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지출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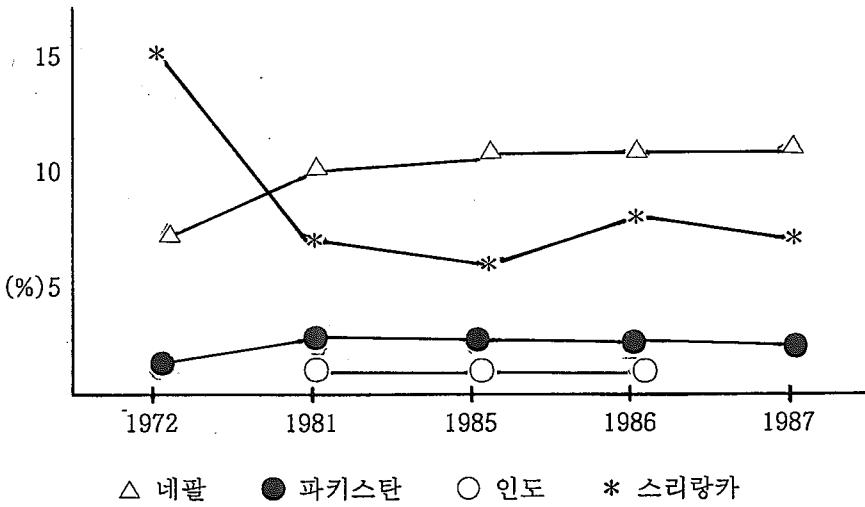


그림 Ⅲ - 5 정부세출에서 차지하는 보건비지출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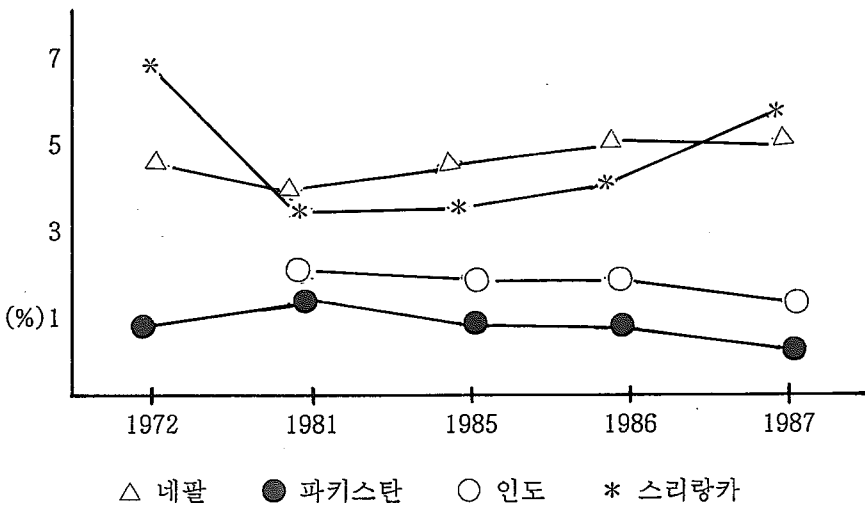


그림 Ⅲ - 6 정부세출에서 차지하는 주택·사회보장비 지출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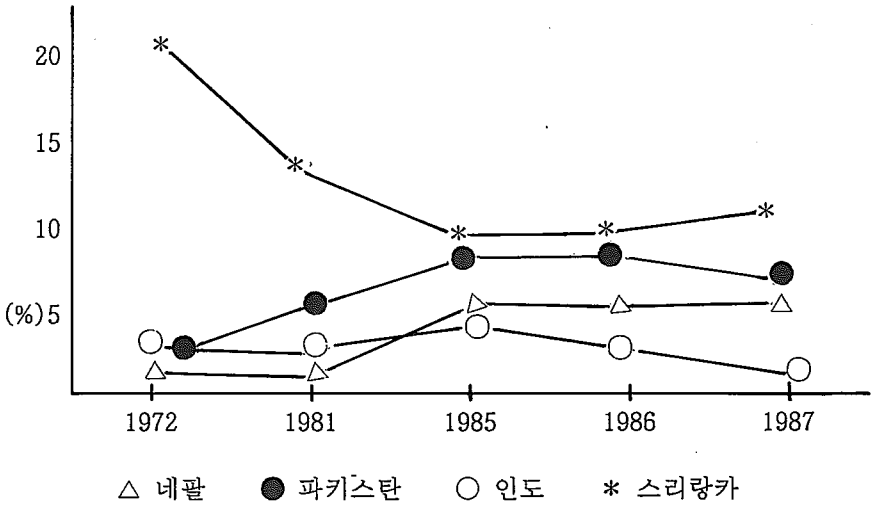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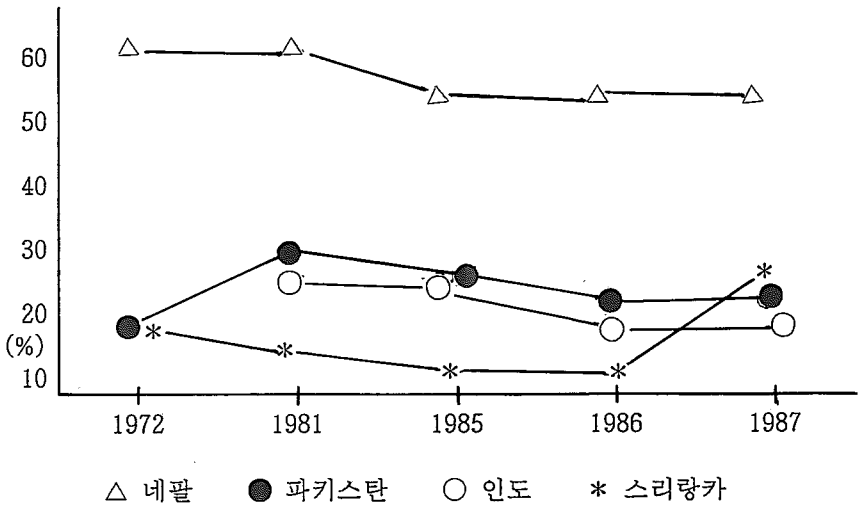


그림 Ⅲ - 7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경제서비스의 비율 비교



경제서비스분야를 제외하면 1971년의 경우에 스리랑카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지출비율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아 스리랑카정부가 이들 분야를 얼마나 중시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한편 1981년 이후에는 이들 분야에 대한 비중이 한결같이 저하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오일쇼크에 따른 영향과 1977년부터 도입된 경제개방 정책에 따라 행해진 대폭적인 정책변경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 새로운 정책 역시 재검토 경향에 있으며 특히 경제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출이 1987년 이후 신장하고 있다. 특히 1988년부터 시작된 공공투자 5개년계획에서는 농업개발, 경제인프라(에너지 개발, 운수관련 분야)의 정비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데 사회인프라 정비 대상분야로는 교육, 보건의료분야가 중시되고 있다.

나. 빈곤대책

1) 식량보조금 정책

스리랑카정부는 1942년 이후 전 인구를 대상으로 농산물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식량보조금 정책을 실시하여 주식인 쌀과 기타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왔다. 그 결과 식량보조금 정책은 30여년 동안 많은 빈곤층을 기아와 빈곤에서 구제하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그후 급속한 인구증가, 국제시장에서의 쌀가격 상승 등에 의해 보조금 총액이 정부예산의 20%를 넘게 되었으며 보조금제도에 의해 쌀가격이 억제되고 있는데 대한 농민의 불만 등으로 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져 끝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2) 식량배급표 발부계획 (Food Stamp Scheme)

식량보조금 정책 종료 후 1979년에는 지원대상을 보다 좁힌 식량배급표

발급계획이 도입되었다. 수혜대상은 세대당 수입이 세대인구 5인 이하 기준 月收 3백루피 이하인 경우 또는 그 이상의 가족을 가진 세대인 경우에는 1인당 평균수입이 60루피 이하의 월수입을 갖는 빈곤세대로 되어 있으며 식량지원규모는 연령에 따라 25루피(8세이하), 20루피(8~12세), 15루피(12세이상) 상당이다.

식량배급표계획에 대한 전국 규모의 평가조사(15,560세대, 1981)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세대의 10%가 식량을 보조받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식량보조를 받는 세대의 30%가 수입을 과소신고하여 지원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식량배급표를 통한 지원이 빈곤층세대 수입의 50% 상당을 차지, 이것이 빈곤층에게 있어서 중요한 보조수입원이 되었으며 이 계획이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계획당초 GDP의 5%를 차지하던 식량보조금 지원규모가 同보조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토록 한 정부의 据置方針에 따라 최근에는 GDP의 1%로 까지 축소되었으며 더우기 인플레이의 진행으로 인하여 식량배급표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여 1986년 7월에는 계획 당시의 농의 구매력에 불과하는 등 그 실효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무료급식제도(BUN AND MILK PROGRAMME)

종래부터 스리랑카에서는 전국의 국민학교학생 170만명에 대해 학교급식이 실시되어 왔으며 하루 약 200~400 칼로리 정도의 무료급식이 제공되었는데 이 제도는 1989년 4월, 확대·개선되어 전국의 4세~19세 학생 약 400만명을 대상으로 쌀, 豆類, 乾漁物, 달걀공급 등을 추가한 약 600~800 칼로리로 상향조정되었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인력자원개발 뿐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는 각 지역에서의 급식수요창출을

통한 농림수산업분야의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빈곤퇴치계획 (자나사비아=사람들의 힘)

1989년도 스리랑카정부 예산에는 식량배급표계획을 위한 1,200만 루피의 추가예산과 1,100만 루피로 추산되는 국민학교학생에 대한 무료급식계획 및 새로이 7,300만 루피가 계상된 "자나사비아계획"이 포함되어 同계획예산 총액이 100억루피를 상회하였다.

자나사비아계획에 따르면 계획의 수혜대상으로 선발된 빈곤층은 매월 2,500루피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중 1,458루피는 생필품의 구입을 위해 티켓으로 발부되며, 나머지 1,042루피는 계획기간인 2년간 저축으로 돌려지는 부분이다. 저축 부분은 NSB(National Saving Bank)에 불입되며 24개월 후에 수급자에게 환급되어 여러가지 자영사업에 투자된다.

생활소모품 부분(1,458루피)은 대별하여 2종류의 티켓으로 구성된다. 우선 1,000루피는 쌀, 소맥, 설탕, 우유, 건어물, 잡곡, 의류, 등유, 학용품, 어망 등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배당되며 이는 전국 약 10,000개소에 설치된 배급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남은 458루피는 수혜자 자신의 판단으로 저축을 늘리거나 생활필수품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스리랑카 정책기획·실시성이 1989년 4월에 밝힌 자나사비아계획을 통해 기대되는 사항과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분에서의 고용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수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 계획을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과 加工産業의 성장은 중장기적 성장목표에 부합한 적절한 목표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한 고용효과는 취업인구의 증가치를 포용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2. 단·중기적으로는 공공부분의 개발은 농업분야 및 農外고용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여러정책에 의해 촉진될 것이나, 同계획을 통해 도시 및 농촌 私경제부분의 10인 이하 고용사업장의 확대 및 빈곤층의 자영(Self-Employment)기회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3. 사회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上記 2에서 언급한 농업 및 農外분야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 私경제부분에서의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용기회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자나사비아 계획의 배경과 문제점

1) 실시 배경

1988년 출범한 프레마타사정권은 선거공약으로서 빈곤퇴치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를 구체화 한 자나사비아法案은 同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후의 경제정책성명(정책기획성 1988년 5월 발표)에서도 "고용상태의 개선은 긴급을 요하는 정부의 관심사이며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 배경으로는 1983년 이후 민족분쟁으로 악화된 사회·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 120만에 이르는 실업인구에 대한 대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사회혼란의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는 인식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력낭비와 사회불안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이 정책은 직접적으로는 과거 10년간 실질적으로 소홀히 해 온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상태의 개선 및 빈곤층의 고용확대를 당면과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同정권은 자나사비아계획을 통해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 보건상태 개선, 고용촉진, 실업층 감소, 소비와 수요의 확대, 새로운 시장의 창설, 생산활동의 활성화, 투자촉진, 인플레이억제, 나아가 협동조합설립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증진, 협동조합 활동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同계획은 대상 빈민세대에 대한 매월 2,500루피 지급과 빈민층을 위한 고용창출을 계획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종래 상위 카스트출신으로서 영어교육을 받은 지도자가 영국을 모델로 정책을 추진해 온데 반해 빈곤퇴치문제와 같이 주민의 자조노력을 통한 생활상태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하층민 자신이 이니시어티브를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방 원조국에 대해서도 마하웰리 개발계획과 같은 대규모의 기념비적 원조가 아닌 빈곤을 없애기 위한 同계획에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2) 계획의 문제점

프레마다사정권은 1989년도에 同계획 예산으로 경상지출예산의 17%, 세출총액의 10%에 해당하는 100억루피를 계상했는데 이는 여러 경제학자, 관료, 은행 등의 비판을 받았으며 IMF, 세계은행의 강한 권고에 의해 계획을 축소, 1989년 10월부터 同계획은 일부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同계획의 문제점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 a. 대상 빈민세대의 선발기준이 애매하다는 점
- b. 월 2,500루피라는 보조금의 근거가 애매함. 이는 국내 임금수준으로 보면 너무 높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상승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 c. 수혜자와 비수혜자 사이에 사회적 불공정이 존재하는 점. 자나사비아 법안 성립 후 이미 정부에서는 전국의 식량배급표 수급세대(230만세대)에 대해서 자격증명서를 발행하였으며 이 중에서 대상세대를 선발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각 지역에 맡겨져 있는 대상자 선발과정에서의 부정이 예상된다. 예컨대 월수 700루피의 수혜자와 월수 800루피의 비수혜자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d. 2년으로 한정된 계획으로는 장기간을 요하는 빈곤해결책으로 부적절함.

e. 同계획 이후 빈곤에 빠진 세대에 대한 구제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f. 강제저축분 25,000루피로 고용확보(자영)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

이외에도 빈곤층이 생산활동을 확대하는데 실패했을 경우 화폐공급량의 증가와 화폐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등 同계획이 단순히 소비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재정적자 체질의 개선이 늦어지게 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 어쨌든 이 계획은 사회개발운동적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다.

3) 원조기관(세계은행)과 자나사비아계획

스리랑카정부는 구조조정계획에 큰 관심을 갖고 그 실시를 통해 同國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IMF/세계은행과 同계획의 실시를 둘러싼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원조기관도 비슷한 관심과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1989년 2월 세계은행은 스리랑카 정부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適合性 관점에서 자나사비아계획의 재편을 요청함과 동시에 보다 생산적인 내용의 빈곤대책계획 수립과 그 실시에 관해 원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세계은행은 세계은행이 용자하는 계획의 경우에 빈곤층이 자영업(Self-Employment)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a. 農外고용기회 증대 및 가내수공업 개발을 목적으로 小農이나 貧農이 사용할 수 있도록 NGO가 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금융분야

모색

- b. 자영(Self-Employment)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이나 제도금융과 결합된 영양상태개선 계획 추진
- c. 직업훈련, 소규모 상공업 육성
- d. 종합농촌개발계획의 개편 및 확대
- e. 농촌실업대책 강구
- f. 실업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계획 실시

이에 대해 스리랑카정부는 세계은행의 권고를 고려, 빈곤퇴치관련 향후의 대책을 정리한 "빈곤퇴치 및 고용촉진계획"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 빈곤퇴치 정책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

- a) 빈곤층의 실태파악, 빈곤의 종류 및 원인규명
- b) 과거의 정부빈민대책 및 관련정책과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 c) 빈곤퇴치관련 NGO활동 파악
- d) 농업분야로의 고용흡수방안 강구
- e)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 개발·육성방안 강구
- f)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제도 도입

이외에도 말단 행정기관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기관의 설치 등 본격적인 빈곤퇴치전략 작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4) 계획의 실시관련 기관

자나사비아 계획은 이미 서술한 대로 1989년 10월 이후 당초계획을 대폭 축소한 형태로 일부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향후 본격적인 빈곤퇴치 전략으로 확대, 지금까지의 빈곤퇴치 관련사업을 통합해가면서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 조직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 계획 관련기관은 다음과 같다.

주	관		정책기획 · 실시	省							
자	금	담	당		재무	省					
수	혜	자	격	인	정		행정 · 주의회 · 내무	省			
인	정	서	교	무		노동 · 복지	省				
구	입	물	자	조	달	·	분	배		농업 · 식량 · 협동조합	省
직	원	연	수		행정 · 주의회 · 내무	省					
고	용	문	제		청년 · 스포츠	省					
토	지	공	급		토지 · 관개 · 마하웰리 개발계획	省					

3.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WID : Women in Development)

가. 여성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인식

스리랑카 여성은 1978년에 제정된 법률(헌법조항)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가 주어져 있으나 현실적으로 남성우위의 스리랑카사회에서 많은 경우, 여성은 전통적으로 차별적지위를 감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틀 안에서의 생활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남녀의 사회적평등이나 남성이 향수하고 있는 제 권리가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여성에게도 향수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농촌여성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여성局(WOMEN'S BUREAU OF SRILANKA)은 1986년/87년에 실시한 조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먼저 여성들은 스리랑카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었고 그것이 여성의 인생을 보다 가치있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인식의 변화가 여전히 현실의 사회적인 틀 안에서 제약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로는 이미 53%의 여성이 사회적 변화에 전향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인터뷰에 응한 48.5%의 여성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설치한 정부기관 "여성局(Women's

Bureau of SriLanka)"의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처럼 단순히 일상생활의 필요에서 뿐만 아니라 인권의식에 기초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경제적 자유·권익보장을 요구하는 소리는 스리랑카의 여성사이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1) 여성의 노동과 고용

스리랑카는 그 인구의 70%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국가이다. 농촌여성은 농업분야에서는 남성에 대한 협동 생산자이지만 임금노동자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농촌여성은 가사, 가축사육, 빨감채취, 어린이 양육, 가계운영, 집주변 채소발판리 등에 흡사되고 있으나 이는 생산에 관계된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지위에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표 Ⅲ - 36 직업별, 남녀별 고용인구구성(단위/千人)

직업	취업인구		남자 취업자		여자 취업자		남여비 (%)	
	인구	%	인구	%	인구	%	남	여
전문, 기술직	246.4	6	130.4	4.0	116.1	13.3	53	47
행정관리직	33.7	0.8	30.4	0.9	3.3	0.4	90	10
사무관리직	257.4	6.2	199.4	6.1	58.1	6.7	77	23
영업직	315.7	7.7	291.6	9.0	24.1	2.8	92	8
서비스업	235.2	5.7	190.0	5.8	45.2	5.2	81	19
농림업 기타	3030.9	73.6	2406.7	74.0	624.1	71.7	75	25

자료 : Population Census-1981/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1945년 독립 이후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얻고 있으며 과거 40년간의 사회개발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지대했다. 1981년 통계로는 국민학교 진학율이 남성 83.7%, 여성 83.6%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의 識字率이 86%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사회적 편견과 舊習이 여전히 여성 교육과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술교육, 과학교육 등에서 여성을 소외시키고 있다. 또한 직종선택, 임금, 지위 등 모든 면에서 남녀간 차별이 존재하는 바, 이는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실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984년 노동省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인구는 전체 취업인구의 36%에 불과하고 더우기 그 중 74%는 단순노동자나 미숙련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다.

표 Ⅲ-3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71년~1981년 사이에 개선되고 있다고는 해도 남녀간 취업기회 격차는 여전하다. 한편 1981년에 실시된 스리랑카 중앙은행 소비생활조사에서는 농촌지역 실업여성의 31%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이며 45%는 중학교 수료자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농촌여성 실업자 중에서 고등교육 수료자가 많은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표 Ⅲ - 37 중 · 상급직종에서의 여성취업상황 변화/남여비교

직 종	여성 취업 인구(人)		여성 1인당 남성취업자	
	1971	1981	1971	1981
의사	738	1,220	5.4	3.1
치과 의사	55	104	5.6	1.9
수화기	12	39	14.1	5.0
회계사	109	1,018	24.9	5.8
기술자	31	235	88.2	25.5
법률가	114	544	18.4	5.1
변호사	102	435	19.1	5.2
대학 · 고교 교사	229	694	4.3	2.4
정부 직원	492	345	14.2	8.3
건축가	18	64	13.9	6.4
과학자	17	30	5.6	4.6
교사	55,744	83,870	0.9	0.7
간호사	6,866	10,081	0.1	0.1
타 이 피 스트	4,698	12,475	0.8	0.3
사무 직원	9,457	58,071	8.3	3.4

자료 : Population Cesus 1971 & 1981

표 Ⅲ - 38 여성취업자의 교육수준 변화

교육수준	1971년		1981년	
	人 數	%	人 數	%
무 학	361,065	44.5	217,439	25.0
국 민 학 교 졸 업	243,934	30.0	71,807	8.2
중 학 교 졸 업	132,047	16.3	260,488	29.9
고 등 학 교 졸 업	65,944	8.1	256,471	29.4
대 학 졸 업	7,490	0.9	32,282	3.7

자료 : 上 同

이상 본 바와 같이 스리랑카 여성은 노동과 고용에 있어 남성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들 여성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여부는 향후의 사회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2) 농촌지역에서의 여성취업 실태와 의식의 변화

스리랑카 통계국의 발표에서는 여성의 16%가 취업노동인구이며 79%는 "실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失業女性은 家事活動을 통해 실제 가족을 위한 수익활동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漁夫의 가정에서 여성은 건어물을 가공하여 팔고 있으며 어획용 밧줄을 짜거나 어망을 수리하고 있다. 또한 농촌여성은 그들 주변의 채소밭을 관리하고 생산물을 팔며 농업노동자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많은 여성이 그들 자신의 收入源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의 수입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여성의 34%가 은행에 예금구좌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이 스스로 수입의 기회를 갖고 그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새로운 경향으로서 주목할 만 하다. 가정外에서의 취업에 대한 기대는 어느 연령층을 막론하고 크며 많은 여성이 그러한

취업기회를 원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여성 중 39.5%가 현재의 좁은 취업기회에 만족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60세 이상의 여성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고용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여성들을 위한 연수·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까지도 증대시키고 있다.

표 Ⅲ - 39 질문 : 남성만이 취업하고 여성은 가정내에 남아야 하는가?

답	변	응 답 자 수	%
그 령 다		504	26
그 령 지 않 다		1,203	59
판단하기 어렵다		106	5
생각한적 없다		190	9
합	계	2,042	100

자료 : WBSL, 1986/87

家庭内 分業에 관해서도 본 조사는 흥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표Ⅲ-39).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만이 밖에서 일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도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64.8%의 여성이 남편과 협동하여 가사를 처리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처럼 스리랑카 농촌지역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변화하고 있으며 남성주도형에서 협동형으로 변화하고 있음과 동시에 여성이 생산직에 종사할 기회가 많아지고 여성에 대한 잠재적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자각하고 있는데 표Ⅲ-40은 많은 여성이 생활의 향상을 교육과 관련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 - 40 질문 :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이 유	응 답 자 수	%
학문탐구	463	35.0
보다 좋은 취업기회를 얻기 위해	535	40.7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262	20.5
노후생활 안녕(부모)	18	1.3
기 타	34	2.5

자료 : 上 同

또한 스리랑카의 1946년 이후 다음 통계가 보여주듯 결혼연령 상승이 눈에 띈다. 조사결과로는 18~19세 여성의 43%가 배우자선택을 자신이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과거의 종교나 신분위주가 아닌 수입과 인간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대답하고 있다.

표 Ⅲ - 41 결혼연령의 추이

년 도	남 성	여 성
1946	27.0	20.7
1953	27.2	20.9
1963	27.9	22.1
1971	28.0	23.5
1981	27.9	24.4

자료 : 上 同

3) 가족계획과 가정보건

스리랑카는 독립 이후 계속된 스리랑카정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보건,

의료수준은 비교적 높다. 오늘날 PHC (Public Health Care) 활동은 스리랑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家族計劃과 家庭保健分野는 중앙정부와 NGO의 충분한 협의하에 여성과 자녀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상여성의 66%가 몇가지 피임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33%는 이를 실천하고 있고 장래 2~3인의 자녀 수를 희망하고 있는 등 이러한 핵가족 및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치활동 참가

1931년 스리랑카에 보통선거제도가 제정된 이후 여성도 남성과 같이 법적으로는 정치참여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거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교육의 보급과 여성의 정치참여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예컨대 5년~9년 정도 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는 보다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잠재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나. 여성의 지위향상과 개발을 위한 과제

1) 여성고용 창출

전술한대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대한 인식 또는 결혼관이나 가정내에서의 남편과의 분업의식은 인구의 대부분이 사는 농촌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농촌지역 여성의 강한 의욕은 주목할 만 하다.

이와 같은 스리랑카 여성의 사회참여욕구 가운데 특히 최근의 사회정세속에서 구체화 되고 있는 취업에 대한 의욕은 농업분야 또는 공업분야에서의 기술훈련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남성과의

경쟁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한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스리랑카에 있어서의 여성취업기회의 창출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기술훈련
기회의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경제환경 개발프로그램으
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도시지역 여성취업을 위한 과제

최근 도시지역에서 아동이 딸린 여성의 취업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아교육시설 및 유아교육 커리큘럼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이는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 하는 과정에서 근로여성의 권리로서 사회적으로 충족되어
야 할 것이다.

현재 0세에서 5세까지를 대상으로 계획실시省 아동局(The Children's
Secretariat of the Ministry of Plan Implimentation)에서 유아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많은 NGO가 참가하고 있다.

3) 기타 과제

이미 女性局이 주목하고 있는 바와 같이 輸出加工區와 같은 새로운
노동환경(여기서는 일체의 노동쟁의가 허용되지 않음) 하에 있는 여성근로자
와 최저한의 시민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인도타밀 여성 등을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문제는 스리랑카의 외교·내정 및 스리랑카
경제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등 미묘한 문제이나 최근 인권문제로
서 대두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다. 정부 담당조직과 기능

스리랑카정부의 여성관련문제 담당기관은 女性局(Women's bureau of Slilanka, Ministry of Women's Affairs and Teaching Hospitals)이다. 여성국은 1978년 기획省에 설치되었으나 그후 1983년 새로 설치된 女性關連問題省에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동사업으로 실시되며 활동분야는 보건, 교육, 노동, 농촌개발, 어업, 청년문제 및 고용, 플랜테이션 기업, 마하웰리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스리랑카는 전국이 24개 行政區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방에서의 여성관련 문제는 각각의 행정구에서 담당, 소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여성局의 기능은 1)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참가와 역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조언을 행하는 일 2) 여성개발 프로젝트에서의 각 지역 여성인력 활용과 외국원조 활용방안 강구 3)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 등이다.

최근 여성局은 여성호주세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Selective Case Studies of Low Income Women's Group Including Women Heads of Households, 1988 / Study of Women Heads Of Households, 1988), 수출가공구 여성노동자에 관한 연구(Study of Women Workers in The Free Trade Zone, 1988), 마하웰리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Development Planning And Gender Inequality, a Case Study in Mahaweli Development Project in Sri Lanka, 1988) 등을 통해 경제개발의 직접, 간접적 영향 하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지위향상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라. NGO와의 연계 강화

여성국은 위에서 서술한대로 각 정부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편 NGO와의 공동작업도 활발하다. 1940년 설립된 NGO인 SLWC (THE SRILANKA WOMEN'S CONFERENCE)는 참가단체간 정보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과 행정서비스의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FPA (THE FAMILY PLANNING ASSOCIATION)나 기타 NGO도 정부의 여성문제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봉사대상층에 밀착한 활동내용이 그 특징인 NGO의 참가와 적극적인 로비가 여성국이 행하는 타기관과의 조정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국은 年 4회, NGO와의 정기적인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기관과 NGO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IV. 부문별동향-산업부문

1. 農 業

1. 개 요

스리랑카의 농업은 전통적 수출상품인 홍차, 고무, 코코넛과 자급적 농산물인 쌀, 豆類가 중심을 이룬다. 스리랑카 인구의 7할 이상이 농촌에 살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농업 및 그 관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78년 수출의 79%를 차지하던 것이 89년에는 39%로 줄어 들었으며 對GDP비율도 25%에서 23%로 하락하였으나 농업은 여전히 이 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스리랑카의 토지이용은 강우패턴과 標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강우량의 다소에 따라 습윤지대(섬의 중앙부~남서부, 년강수량 1,875mm 이상)와 건조지대(북부-동부, 년강수량 1,875mm 이하)로 나뉘지며 습윤지대에서는 쌀의 2모작, 건조지대에서는 우기에 쌀, 건기에는 豆類, 고추, 양파 등의 밭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중앙산지인 누와라에리어(표고: 2,000mm)를 중심으로 홍차 플랜테이션이 발달해 있으며 내륙의 標高가 조금 높은 경사지에는 고무 플랜테이션이, 해안선 근처에는 코코넛 플랜테이션이 발달해 있다.

주요 작물별 재배면적은 水田경작지 85.9만ha, 茶농장 22.2만ha, 고무농장 20만ha, 코코넛농장 41.9만ha 등으로 이들은 국토의 26%를 점하고 있다.

주식인 쌀은 최저생산자 가격보장이나 유통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 영농정책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 재배면적, 단위수량 모두 신장하였으며 생산이 대폭으로 확대, 1986년에는 259만톤에 달하는 등 쌀의 자급체제가 실현되었다. 또한 마하웰리 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관개농지의 확대도

쌀증산에 공헌하고 있다.

기본작물이라 불리우는 홍차, 고무, 코코넛이 GDP 및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들은 여전히 스리랑카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생산량은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데 생산량 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표 IV - 1 기본작물의 비중변화(%)

구 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수출총액	51.0	40.0	52.0	54.7	47.2	40.1	38.2	37.3
세 입	23.0	14.0	14.0	18.0	7.2	3.7	0.04	0.04
국내총생산	12.7	10.9	10.8	11.7	13.4	8.5	9.5	9.5

자료 : Public Investment 1989-93. Min. of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표 IV - 2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억루피, 1982년 불변가격)

구 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농 어 업	261 (25.0%)	284	291	274	280	277 (22.8%)
홍 차	27 (2.6%)	28	27	28	29	27 (2.2%)
고 무	9 (0.8%)	9	9	8	8	7 (0.6%)
코 코 넛	25 (2.4%)	38	39	30	25	32 (2.6%)
쌀	62 (5.9%)	68	66	54	63	53 (4.4%)
기 타	139 (13.3%)	141	150	155	155	158 (13.0%)
합 계	1,044	1,096	1,143	1,159	1,191	1,217

자료 : Annual Report and Review of the Economy, Central Bank of Srilanka

표 IV - 3 산업별 수출액 1978-89(백만 SDR)

구 분	1978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농 업	525 (78.8%)	866	689	480	458	471	478 (39.3%)
홍 차	327 (49.1%)	605	435	281	280	288	296 (24.3%)
고 무	103 (15.5%)	127	93	80	77	87	67 (5.5%)
코 코 너	50 (7.5%)	59	86	49	37	21	42 (3.5%)
기 타	45 (6.7%)	75	75	70	64	75	73 (6.0%)
섬 유 · 화학공업	97 (14.6%)	495	517	481	525	530	617 (50.7%)
보 석 류	44 (6.6%)	71	104	74	97	97	121 (10.0%)
합 계	666 (100%)	1,432	1,310	1,035	1,085	1,098	1,216 (100%)

자료 : 上 同

2. 생산동향

가. 쌀

쌀은 스리랑카인의主食인데 식민지시대에 수출위주의 플랜테이션재배에 치중함으로써 그 생산량이 국내수요에도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미얀마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 왔다. 독립후 스리랑카정부는 쌀의 자급자족을 農政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1980년 초부터 대규모 관개시설에 의한 경작면적의 확대, 다수확품종 도입 및 施肥量의 증가에 의한 단위당 수확량 증대를 통해 쌀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또한 1977년 이후 생산자 보장가격의 인상, 流通·加工의 자유화, 비료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이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 1977년 167만톤이던 쌀 생산이 1984년에는 241만톤에 달하여 쌀의

자급체제가 거의 실현되었다. 단위당 평균수확량도 1982년부터 ha당 3톤을 넘고, 1987년에는 3.5톤에 달하여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쌀 수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쌀품질 향상의 어려움 및 국제 쌀시장으로의 진출상 어려움 등으로 쌀 수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표 IV - 4 쌀의 경작면적, 생산량, 수확량

구 분	1977	1982	1984	1986	1987	1988	1990
재배면적 (千ha)							
전체 파종 면적	828	844	990	898	781	868	857
개량 품종 파종 면적	692	720	915	859	769	850	-
생산자재							
비료 사용량 (천톤)	123	167	187	232	211	215	144
개량종자 사용량(톤)	45	94	152	90	57	108	-
단위 수확량							
Maha	2.6	3.1	3.0	3.6	3.7	3.4	3.5
Yala	2.2	3.3	3.1	3.3	3.4	3.4	3.2
평 균	2.5	3.2	3.1	2.4	3.5	3.4	3.4
생산량 (백만톤)							
Maha	1.14	1.38	1.35	1.68	1.39	1.52	1.64
Yala	0.53	0.79	1.06	0.90	0.73	0.95	0.89
합 계	1.67	2.17	2.41	2.59	2.12	2.47	2.63

자료 : Public Investment 1989-93.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
Ministry of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나. 홍 차

1800년대 영국인에 의한 도입 이후 홍차는 스리랑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물이 되고 있다. 홍차재배지 중 약 65%가 국가 소유의 국영 플랜테이션 公社(State Plantation Corporation : SPC)와 자나타 토지개발청(Janatha Estate Development Board : JEDB)에 의해 경영되고

있으며(14.7만ha) 단위당 경영규모도 크다(190ha). 민간이 경영하는 홍차농장의 재배 면적은 7.6만ha로 그 경영규모는 정부농장에 비해 매우 작다(23ha). 생산량은 1990년의 경우 23.3만톤이며 그 중 22만톤을 수출, 총 수출액의 26%를 점해 스리랑카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65-70년을 정점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바, 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a. 아프리카 신흥 홍차생산국의 진출
- b. 홍차생산 작물(茶나무)의 노후화 및 생산력 저하
- c. 농지개혁의 불완정성 및 농장국유화에 의한 재배관리기술의 취약
- d. 과중한 거래세 및 수출세에 의한 생산의욕의 감퇴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타마시는 홍차보다 1회용 팩으로 포장된 홍차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스리랑카에서는 이에 적합한 품종의 재배면적이 적고 국제시장에의 대응이 늦어져 홍차산업은 점차 그 전통적 시장을 잃어 가고 있다.

표 IV-5 홍차 생산동향

구 분	1984	1986	1987	1988	1990
재배 가능면적(천ha)	228	223	221	222	222
정부 소유	(133)	(147)	n. a	n. a	n. a
민간 소유	(95)	(76)	n. a	n. a	n. a
생산량(천톤)	208	211	213	227	233
수출량(천톤)	204	208	201	220	216
단위수확량(kg/ha)	912	946	964	1,023	n. a
재배면적누계(천ha)	43.4	46.7	48.2	49.8	52.9
옮겨심기비율(%)	19.0	20.9	21.8	22.4	n. a
수출가격(Rs/kg, FOB)	77.2	44.5	53.0	56.0	91.7

자료 : Central Bank of Srilanka, Recent Economic Development of IMF

다. 고무

고무는 홍차에 이는 주요 수출품으로 1991년 수출 총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은 90년의 경우 11.4만톤, 재배면적은 20만ha로 1984년 이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고무재배자 육성계획(Small Holder Rubber Rehabilitaion Project) 및 우량종묘의 보급을 통해 생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IV - 6 고무 생산동향

구 분	1984	1986	1987	1988	1990
재배면적(천ha)	206	203	202	200	199
생산량(천톤)	142	138	122	122	114
수출량(천톤)	126	110	106	99	86
단위당 수확량(kg/ha)	840	919	824	841	779
수출가격(Rs/kg, FOB)	26.2	23.8	27.6	37.3	35.5

자료 : Central Bank of Srilanka, Recent Economic Development of IMF

라. 코코넛

코코넛의 재배는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으며 주로 소규모 농가에 의해서 재배되고 있다. 코코넛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적은데(1991년 2.9%) 이는 코코넛 생산량의 87%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며 코코넛 생산부문이 GDP에서 점하는 비율은 홍차와 비슷하다. (1989년 2.1%, 홍차는 2.5%)

스리랑카의 코코넛 생산량은 한발로 88년의 생산량이 전년비 15% 감소했으며 현재 재배중인 코코넛 작물 중 수령 30년을 넘긴 고목이 많아 그 교체가 향후의 과제가 되고 있다.

표 IV - 7 코코넛 생산동향

구 분	1984	1986	1987	1988	1990
재배 면적(천ha)	416	419	419	419	419
생산량(백만개)	1,984	3,039	2,291	1,936	2,523
수출량(개/ha)	282	1,166	560	237	n. a
수출액(백만루피)	n. a	n. a	n. a	1,538	2,783
수출가격(Rs/천개, FOB)	6,480	1,460	2,640	4,000	3,630

자료 : Central Bank of Srilanka, Recent Economic Development of IMF

마. 밭작물

豆類, 고추, 고구마, 양파 등은 換金性이 높은 작물로 건조지대 및 중간지대의 灌溉가능한 밭 및 水田에서 乾期作物로 재배되고 있다. 최근 민족분쟁에 의해 자후나로 부터의 농산물 출하가 중단되자 이에 대신한 새로운 생산지가 대두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보다 수익성 높은 작물을 재배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으나 농민 대부분이 논농사 이외의 작물재배에 익숙치 않아 생산은 불안정하다.

표 IV - 8 밭작물의 재배면적

구 분	1976	1982	1984	1986	1988	1990
옥 수 수	30.4	44.9	45.7	36.4	50.4	46.4
쿠라칸(香茅)	n. a	20.4	16.0	11.9	11.1	7.4
녹두	8.4	22.2	29.6	24.2	33.5	38.2
팥	5.1	9.9	33.4	10.1	18.2	14.6
참깨	19.0	32.7	5.0	11.5	17.6	17.0
땅콩	6.7	14.4	7.6	10.0	12.5	11.3
대두	0.7	17.4	11.8	6.3	8.3	6.1
고추	43.3	28.4	30.8	39.9	32.7	39.4
양파	7.7	8.2	8.3	8.7	13.2	13.2
토란	15.0	9.1	9.6	6.2	7.4	n. a
감자	2.8	5.7	7.9	7.9	6.6	7.1
합 계	227.7	300.9	275.3	221.8	275.5	n. a

자료 : Public Investment 1989-93,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 Ministry of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바. 기타 수출작물

후추, 커피, 시나몬(향신료의 일종), 코코아 등의 작물은 습윤지대 및 중간지대의 채소농장 또는 소규모농원에서 재배하고 있다. 이들은 대략 수출총액의 6%를 점하고 있으며 현재 施肥法이나 재배관리방법 연구를 통해 생산량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표 IV - 9 기타 수출작물의 수출량 변화(천톤)

구 분	1976	1980	1982	1984	1986	1987	1988
후 추	0.10	0.95	1.30	2.77	1.28	2.02	2.69
시 나 몬	6.80	7.94	6.26	8.89	7.59	7.50	6.81
커피	1.71	0.91	2.92	3.65	2.64	0.85	0.76
코 코 아	1.11	0.90	0.14	0.62	0.68	0.83	0.12
그 로 브	0.48	1.19	0.97	0.97	0.74	0.49	2.26
Areca nut	2.37	5.48	2.41	2.20	1.21	1.58	1.51

자료 : 上 同

사. 설탕

스리랑카의 연간 설탕 소비량이 35만톤임에 비하여 생산량은 5.5만톤에 지나지 않아 설탕수요의 15%밖에 생산되지 않고 있다. 설탕생산은 전국의 6,000~7,000호의 소규모농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스리랑카정부는 향후 1995년까지 설탕생산 규모를 45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IV - 10 설탕생산 및 수입량

구 분	1975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재배면적 (천ha)	5.9	6.0	5.4	5.7	10.0	12.6	10.5
생 산 량 (천톤)	18.0	23.5	22.7	18.7	34.8	55.1	57.1
수 입 량 (천톤)	56	209	134	233	324	319	306

자료 : 上 同

아. 산 림

전 국토의 40%가 산림면적이나 대부분이 건조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티크, 마호가니 등 양질의 林木자원이 있기는 하나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산림적지인 습윤지대는 차, 고무 등의 재배지로 개발되어 있어 용재용 임목생산량은 매우 적다.

현재 스리랑카정부는 산림 기초자료 및 산림분야 전문가의 부족속에서 水源함양림과 연료용 林木의 육성을 중심으로 산림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표 IV - 11 인공림 조성현황

(단위:헥타아르)

수 종	1985	1986	1988	1990	1991
티 크	70,156	70,156	70,535	70,815	71,014
마호가니	20,865	20,865	26,183	26,983	27,422
유 칼 리	37,573	37,573	43,036	44,452	44,823
송 죽	27,646	28,995	30,981	31,363	31,511
기 타	18,489	14,530	18,798	20,379	23,134
계	174,729	174,729	189,533	193,992	197,903

자료 : Statistical Pocket Book of Srilanka 1992

표 IV - 12 산림조성 프로젝트 (Reforestation Programme)

프로젝트	실적(78-88(ha))	목표(89-93)
1) Cooperative Reforestation	27,500	Completed
2) NADSA	2,801	Completed
3) Neglected Tea & Rubber Lands	5,626	160
4) USAID Watershed Management	9,360	Completed
5) USAID Fuel Wood	10,207	Completed
6) Sinharaja M & B Reserve	891	200
7) Community Forestry	8,156	2,700
8) Forest Resources Development	2,658	3,300
9)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4,917	300
10) Reforestation & Development	244	500
11) Forest Sector Development	New	20,000

자료 : Public Investment 1989-93,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
Ministry of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3. 개발 계획

【 공공투자 5개년 계획(1990-94)중 농업부문개요 】

가. 목 표

- a. 기본생필품 자급률 향상(쌀, 생선, 콩, 우유)
- b. 수출증대를 위한 樹木생산 확대
- c. 재배작물의 다양화와 농업의 진흥 및 농민의 수입과 고용기회의 증대

나. 장·단기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부전략

- a. 기존 관개시설의 보수, 수자원·산림 및 기타 자원의 효율적 관리
- b.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강화
- c. 특정지역 농업개발
- d. 농산물유통 기반시설 정비
- e. 농업행정 담당기관 정비

다. 분야별 개발 계획

공공투자 5개년 계획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비율은 17.5%이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마하엘리계획 중 농업관계 분야	6.5%
b. 밭작물, 축산업 개발 분야	3.1%
c. 플랜테이션 개발 분야	2.66%
d. 기타 관개시설 개발 분야	2.57%
e. 토지개발 분야	0.94%
f. 임업개발 분야	0.86%
g. 어업개발 분야	0.88%

4. 농업부문 개발원조 동향

가. 각 원조기관 동향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농림수산업 분야는 對스리랑카 원조 총액의 30%를 점하는 최대의 원조분야이다. 1988년의 실적을 보면 ADB가 최대의 원조 공여기관이며 기타 WFP(세계식량계획), 세계은행, 캐나다, 일본, 네델란드, 미국 등이 주요 원조국이다.

ADB의 주요 프로젝트로서는 국영 플랜테이션 경영합리화계획, 효율적 토지이용 프로그램 및 비료공급 프로그램(비료의 공급과 그 이용에 관한 기술협력)이 有償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캐나다, 네델란드는 농업분야 상품 원조, 세계은행은 樹木作物(茶, 고무, 코코넛) 생산증대, 소규모 고무생산 농가 지원을 주요 프로젝트로 하고 있고 WFP, 미국의 경우에는 마하웰리 개발계획에 대한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NGO로는 CARE(미국)이 内水面 어업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실시하였으며, 아부다비펀드가 어업분야 개발에 대한 자금협력을 실시했다. 일본은 無償資金協力으로 1969-76년 사이에 실시된 6건, 17.45억엔 규모의 식량원조와 1976년부터 식량증산 원조(비료, 농업기계) 및 사탕수수연구소 정비, 植物遺傳 資源센터 건설, 漁港建設, 농촌개발, 식물 검역소건설 등을 실시해 왔다. 또한 마하웰리 개발계획의 경우에는 무상, 유상의 자금협력외에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이 실시되었다. 일본의 농업분야 기술협력실적을 살펴보면 1989년도말 현재 연수생초청이 누계 560명(전 분야의 25%)이며 전문가 파견이 장기, 단기 합쳐서 148명(전 분야의 36%), 협력대원 파견은 63명(전 분야의 27%)에 이르고 있다.

나. 농촌 종합개발계획

스리랑카 정부는 농촌지역의 빈곤퇴치 및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각 원조기관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농촌 종합개발계획(IRDP)을 실시하고 있다.

a. IRDP Ratnapura(사바라가므와州)

1984년 네델란드의 원조로 시작된 이 계획은 1989년 사바라가므와州 농촌개발계획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단의 보고(5-10년 연장이 바람직함)를 받아들여 1993년까지 개발계획을 연장했으며 '90년도까지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농업개발분야 - 灌溉시설 건설, 축산 및 농민훈련 프로그램 실시
- 환경보전분야 - 식목활동지원, 토양보전, 땀감용난로 보급
- 사회복지분야 - 교육, 보건위생분야 지원
- 주거생활분야 - 상수도, 공중보건 개선

b. IRDP Nuwara Eliya(중앙州)

1980년 네델란드의 원조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의 주 대상분야는 산림관리, 농업진흥, 수출작물보급, 보건위생향상, 아동복지개선, 농촌신용, 수력개발, 주택개발, 여성개발 등이며 농민의 수입증대 및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 계획 역시 1989년 이 계획에 대한 평가단의 계획기간 연장권고에 따라 1993년까지 연장했으며 평가단보고에 의한 농촌의 주요 문제점으로 地力劣化, 耕地의 低生産性, 영양상태 불량, 빈약한 농민의 소득 등이 거론되었다.

c. IRDP Kegalle(사바라가므와州)

1986년 IFAD(국제농업개발기금)의 원조로 시작됐으며 주 대상분야는

소규모 수출작물 개발, 小農의 홍차재배 지원, 농촌신용 프로그램 실시, 소규모 관개시설 보수 등이며 이외에 농업용 도로의 복구, 식수공급, 농촌공업개발, 농민에 대한 교육시설공여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다.

d. IRDP Badulla(와라州)

1983년 IFAD, SIDA의 원조로 시작했으며 IFAD는 농업(소규모 수출작물, 소규모 영농, 관개등), SIDA(스웨덴 국제개발공사)는 교육, 보건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IFAD의 원조는 1992년까지 연장되었다.

e. IRDP Kandy(중양州)

1986년 GTZ(독일기술협력공사)의 원조로 시작된 이 원조프로그램에는 프로젝트·인프라의 정비, 프로젝트·스텝에 대한 훈련, 참가형 접근법에 대한 실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얻어진 경험 및 정보를 토대로 향후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f. IRDP Matara(남가州)

1979년 SIDA의 원조로 시작된 이 원조프로그램은 1단계(1979~84)에서 스리랑카정부에 의해 실시된 농촌개발프로젝트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 수산업, 축산업, 보건의료, 교육, 소규모 홍차재배업, 도로건설, 전력보급 등 여러분야를 지원하였다. 또한 2단계(1984~88) 원조프로그램에서는 주민참가형 Tarket Group Approach 기법을 채택하여 목표가 되는 주민의 전체적인 생활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원조 3단계(1989~92)에서는 1, 2단계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이외에도 1985년부터 서부州的 감파에서 일본의 원조에 의해 Gampaha IBRD가 시행되었으며 IRDP Moneragala(우와州), IRDP Hambantota(남부州), IRDP Kalutara(서부州) 등 각종 농촌개발프로그램이 외국원조에 의해 진행되었다.

2. 수 산 업

1. 개 요

가. 경제에의 공헌도

水産業분야는 스리랑카 GDP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은 1977년 10.7kg에서 1988년에는 17.5kg으로 증가했는데 현재 스리랑카 국민이 섭취하는 동물단백질의 65%를 공급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고용측면에서 보면 1989년의 경우 專業者 96,000명, 부분종사자 10,000명, 수산물 관련 기업종사자 5,000명 등 합계 11만명이 수산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에는 새우수출을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여 수출액이 1985년 453.6백만루피에서 1990년에는 825백만루피로 증가했다.

나. 어업 현황

스리랑카 연해의 대륙붕은 평균폭이 22km로 비교적 협소하며 면적도 2.7km²에 불과하나 이곳의 어획량은 스리랑카 전체 어획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통계를 보면 연안어업의 어획량은 159천톤이며 원양어업은 15천톤, 내수면어업이 23.8천톤 등 연간 어획량이 약 198천톤에 이르고 있다. 어획량은 한때 220천톤(1983)에 달한 적이 있으나 치안정세의 악화 등으로 북동부지역 및 남부지역에서의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다.

생선은 대부분 날고기로 소비되지만 이중 15%는 건조식품으로 팔리고 있다. 魚船數는 총 27,800척이며 이중 無動力船 12,940척, 動力船 14,669척, 3.5톤이상 어선은 184척이다.

표 IV - 13 년별 어획량(톤)

년 도	沿 岸	遠 洋	内 水 面	計
1980	165,264	2,148	20,266	187,678
1982	182,532	1,078	33,323	216,933
1984	136,642	823	31,882	169,347
1986	144,266	3,400	35,390	183,056
1988	155,099	4,425	38,012	197,536
1989	157,411	8,155	39,720	205,286
1990	134,132	11,666	31,265	177,063
1991	159,151	15,080	23,832	198,063

자료 : Central Bank of Srilanka, 1992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2. 수산자원 전망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륙붕의 수산자원은 25만톤이며, 이중 浮魚가 17만톤, 深海魚가 8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浮魚 어획분야는 대부분 개발되어 있고 深海魚 어획분야는 아직 개발의 여지가 있다. 遠洋漁業은 주로 참치, 청새치, 상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7~9만톤 정도의 어획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수면어업의 경우는 16.3만ha의 자연호수와 10만ha의 계절적 임시호수 및 12만ha 규모의 저수지, 하천 등이 있으며 이들 수자원을 이용한 양식가능성은 매우 크다.

3. 수산업진흥 5개년계획(1990-94)

가. 개 요

스리랑카정부가 발표한 5개년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수산물 소비량은

년간 1인당 17.52kg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스리랑카의 인구 및 소득신장을 고려하여 同정부는 수산물 수요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표 IV - 14 수산물수요 전망

년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인 구(백만인)	17.6	17.9	18.2	18.5	18.8
수산물수요(천톤)	308	313	319	324	329

자료 : National Fisheries Development Plan(1990-94)

이와 같이 수산물 수요량이 국내수산물 생산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산부문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표 IV - 15 수산자원분야 무역수지 현황(백만루피)

년 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수 입	756.1	838.9	956.5	1137.02	1,320	1,739	2,090
수 출	453.6	608.5	576.2	825.0	930.6	1,200	1,387.1
적 자	292.5	232.5	380.3	812.0	389.4	539	702.9

자료 : Central Bank of Srilanka, 1992

나. 수산업진흥 5개년계획

스리랑카정부가 발표한 수산업분야 5개년개발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어획량 증대를 통해 국민 1인당 수산물소비량을 증대시켜 영양수준을 향상시킨다.
- 이를 위해 최신의 기술을 이용, 합리적인 수산자원의 이용을 도모한다.

- c. 빈곤한 영세어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 d. 고용기회를 증대시킨다.
- e. 수산물의 수출증대를 도모한다.

구체적 어획량 증대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IV - 16 어획 목표(천톤)

년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沿	岸	147.6	153.5	153.7	166.1	172.7
遠	洋	26.0	27.5	29.0	30.5	32.0
内	水	6.0	9.0	12.0	15.0	18.0
近	海	39.7	42.1	44.5	47.1	50.0
계		219.3	232.2	245.3	258.7	272.2

자료 : National Fisheries Development Plan(1990-94)

이 목표대로 달성된다면 스리랑카의 수산물 자급율은 1990년의 71%에서 1994년에는 83%가 된다. 한편 수산분야 수출은 새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되어 있다.

표 IV - 17 수산물 수출목표(백만루피)

년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천	연 새 우	471	581	570	627	690
양	식 새 우	720	810	900	1,044	1,252
바	다 가 재	119	125	131	137	144
관	계	27	27	27	27	27
상	어	80	95	110	138	172
기	타	124	124	124	124	124
계		1,536	1,690	1,852	2,097	2,409

자료 : National Fisheries Development Plan(1990-94)

고용측면에서는 5년간 어선의 근대화와 새우양식의 확대를 통해 약 34,000명의 고용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어민을 대상으로 조합을 결성토록하여 보다 효율적인 어업경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4. 원조기관 동향

수산업진흥 5개년계획이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현재 ADB와 FAO가 협력하여 수산분야 민간기업 육성, 효율적인 5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능 강화, 수산업의 근대화 및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래의 투자 프로젝트와 기술협력분야도 명확히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은 그 결과를 토대로 5개년계획의 틀 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공 업

1. 概 要

스리랑카의 工業化는 영국의 식민지 경제체제 하에서 홍차, 고무, 코코넛 등의 농산물가공 수출산업을 시점으로 출발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물자수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공업화가 촉진되었다.

1948년 스리랑카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였으나 독립 후에도 식민지형 단순 경제구조에 큰 변화는 없었다.

1956년 스리랑카정부가 발표한 輸入代替産業 육성정책이 공식적으로 스리랑카정부가 공업화정책을 시도한 최초의 것이다. 이 정책을 통해 국가간산업(주로 철광업, 화학공업, 시멘트·비료 등 중화학공업)은 정부기업에, 경공업(주로 피혁, 식물기름, 요업, 섬유소비재산업 등)은 민간기업에 맡기는 경제운영 방향이 정해졌다. 그러나 輸入代替産業 육성을 위한 국내시장보호 위주의 공업화정책은 국내 유효수요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익했지만 국내산업 보호정책의 결과, 국제경쟁력을 잃은 산업분야가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더우기 1956년 사회주의 성향의 경제정책 하에 당시 외국자본이 경영하던 플랜테이션, 운수·보험회사, 은행 등이 국유화되었으며 이러한 국유화조치는 당시 민족주의의 세계적 대두에 따라 입안된 국유화촉진법을 통해서 중소기업 업종(섬유, 요업, 신문 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국유화정책은 민간부문의 투자욕을 감퇴시켜 자본의 해외도피를 유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산업전체의 활력을 잃게 했다.

이러한 가운데 1977년 탄생한 통일국민당 자야와르테네정권은 공업화정책을 대폭 개혁하여 열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공업화를 목표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농산물(홍차, 고무, 코코넛)에 대한 輸出稅를 종전의 40-50%(1978)에서 10-20%수준(1987)으로 경감시키고 관세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에 노력했다. 또한 콜롬보 주변에 輸出加工區를 만들어 전통적 수출품(차, 고무, 코코넛 : 취업인구 50만) 외에 비전통적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질 좋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비교우위 산업(섬유, 봉제, 요업산업 등)의 급속한 성장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정부계 공기업의 비효율성(민간부문 성장을 11%, 정부기업 성장을 마이너스 1%, 1988년) 등 1977년 이전의 사회주의적 정책 하에서 세워진 공업화정책이 당시까지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1989년 등장한 프레마다사정권은 정부기업의 민영화를 중시하여 대상이 된 48개사 중 11개사를 민영화(92년 현재) 하였으며 남은 37개사도 세계은행, UNDP 등의 지원을 받아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輸出加工區의 성공적 운영에 영향을 받아 스리랑카정부는 91년 6월부터 남부 코갈라지 지역에서 제3의 輸出加工區설치를 ADB의 지원 하에 추진 중에 있다.

2. 발전단계와 산업구조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공업발전 정도는 GDP에서 차지하는 공업부분 비율의 時系列的 變化와 그 취업인구 비율의 변천추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리랑카의 공업발전단계를 GDP에서 工業이 차지하

는 비율과 製造業비율을 비교해 살펴보면 공업은 21%(1965)에서 26%(1990)로 신장하였고 제조업은 17%(1968)에서 15%(1990)로 2% 감소하여 다른 아세안국가들이 양쪽 모두 대폭 증가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년평균 성장율은 기간을 1965-80, 1980-90년으로 나눠 살펴보면 공업부문은 4.7%에서 4.6%로 약간 감소했으나 제조업부문은 3.2%에서 6.3%로 거의 2배 증가하고 있다. 한편 취업인구의 변화를 제조업과 鑛業부분으로 나눠 살펴보면 1981년과 1985/86년 기간 중 제조업은 전체 취업인구의 9.9%에서 12.7%로, 鑛業은 0.8%에서 1.3%로 신장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제조업 취업인구는 전체 제조업 취업인구의 2.3%에서 18.6%로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중 농업부문 여성 취업인구 역시 11.1%에서 54.2%로 증가하여 여성 취업기회의 대폭적인 확대(절대수 87만명에서 155만명으로 증가)경향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질적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 - 18 업종별 구성비 변화(%)

구 분	1965	1990
농 립 수 산 업	28	26
공 공 업	21	26
제 조 업	17	15
서 비 스 업	51	48
합 계 (GDP)	100	100

자료 :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World Bank

표 IV - 19 업종별 성장률 추이 (%)

구 분	1965 ~ 1980	1980 ~ 1990
농 립 수 산 업	-2.0	2.3
공 조 업	4.7	4.6
제 비 업	3.2	6.3
서 스 업	4.6	4.7
합 계 (GDP)	2.1	1.4

자료 : 上 同

표 IV - 20 아세안 및 남아시아 제국의 제조업비율 변화

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비율		差 異 (%)	1인당 GNP (\$) 1990년
	1965년	1990년		
(고 소득국)				
싱가포르	15	29	14	11,160
(중 소득국)				
말레이시아	9	25	16	2,320
태 국	14	26	12	1,420
필 리 핀	20	25	5	730
(저 소득국)				
인도네시아	8	20	12	570
파 키 스 탄	14	17	3	380
인 도	16	19	3	350
방글라데시	5	9	4	210

자료 : 上 同

여기서 제조업 제품별 부가가치구성비의 년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섬유, 의류, 피혁제품은 1981년 8.5%에서 1986년에는 19.4%로 2배 이상 신장하였으며 1989년에는 24.8%로 3배에 달하고 있다(표 IV-21 참조).

반면에, 제조업의 최대 부가가치 생산물인 전통적 農産加工品(홍차,

고무, 코코넛) 항목은 1985년의 46.1%를 頂点으로 하락하기 시작, 1989년에는 39.1%로 떨어졌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전통적 수출품(홍차, 고무, 코코넛)의 지위는 1940년대의 독점적 지위(100%)에서 현재 약 30%로 그 비중이 떨어졌다.

이를 대체하고 상대적으로 부상한 것이 섬유, 봉제, 의류 등 노동집약형 산업(수출가공구에서만 外國系 40社를 포함, 약 500개社, 고용인구 여성노동자 50만) 제품이며 1986년 이후 수출액 제1위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수출용 의류의 원재료 수입이 계속 늘어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가가치로 보면 이 부문은 홍차에 이어 제2위에 있다.

한편 공업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계, 수송기기류 수입율은 27%로 개도국평균 29.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寶石·裝飾産業은 옛부터 자원활용형 산업으로 발전해 왔는데 가공도가 낮은 상태로 수출해 온 점을 개선, 금·은·다이아몬드 등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스리랑카산 보석과 셋트화 함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사업도 진행중이다.

石油化學部問은 공기업인 실론石油公社에 의한 石油製品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1980년대 초에는 이 부문의 생산액이 전 제조업 생산액의 50%,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990년에는 각각 25%, 18%로 크게 하락했다. 원료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석유제품은 소규모 이지만(48백만 SDR, 1989) 수출도 하고 있다.

이러한 스리랑카공업 전체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결론지으면 農産物加工産業과 섬유, 봉제 등으로 대표되는 勞動集約的 輕工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初期 工業化段階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5단계의 경제발전 단계로 나누어보면 아래에서 2번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21 제조업 부가가치액구성비 변화

(단위 : 백만루피, ()안 %)

항목 \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식료, 음료, 담배	1,793 (36.6)	1,891 (31.4)	2,259 (33.4)	3,276 (41.0)	4,816 (43.2)	6,166 (46.1)	6,850 (42.8)	7,194 (38.9)	8,225 (39.1)	10,432 (43.0)
섬유, 의류, 피혁제품	382 (7.8)	513 (8.5)	488 (7.2)	759 (9.5)	1,344 (12.0)	2,594 (19.4)	3,104 (19.4)	4,409 (23.8)	4,792 (22.7)	6,029 (24.8)
목재, 나무제품 (가구 포함)	165 (3.4)	169 (2.8)	134 (2.0)	284 (3.6)	360 (3.2)	420 (3.1)	393 (2.4)	408 (2.2)	463 (2.2)	448 (1.8)
종이, 종이 제품	305 (6.3)	264 (4.4)	257 (3.8)	388 (4.9)	399 (3.6)	543 (4.1)	626 (3.9)	692 (3.7)	751 (3.6)	698 (2.9)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프라스틱 제품	1,249 (25.5)	2,098 (34.8)	1,927 (28.5)	1,608 (20.1)	2,147 (19.2)	1,402 (10.5)	2,705 (16.9)	3,371 (18.2)	3,827 (18.2)	3,054 (12.6)
비금속 제품	608 (12.4)	593 (9.8)	862 (12.8)	866 (10.8)	1,072 (9.6)	1,089 (8.1)	1,117 (7.0)	1,104 (6.0)	1,308 (6.2)	1,249 (5.1)
기초금속 제품	80 (1.6)	80 (1.3)	14 (0.2)	81 (1.0)	21 (0.2)	-63 (0.5)	37 (0.2)	49 (0.3)	71 (0.3)	55 (0.2)
금속제품, 기계, 수송기기	297 (6.1)	406 (6.7)	790 (11.7)	684 (8.6)	946 (8.5)	1,055 (7.9)	1,116 (7.0)	1,204 (6.5)	1,518 (7.2)	2,204 (9.1)
기 타	12 (0.2)	16 (0.3)	29 (0.4)	41 (0.5)	41 (0.5)	52 (0.3)	71 (0.4)	82 (0.4)	90 (0.5)	96 (0.5)
합 계	4,893	6,030	6,760	7,987	11,158	13,366	16,019	18,503	21,050	24,265

자료 : 스리랑카 중앙은행 연보

3. 공업개발정책

스리랑카 工業省은 1989년 스리랑카 공업화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目 的 : 1. 수출산업 육성 · 2. 고용증대 3. 수출품목의 다양화
4. 소득분배의 공정성 확보

開發戰略 : 1.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2. 투자 및 수출진흥을 위한 우대정책 추진 3. 저축장려 4. 기술이전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外資유치 5. 민영화 추진 6. 수출산업 육성 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제강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경쟁력강화 8. 인재양성 9. 수출 및 공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

시장규모도 작고 인적자원 이외에는 특별한 자원이 없는 스리랑카의 새로운 공업화정책(수입대체산업 육성 중심에서 수출촉진산업 육성으로의 정책전환)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쉽 뿐만 아니라 이의 실천을 위한 국민개개인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外資導入政策의 성공적추진과 일부 비효율적 정부계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한 공업구조개혁작업의 성공적 달성여부는 스리랑카 공업화정책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다.

4. 공업개발계획

1990년~1994년도 공공투자 5개년계획 중 공업부문개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前述한 공업개발정책을 승계, 소극적 규제위주의 공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정부가 공업발전을 장려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기반강화를 촉진하는 중심적 기관으로서 기능하여 금융, 기술, 경영관리·훈련, 광물자원 탐사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金融制度面에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불합리한 각종 금융제도를 개선(통화량의 확대 및 유동성 촉진, 자금대출기간의 연장, 주식시장 육성 등)하여 공업설비투자를 촉진한다.

b. 技術開發面에서는, 현재의 국영 과학기술연구소를 민간의 공업개발수요에 맞추어 구조를 개혁해 간다. 또 기술개발을 위한 외자도입정책은 스리랑카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효율성있게 추진하며 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양허적 감세조치를 강구한다.

c. 經營管理 및 訓練面에서는, 현재 스리랑카 기업에 국제적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유능한 간부급 관리자가 부족하므로 외국 비즈니스 스쿨과 제휴하여 官民공동 운영에 의한 경영관리자 학교를 설립, 외국의 앞선 경영관리기술을 습득하고 인재양성을 도모한다.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에 대해 양허적 감세조치를 강구한다.

d. 鑛業분야에서는, 유망한 광산자원의 探查開發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탐사개발은 기술, 시장, 자본, 법률 등 여러분야에서 외국기업과의 폭넓은 협력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협력관계가 순조로이 추진되고 지나친 개발로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법체제를 정비한다. 또 이에 기초하여 광물, 모래, 도기용 자재, 보석 등의 탐사개발을 추진, 향후 광물자원 관련제품의 주요수출국으로 발돋움 한다.

e. 신규 프로젝트와 이를 위한 금융계획에서는 25만 달러를 투자하여 남부 코갈라지역에 신설예정인 3번째 輸出加工區(EPZ)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근거하여 ADB로부터 용자를 받아 산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수출가공구를 설립한다. 또 공업화 촉진을 위해 스리랑카 度量型制度의 개선 및 金型·冶金産業진흥계획을 추진한다.

한편, 이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1989년 세계은행용자(IDA) 6천만달러, ADB용자 6천만달러 공여가 각각 결정되었으며 현재 스리랑카정부는 이들 기관과 6천5백만달러의 추가용자에 대해 교섭중인바, 이러한 용자는 거시경제 구조조정사업의 여러가지 목표조건 달성도를 고려하여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5. 공업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

수많은 문제점 중 주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산업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산업구조도 전형적 개발도상국형(농업관련 제품+노동집약산업 중심)이며 기술수준은 중하위이다. 따라서 제품의

다양화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시급하다.

2. 기업형태별로는 공기업의 부가가치액이 전체 제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비대하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도 공기업이 공업부문 전체의 효율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실효성있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방안 등 구조개혁노력이 요청된다.

3. 성장율이 높은 봉제업의 경우에도 한국, 대만, 홍콩 등으로 부터 원료인 服地를 수입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어 생산증대는 곧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상품기획, 해외시장개척 등 경영관리 면에서도 해외바이어 의존적이며 값싼 노동력만을 무기로 한 하청생산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 해외시장 개척, 織布·染色工業 등 관련산업육성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고도화,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다변화 노력등이 필요하다.

4. 공업개발지역이 산업기반이 비교적 정비되어 있는 콜롬보 주변지역에 집중된 문제가 있다. 현재 ADB의 지원으로 남부 코갈라지역에 세번째 수출가공구를 만들어 지방의 공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농촌의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都農간 격차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5. 유능한 중간관리자가 부족하며 부족한 중간관리자층의 양성을 시급히 실현하여 경영자원의 고도화와 인재난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6. 공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빈약한 연구개발기관의 질적·양적 개선이 시급하다.

표 IV - 22 투자인가 현황(件)

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출가공구 기 타	28 16	11 7	11 5	10 3	11 4	9 4	8 2	24 7	18 13	18 5
합 계	44	18	16	13	15	13	14	31	31	23

자료 : 대콜롬보 경제위원회

※ 상기건수는 대콜롬보 경제위원회(GCEC)에 신청한 것만을 계상한 것임.

표 IV - 23 외국기업의 對스리랑카 투자인가 내역(백만루피, %)

구 분	1986	1988	1989	1990	1991
인가액총액	188	1,713	1,990	2,072	8,000
(전년비)	-34.3	111.0	16.2	4.1	386.1
외 국 투 자	138	1,106	1,608	2,234	7,021
(전년비)	-24.1	86.8	45.4	38.9	314.2
국 내 투 자	50	607	382	n. a	n. a
(전년비)	-51.9	175.9	-37.1	n. a	n. a

자료 : 상 등

※ 상기금액은 대콜롬보 경제위원회(GCEC)에 인가신청 한 것만을 계상한 것임.

표 IV - 24 輸出 加工區의 고용현황(人)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식 음 료	471	641	796	1,135	1,633
섬유, 의류	33,937	38,342	39,848	42,925	49,554
목 재 가 공	24	56	77	69	44
화 학 제 품	1,655	1,999	2,285	2,049	2,765
비 철 금 속	1,648	2,132	2,817	4,431	5,502
금 속 가 공	149	435	1,202	1,287	1,436
기 타	3,730	7,138	7,601	9,533	10,424
합계	41,614	50,743	54,626	61,429	71,358

자료 : 일본 OECF 스리랑카 거시경제 조사 (1990)

표 IV - 25 輸出加工區의 輸出額(백만루피)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식음료	39	147	199	368	849
섬유, 의류	4,469	5,989	6,979	8,785	11,669
목재	1	4	6	9	6
화학제품	221	273	379	408	503
비철금속	31	310	667	657	1,811
금속가공	102	177	414	672	750
기타	533	635	902	880	1,934
합 계	5,396	7,535	9,546	11,779	17,525
수출액/全수출	15.8	18.3	21.3	20.9	22.1

자료 : 상 동

표 IV - 26 공기업과 사기업의 신장율 비교(%)

년 도	GDP	공 업 생 산 신 장 율			GDP에서 차지하는공업 부문 비율(%)
		사 기 업	공 기 업	평 균	
1983	5.0	26	-14	2	14.0
1984	5.1	26	6	15	14.9
1985	5.0	20	-4	5	14.7
1986	4.3	15	8	12	15.2
1987	1.5	15	-1	8	16.0
1988	2.7	11	-1	6	15.4

자료 : 스리랑카 중앙은행

표 IV - 27 스리랑카 · ASEAN제국의 공장노동자 임금수준 비교

(월급 기준)

나 라	현 지 통 화	환 율	엔 화 상 당 액
태 국	3,000바트	5.6엔	16,800 ~
인도네시아	40,000 ~ 100,000 루피	0.075엔	3,000 ~ 7,500
필 리 핀	1,600 ~ 2,000 페소	6.5엔	10,400 ~ 13,000
말레이시아	250 ~ 1,000 달러	53.8엔	13,450 ~ 53,800
스 리 랑 카	1,200 ~ 1,700 루피	4.0엔	4,800 ~ 6,800

자료 : 미쓰이은행 종합연구소, 1990

4. 에너지

1. 개요

스리랑카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보면 사용에너지의 77.7%를 목재에, 18.4%를 석유에, 3.4%를 전력, 그리고 0.5%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源으로서의 목재의 대부분(약 83%)은 일반가정 및 농업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다. 목재연료 확보를 위해 벌채되는 산림은 연간 9백만톤이며 植木은 벌채되는 양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V - 28 에너지 자원별 소비량 및 점유율(1988)

(석유환산치 / 10톤)

분 야	석유	전력	목재	석탄	합계	비율 (%)
공 업	155.49	79.57	742.61	25.54	1,022.22	18.0
운 수 업	671.08	-	-	0.95	672.03	12.0
농 업, 가 정	192.76	31.75	3,588.44	-	3,812.95	68.4
상업, 정부, 기타	8.51	80.69	1.76	-	9.95	1.6
합 계	1,027.84	192.01	4,332.81	25.49	5,578.15	100.0
(%)	18.4	3.4	77.7	0.5	100.0	

자료 : 스리랑카 전력·에너지청

1960년에 7백만 에이커였던 산림면적은 현재 4백만 에이커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환경파괴 및 국토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1987년 스리랑카정부는 산림종합계획을 작성, 1987-91년에 걸친 공공투자 5개년계획 안에 실시계획을 작성, 추진하였다. 이 중에는 목재연료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펄프용 화로의 개발과 그 보급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상업용 에너지수요는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106 kg (1965)에서 179 kg (1990)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 가정용 전력 공급율은 24% 수준으로 이는 다른 개도국(필리핀 45%, 말레이시아 60%, 1986)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V - 29 에너지생산 및 소비 증가율(%)

년 평 균	에 너 지 생 산	에 너 지 소 비
1965 ~ 1980	10.4	2.2
1980 ~ 1990	8.7	5.1

자료 :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표 IV - 30 에너지생산 및 소비 변화(%)

년 도	1인당 에너지소비 (kg)	상품수출에 대한 에너지 수입비율
1965	106	n. a
1990	179	4.0

자료 : 上 同

향후 스리랑카의 잠재적 수력발전량을 확대하고 지나친 목재연료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의 일반 공공행정에서 볼 수 있는 행정의 난립상은 에너지 행정분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에너지정책에 많은 기관이 관여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 스리랑카정부는 최근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식, 1982년 전력에너지省内에 에너지조정팀(ECT)을 설치하였고, 1983년에는 랑카전력공사(LECO)를 설립, 기존의 지방배전사업소(약 210개소), 실론전력국(CEB)과 함께 전력개발·공급을 위한 효율적 사업체제를 구축했

다.

1987년의 경우, 스리랑카 전력수요가 86만戸 가운데 CEB가 46만戸에, LECO가 5만戸에 그리고 지방배전사업소가 35만戸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표 IV - 31 에너지자원 현황

구 분		1989 증가율		1990 증가율		1991 증가율	
전 력	설비용량(MW)	1,240	2.7	1,289	3.9	1,289	-
	수 력	968	3.2	1,017	5.1	1,017	-
	화 력	272	0.8	272	-	272	-
	발전량(Kwh)	2,858	2.1	3,149	10.2	3,376	7.2
	수 력	2,801	7.8	3,144	12.2	3,116	-0.9
	화 력	56	-72.0	4.8	-91.5	260	5005
	국내소비(Kwh)	2,346	-0.8	2,567	9.1	2,742	5.1
	일반소비	420	3.8	508	20.9	643	25.1
	공 업	844	-6.2	887	5.1	958	5.3
	상 업	440	-1.6	509	15.5	547	7.5
석 유 제 품	기 타	640	4.9	653	2.2	571	13.0
	소비율(%)	82.5		81.5		81.2	
	전력손실율(%)	17.5		18.5		18.8	
수출(백만루피)		2,241	-1.0	3,973	77.3	3,289	-17.2
	수입(")	8,376	6.9	14,366	71.5	-	-
	수입량(M. T)						
	원 유	1,279,056	-32.7	1,778,866	39.5	1,625,522	-20
	정 제 품	374,344	161.6	124,986	-66.6	218,537	202
기 타		21,320	-20.1	29,055	36.3	18,312	71

자료 : Central Bank of Srilanka 1992

2. 에너지구조와 발전단계

스리랑카의 1인당 상업용 에너지소비량(석유환산/kg)을 보면 1965년 106kg에서 1990년 179kg으로 증가했으며 상품수입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비율도 1965년 6%에서 1990년 25%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전 에너지소비의 78%를 뿔감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나친 목재연료의존으로 자연환경의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스리랑카정부로서도 에너지 소비구조의 질적전환(뿔감으로 부터 수력발전으로)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마하웰리水系 개발프로젝트는 전력공급구조의 고도화 측면에서 보면 533MW의 전력공급능력(전체발전량의 50%)은 스리랑카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평가할 만하다. 남부지역의 잠재적 수력발전가능량은 2,300MW로 추정되고 있는 바, 향후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속적 수력발전소 건설이 요청된다.

한편 화력발전의 경우 석유, 석탄 등을 100%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은 강우량 변화에 의한 수력발전량 증감시 및 전력수요 피크시의 조정기능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력발전의 경우에 發電基地로 부터의 送電時 송전비용 및 송전손실(종래 30-40%, 현재도 25%를 넘을 때가 있음)을 최소화 함으로서 전력공급체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 스리랑카의 전력설비는 수력이 1,017Mw인데 비해 화력은 272Mw에 지나지 않아 가뭄이 발생하면 단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실제로 1991년 10월부터 1992년 4월까지의 극심한 가뭄으로

1992년 4월 중에는 일일 4시간씩 단전, 산업생산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정부는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증대될 전력수요와 수력발전의 한계를 고려, 화력발전소건설을 ADB 및 선진국의 경제협력 차관을 이용하여 건설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스리랑카의 에너지 수급구조는 전형적인 개도국수준에 머물러 있는 바, 향후 경제개발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통일성있는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에너지구조의 단계적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에너지 정책

제12차 공공투자 5개년계획(1990-94)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EB, LECO 등 전력공급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고 정부의 간섭 및 보조금을 점차 줄여가며 필요할 경우 이들 기관의 민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 a. 1982년 CEB에서 작성한 전력개발 계획에 기초한 전력공급능력 확대
- b. 전력공급망 확대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전국적 전력공급체제 구축
- c. 전력공급 시스템을 합리화(중저압化)하여 送電損失을 줄이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함.
- d. 에너지절감(省에너지) 기술을 도입, 에너지자원의 유효 적절한 활용과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를 달성함 등이다.

4. 에너지개발 계획

上記 12차 공공투자계획의 에너지개발사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a. 사마나라웨아 수력발전 프로젝트 : 120MW 용량으로 1991년 8월 완성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地質上의 문제로 공사비가 25% 상승했다. 향후 전력수요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화력발전소 건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b. 란단베 수력발전 프로젝트 : 49MW 용량으로 1990년 5월 완성, 가동함.
- c. 농촌 전력공급 사업 : 1989년까지 농촌에 대한 전력공급 세부 프로젝트중 8,040개의 공급계획이 완료됐으며 현재 68,000세대에 대한 전력공급사업을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원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 d. 제10차 送電 프로젝트 : 이는 종전부터 행해져 온 프로젝트의 계속사업으로 송전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IDA자금을 사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 e. 대체에너지源 개발 : 현재 스리랑카에서의 두번째 에너지소비源인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省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대체에너지개발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무역무지 개선측면에서도 긴급한 과제이다.
- f. 전기요금체제의 개혁 : 1990년 4월 실시한 요금개정은 8%의 내부수익율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호텔, 수도국 등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5. 에너지부문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재 스리랑카 에너지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 a. 지나친 목재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發電構造를 수력발전 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산림벌채지역에서의 조림사업을 강화하여 환경보전에 힘쓸 필요가 있다.
- b. 에너지절감 기술의 개발도입, 송전손실율의 개선, 송전망의 확장을 통해 에너지 공급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 c. 渇水期 및 전력수요 피크時의 대책을 강구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d. 에너지가격체제를 수요공급원칙에 입각한 市場價格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 e. 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인근주민의 이주·보상문제, 환경파괴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발전소 입지선정시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f. 민족분쟁으로 인하여 손상된 동북부州의 전력공급체제를 어떻게 再建할 것인가도 향후 과제의 하나이다.

표 IV-32. 전력개발 공공투자 프로그램 1987-1992(백만루피)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87-91	1988-92
	A	B	A	B	A	B	A	B	A	B	B	A	B
진행중인 프로젝트													
농촌지역 전력공급	58	154	-	146	-	-	-	-	-	-	-	58	146
변전소 5	54	134	43	184	-	20	-	-	-	-	-	97	204
변전소 6	156	253	-	256	-	10	-	-	-	-	-	156	266
수력발전개발	2	15	59	22	-	19	-	-	-	-	-	61	41
니라베스력발전소	75	102	10	120	-	3	-	-	-	-	-	85	123
코스마레 "	-	39	-	97	-	-	-	-	-	-	-	-	97
석탄화력 "	69	88	-	50	-	-	-	-	-	-	-	69	50
사마나라웨아	500	2,332	1,623	3,496	1,894	3,468	1,894	3,463	684	1,448	-	6,595	11,875
중전압 배전사업	100	270	664	1,015	597	1,242	337	686	66	251	-	1,764	3,194
란탄베 프로젝트	400	926	1,216	1,414	608	1,284	-	1,167	-	150	-	2,224	4,015
기타	24	23	20	24	21	24	26	5	26	4	3	117	60
합계	1,437	4,334	6,824	6,824	3,120	6,070	2,257	5,321	776	1,853	3	11,226	20,071
신규 프로젝트													
변전프로젝트	-	-	311	311	-	833	-	907	-	133	-	-	2,301
송전·변전프로젝트	-	-	25	25	247	685	266	834	287	519	117	877	2,514
화력 발전 1	-	-	-	-	1,636	-	1,945	-	1,014	-	450	4,816	-
화력 발전 2	-	-	-	-	1,259	44	1,504	-	785	-	-	3,721	-
기타	-	-	-	-	-	-	-	12	-	117	120	-	293
합계	-	-	336	336	3,142	1,563	3,715	1,753	2,086	769	687	9,414	5,108
총계	1,437	4,334	7,160	7,160	7,160	7,633	5,972	7,074	2,862	2,622	690	20,640	25,179

자료 : 스리랑카 기획성 및 세계은행 보고서.

* A는 1987 ~ 91년, B는 88-92년의 공공투자 계획안임.

5. 수송 및 통신

1. 도 로

가. 개 요

스리랑카의 道路는 A(간선도로), B(準간선도로), C(지방도), D(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그 총연장은 1991년 현재 25,952km이다. 다만 이는 道路省이 관할하는 도로이며 관할外 도로가 약 17,000km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선도로는 폭 8-12m의 포장도로이나 고속도로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며 현재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의 원조로 콜롬보와 코갈라 수출가공구 인접 도시인 갈레間 도로의 개수가 진행중이다. 準간선도로는 주요 지방도시間을 연결하는 것으로 폭이 4-6m이며, 폭 4m의 농업용 地方道는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이다.

표 IV - 33 도 로 연 장 (1990)

(단위 : km)

지 역	간 선	준간선	지방도	기 타	계
서 부	366	1,117	1,124	831	3,440
중 앙	383	1,029	1,880	620	3,914
남 부	352	802	881	904	2,941
북 동	1,324	964	1,525	1,085	4,900
북 서	353	905	1,021	1,035	3,315
북 중 앙	473	411	993	752	2,631
우 바	445	474	906	595	2,421
사바라가르와	416	625	327	313	2,183
계	4,116	6,331	9,161	6,140	25,749

자료 : Road Development Authority, Srilanka

나. 道路 行政

스리랑카정부의 도로행정은 과거 식민지시대에 만들어진 도로의 유지보수 정도에 머물러 향후 이 나라의 경제개발상 도로인프라의 미정비가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염려된다.

표 IV-34는 도로연장당 차량대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바, 1971년의 경우 스리랑카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어느 나라보다 차량대수가 많았으며 道路延長 또한 다른나라에 비해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후 다른나라들이 급속한 도로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스리랑카는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표 IV-35)

또한 上記 각국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포장율의 향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스리랑카에서는 포장율의 향상이 보이지 않는다. 옛부터 존재하던 도로의 단순한 유지에 치중해 왔으며 그 결과 포장불량, 視界불량 및 차량수요에 못미치는 좁은 도로가 식민지시대 이후 그대로 방치되어 대도시 근교에서의 극심한 교통정체 상태를 일반화 시켰다.

표 IV - 34 도로연장당 차량대수 변화

(단위: 차량대수/km)

구 분	스리랑카	인 도	한 국	인도네시아	일 본
1971	5.1	1.0	1.7	4.4	20.0
1988	15.1	2.8	39.1	10.0	45.4

자료: 국제통계 요람 1989

표 IV - 35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 변화

(단위: km)

구 분	스리랑카	인 도	한 국	인도네시아	일 본
1971	3.3	2.2	1.1	0.7	9.7
1988	1.59	2.02	1.32	1.37	9.04

자료: 上 同

최근 스리랑카정부도 이 부문에 대한 失政을 깨닫고 도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음 일본 ODA의 도로부문에 대한 사용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도로보수 및 유지가 도로개발 행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신도로건설까지는 여력이 없는 모습이다.

도로부문 개발예산은 대부분을 외국으로 부터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기존도로의 유지보수에 쓰여지고 있다.

향후 스리랑카정부는 도로인프라가 再生産材임을 인식,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로인프라의 건설에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표 IV - 36 도로부문에 대한 일본의 원조프로그램

원 조 프 로 그 램	년 도	원조형태	원 조 규 모
콜롬보주변 도로망 정비계획	1982년	개발조사	65백만엔
"	1983년	"	139백만엔
도로 改善 계획(광역)	1985년	무상원조	432백만엔
도로再建 프로그램	1987년	유상원조	12,314백만엔
빅토리아 교량 교체	1988년	무상원조	53백만엔
"	1989년	무상원조	857백만엔
콜롬보-카트나야케 고속도로 건설	1990년		520백만엔

자료 : 스리랑카 국별원조보고서 1991, JICA

다. 실시중인 도로개발 프로젝트와 계획

현재 진행중인 도로개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이들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스리랑카정부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독자재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설 프로젝트의 외국원조에 대한 의뢰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스리랑카 道路省이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장래의 교통수요를 감안한 표준화된 주요 도로네트워크의 설계 및 시공이다.

표 IV - 37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

원 조 기 관	원 조 규 모	프 로젝트 내 용
세계은행	300백만루피	300km의 도로재포장, 37개의 교량교체
ADB	295 "	300km의 도로노건정비, 160km의 도로재포장
ADB	325 "	400km의 간선 및 준간선도로 再建 및 유지보수 (교량교체 포함)
세계은행	100 "	600km의 간선 및 준간선도로 보수, 50개 교량보수
OECD	578.5 "	OECD의 도로건설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기계장비 제공

자료 : 上 同

라. 도로부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통일적 도로건설기준 및 도로건설경험의 미비

현재 스리랑카에는 도로건설에 관한 통일적 기준이 없으므로 도로이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표준화된 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가 파견 등 기술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다른 도로를 건설할 때 참고할 수 있으며 표준화 도로 건설과정에서 현지인들로 하여금 도로건설에 관한 노하우를 습득케 할 수 있다.

2) 도로이용의 효율성 저하

현재 도로 이용시, 고속차량, 저속차량 및 보행자가 무질서하게 이용하고 있어 도로의 교통용량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표준도로의 건설시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歩道 및 車道分離臺의 설치

- b. 차도내 장애물, 예컨대 전신주 등의 제거
- c. 도시내 신규건물 건설시 주차장 설치 의무화
- d. 주차가능지와 금지구역을 엄격히 구별, 시행
- e. 표준화된 교통관제법 실시
- f. 횡단보도, 차선의 명시 및 육교설치, 중앙분리대설치

3) 도로구조 미약

차도포장 강화, 排水구조물의 표준화 등 도로구조 강화가 시급하며 표준도로 건설시 시공법교육을 통해 이를 지침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스리랑카 도로는 간이포장이 대부분이며 본 포장인 중화물 교통처리 에 어려움이 있음.)

4) 허술한 도시계획

인구증가가 예측되는 도시지역에서는 교통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경제기반시설의 확장이 필연적으로 환경, 도시문제를 초래함을 선진국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작성시 이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5) 장래의 교통수요를 감안한 특정 간선도로 건설

다음의 간선도로는 향후 교통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보수 또는 신도로건설 등 사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 콜롬보-고르港間 도로건설 (현재 116km)

장래, 고르港이 보수되어 콜롬보의 보조港으로써 대량의 화물을 수송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의 도로에서 보다 내륙부쪽에 제2도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도로는 視界가 짧고 민간인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바, 現 도로 補修로서는 장래의 인적·물적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b. 콜롬보-켄디(콜롬보-켄디間 現道路 116km)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경우 통과지역이 산지이므로 직선도로 건설은 어렵다. 現 도로폭의 확대나 부분적 개량에 의해 교통용량을 높이는 쪽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콜롬보-카트나야케間(現道路 콜롬보항-공항간 31km)

現 도로는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새 도로의 건설보다는 現 도로의 路幅擴大, 부분개량, 視界改善, 도로의 표준화 등 도로개량을 통해 장래의 교통수요에 대처해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항-시내까지의 거리도 30km에 불과해 제2고속도로를 건설할 정도의 時間-費用便益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새 도로를 건설할 경우 콜롬보市の 질적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항 만

가. 개 요

스리랑카의 항구는 스리랑카항만청(Srilanka Ports Authority : SLPA)의 관할 하에 있으며 콜롬보, 고르, 트링코말리港이 주요 3대港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 작은 항구, 漁港 등이 있으나 활동량은 미미하다. 스리랑카의 경제사회인프라 관계기관중에서 SLPA의 활동을 통한 외화획득이 갖는 의미는 크다.

나. 항만 현황

그림 Ⅳ-5는 아시아 몇개국과 스리랑카의 海上輸送 動向을 비교한

것이다. 이들 6개국 중 스리랑카의 항만활동규모가 가장 적지만 그 성장율은 최근 착실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한국, 인도네시아의 뒤를 잇고 있다. SLPA의 항만활동은 한국의 그것에 비해서 揚荷로 1/20이하, 積荷로 1/10이하에 불과하지만 콜롬보港의 시설이 계속 확장중이며 제2항구인 고르港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은 内戰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제3항구로서의 트링코말리항구는 천연의 정박지를 갖고 있는 항구로 치안이 회복될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SLPA의 활동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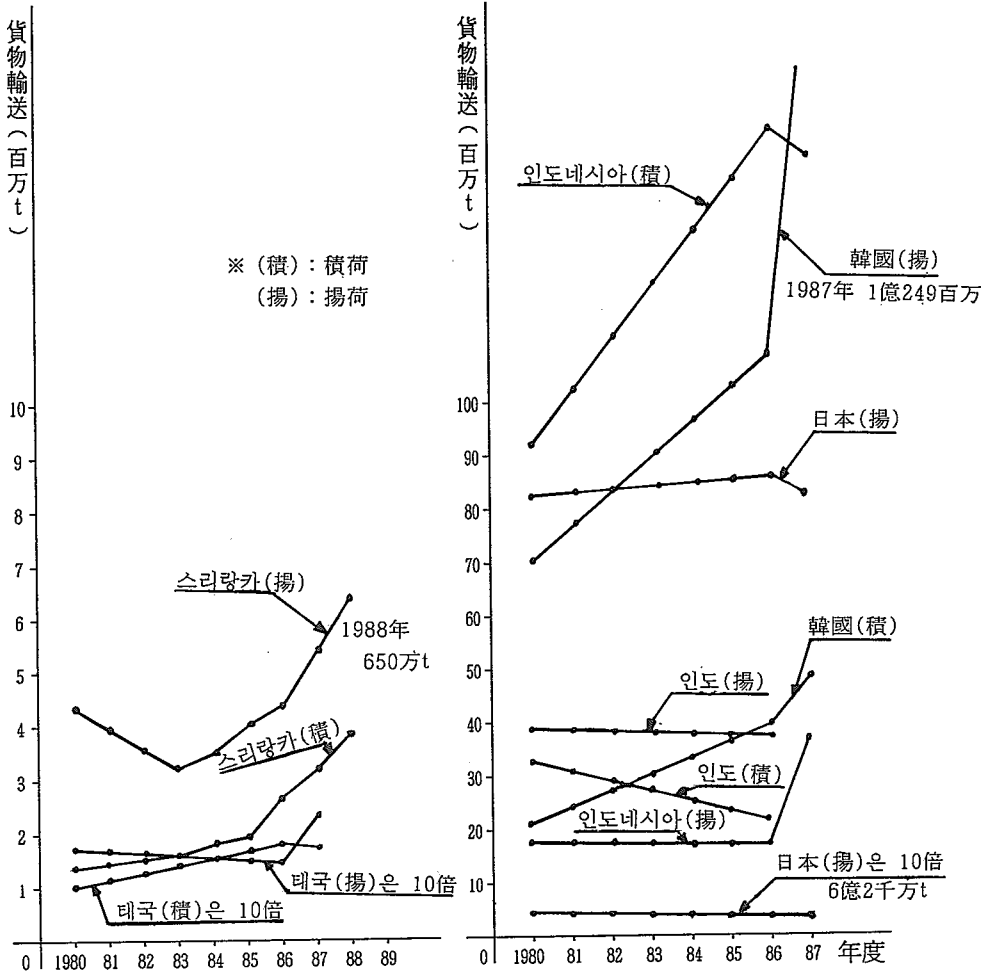
한편 스리랑카는 지리적으로 南아시아의 입구에 있는 바, 최근 콜롬보항의 컨테이너 처리시설 확대에 따라 同港이 각국 선박들의 컨테이너換積 처리항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SLPA의 특징은 그 항만활동의 대부분이 콜롬보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3항의 海運活動중 揚荷로는 1986년 80%, 1987년 84%, 1988년 88%를 콜롬보항에서 처리하였으며 積荷의 경우 1986년 85%, 1987년 88%, 1988년 93%를 콜롬보항에서 처리, 매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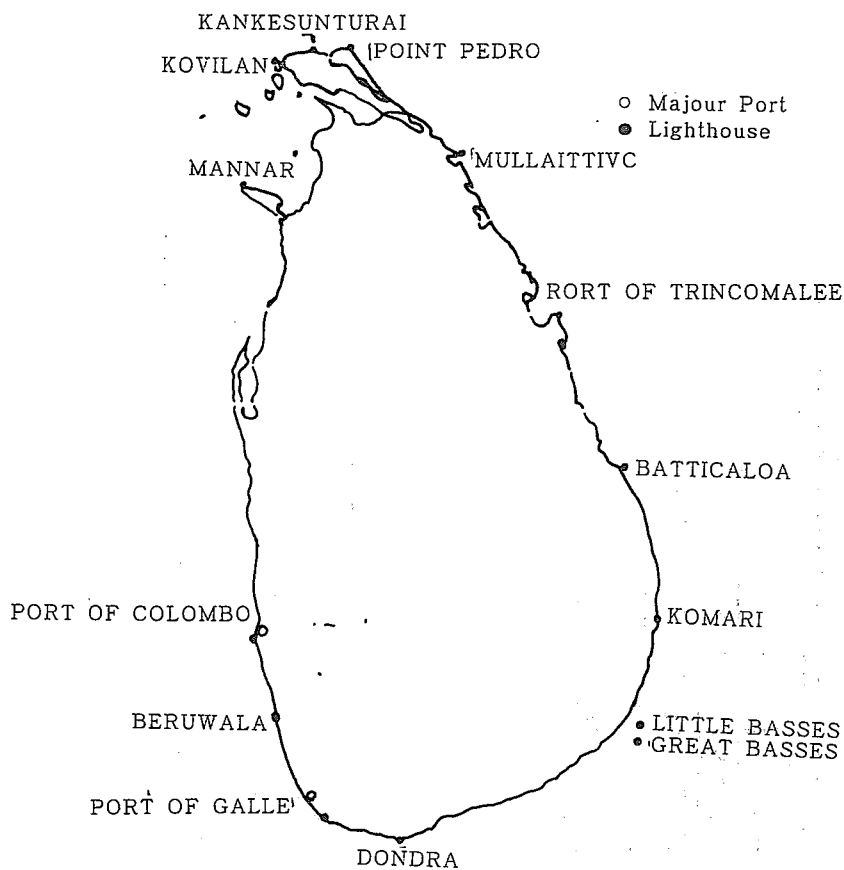
그림 Ⅳ-7은 SLPA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내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Ⅳ-8은 컨테이너 취급량을 나타내고 있다. SLPA는 정부의 한 기구이면서도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LPA의 稅後純利益은 전체수입의 15%정도인데, 이는 그림 Ⅳ-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콜롬보항에서 스리랑카의 수출입화물처리업무 이외에 제3국간 컨테이너 換積처리업무를 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IV - 5 해상수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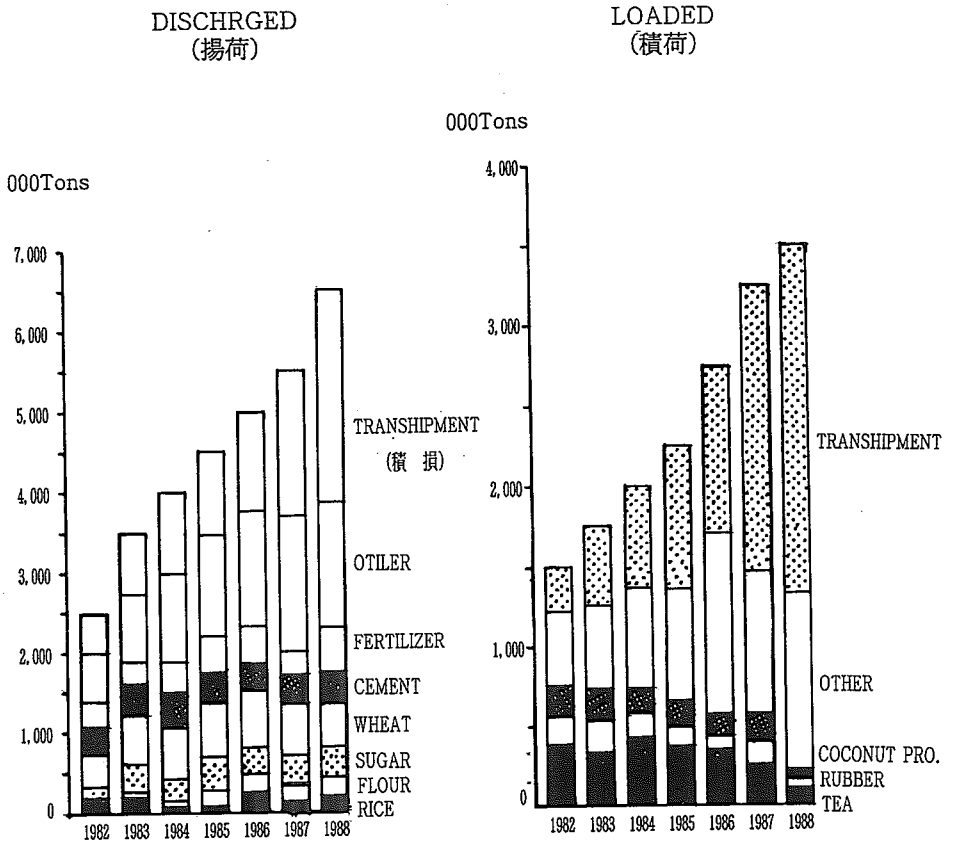
자료 : 國際統計要覽, SLAP 資料

그림 IV - 6 항만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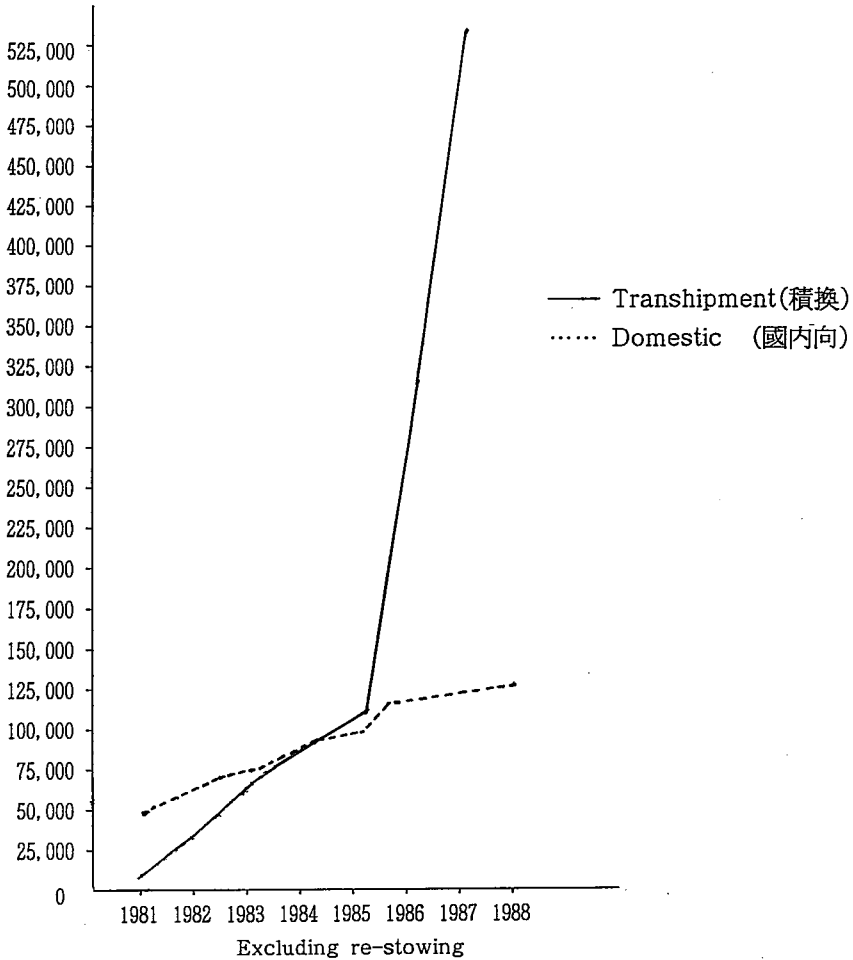
자료 : 上 同

그림 IV - 7 SLPA 취급품목 내역



자료 : Ports of Sri Lanka Handbook, 1989, SLPA

그림 IV - 8 컨테이너 취급량



자료 : 上 同

과거 및 현재 진행중인 스리랑카 항만부문에 대한 일본 ODA는 다음과 같은데 항만사업의 경우 일부 네덜란드로 부터의 차관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을 일본의 OECF로부터의 円차관에 의존하고 있다.

표 IV - 38 항만부문에 대한 일본의 ODA공여 실적

원 조 프 로젝 트	년 도	원조형태	공 여 금 액
콜롬보港 정비계획	1980년	유상원조	7,600 백만엔
"	1983년	유상원조	6,362 백만엔
"	1985년	유상원조	2,579 백만엔
"	1987년	유상원조	1,955 백만엔
"	1989년	유상원조	329 백만엔
남동부연안지역 漂砂조사 계획(기린다港)	1989년	개발조사	-
漁港관리 계획	1987년	무상원조	562 백만엔
기린다港 건설 계획	1982년	무상원조	677 백만엔
"	1983년	무상원조	739 백만엔
콜롬보港 개발계획	1989년	개발조사	
고르港 정비계획	1989년	개발조사	

자료 : 스리랑카 국별연구보고서 1991, JICA

다. 항만개발 계획

콜롬보港은 가까운 장래에 확대·정비할 예정이며 고르港은 현재 F/S 조사 중이고 트링코말리, 마타라港 등의 경우에는 이들 항구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을 SLPA에서 작성 중이다.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SLPA는 개도국 항만관리기관 중에서 비교적 우수한 관리능력을 갖고 있으며 전문가파견 필요성은 SLPA쪽에서의 강한 요청이 없으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은 항상 변화·발전해 가기 때문에 기술협력으로서의 항만사업 및 컴퓨터 조작기술, 新기계 도입 등의 경우에 연수생조청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LPA는 개발조사분야가 기술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장래, 요청이

있을 경우 트링코말리, 마타라港 등 항만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조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스리랑카가 토목, 지질, 기계 등 공학부문이 낙후되어 있고 同國과 같은 후진국에서 高價의 尖端 조사장비를 보유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JICA에서는 전술한 고르港 개발조사를 행하고 있으며 円차관 역시 당분간 지속적으로 공여될 것으로 보인다.

3. 철 도

가. 개 요

철도부문은 스리랑카 철도(Srilanka RailWays : SLR)의 관할하에 있다. SLR은 運輸道路省의 관할하에 있는 독립 법인이다. SLR은 5 Feet 6 Inch의 광궤철도 1,394km와 2 Feet 6 Inch의 협궤철도 59km 등 합계 1,453km의 철도를 보유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철도연장당 인원, 화물의 수송량을 인도와 비교해 보면, 인원수송의 경우에는 인도보다 높고, 일반화물수송은 인도에 비해 낮으며 그 이용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内戰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감소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선진국과 같이 도로수송의 편리성 및 경제성에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Ⅳ-39는 철도연장 및 수송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스리랑카의 철도는 오로지 여객수송만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데 1984년 이후 内戰으로 인하여 철도이용율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 39 철도연장 및 철도수송 현황

구 분	1982	1984	1986	1988	1990	1991
총연장(km)	1453	1453	1453	1453	1453	1462
광 궤	1395	1395	1395	1395	1395	1403
협 궤	58	58	58	58	58	59
객차보유(수)						
기관차	246	252	246	195	195	209
객 차	2845	2868	2658	2256	2256	2622
화물차	5473	5151	4231	4354	4354	3904
수송량(백만)						
여객수(p/km)	3121	2280	1972	1824	1824	2668
화물(ton/km)	217	260	203	197	197	170

자료 : Statistical Pocket Book of Sri Lanka 1992 ('91년은 추정)

또한 표 IV-40은 스리랑카의 철도밀도(철도연장/국토면적)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보면 스리랑카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국토면적당 철도망이 결코 빈약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철도망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 - 40 철도밀도 비교(철도연장/100km²)

국 가	스리랑카	인 도	인도네시아	일 본
밀 도	2.21	1.8	0.34	6.1

자료 : 국제통계 요람 1989

나. 철도부문의 채산성

SLR의 철도사업에 있어서의 자립 채산성은 전혀 서 있지 않다. 1989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요금 등 수입 : 462.4 백만루피

지출 : 1,241.5 백만루피

SLR은 1983년부터 2번에 걸쳐 요금을 인상했으나 지금도 요금은 다음과 같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거리비례 기초요금)

냉 방 차 : 1루피/km (약 20원)

1등 열차 : 0.82루피/km

2등 열차 : 0.47루피/km

3등 열차 : 0.17루피/km (약 3.4원)

스리랑카정부에서는 요금수입에 대해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시급히 가격체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IV - 41 SLR에 대한 일본의 원조

원 조 프 로 제 크 트	년 도	형 태	원 조 규 모
郊外철도차량 교체 계획	1988 년	유상원조	6,742 백만엔
철도운수부분 정비 계획	1989 년	유상원조	10,617 백만엔

자료 : 스리랑카 국별원조보고서 1991, JICA

다. SLR의 철도개발계획

SLR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철도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a. 철도線路의 보수·개선
- b. 철도차량의 고속화

上記 개발계획에 근거, SLR은 철도부문 10개년 장기개발계획을 입안하였는데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실시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는 바와 같이 철도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원조 의존경향은 놀랄 정도이다.

표 IV - 42 SLR의 프로젝트와 외국원조

원 조 프 로젝트	년 도	원 조 국	금 액
콜롬보郊外 철도차량 교체	1988년	OECD(일본)	6,742 백만엔 (약 14억 루피)
철도훈련소(1983년 부터) 건설	1990년	총액 독일원조	35.4백만루피 30백만루피
마란다나-라가마間 제3궤도 건설계획	1990년	총액 외국원조	25백만루피 20백만루피
콘크리트枕木 설치계획	1990년 ~	총액 SLR부담	133백만루피 9.5백만루피
철도교량 건설계획	1990년	총액 독일원조	82백만루피 56백만루피
Ratinalana 수리공장용 기자재 구입 계획	1991년 ~ 94년	총액 OECD(일본)	254백만루피 198백만루피
차량정비수리공장 정비계획	"	총액 외국원조	160백만루피 100백만루피
시그날 통신체제 보수계획	"	총액 외국원조	50백만루피 26백만루피
태양열이용 시그날 통신체제 정비계획	"	총액 외국원조	33.4백만루피 24.3백만루피
콜롬보-호마가마間 광궤化 계획	1977년 예비조사	총액 외국원조	339백만루피 137백만루피
바티칼로아-포투빌間 철도신 설계획 사전타당성조사		예정	

자료 : 上 同

라. 철도부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스리랑카정부는 철도산업을 자립시키려는 의지가 약하다. 또한 요금이 너무 저렴해 필요경비의 회수조차 못하는 형편이며 이에 따라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철도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도로교통에 밀려 철도교통의 채산성은 악화경향에 있지만 스리랑카의 경우는 최악이며 새 철도를 건설해도 채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철도교통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급히 内戰을 종결시키고 運輸需要를 증대시키며 채산성 향상을 위해 요금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 援助 및 外資依存的 傾向은 스리랑카 철도분야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요금인상 등 운임정책의 개선을 권고할 필요는 있으나 이러한 개선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원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 철도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파견
2. 철도관련분야 기자재정비·보수를 위한 전문가 파견
3. 철도민영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
4. 화물운반수요 확대를 위한 諸시책, 홍보분야 전문가 파견

상기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장래 SLR은 정부재정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부문에 밀려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공 항

가. 개 요

스리랑카의 민간항공은 국방성(Ministry of Defence) 관할하의 민간항공

국이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지방공항은 빈약한 활주로 및 관리사무소만이 있을 뿐으로 민간항공용 공항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항공부문 수송의 대부분은 콜롬보(카드나야케)공항에 의존하고 있다.

표 IV - 43 항공부문 수송량 추이

구 분	1982	1984	1986	1988	1990	1991
운항거리(백만 km)	10.1	13.1	11.3	13.3	18.3	19.9
여객수송(백만P/km)	1947	2482	2108	2383	3189	3449
화물수송(백만t/km)	42.1	62.2	56.1	64.0	95.5	103.2

자료 : Economic & Social Statistics of Srilanka 1992

콜롬보공항은 활주로 3,200m, 駐機場 8개를 가진 현대적 국제공항으로 일본의 원조에 의해 완성됐으며 다른 개도국의 공항과 비교하여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콜롬보공항 정비에 대한 일본의 원조는 다음과 같다.

표 IV - 44 콜롬보공항 정비에 대한 일본의 원조

원 조 프 로젝트	년 도	원조형태	원 조 금 액
콜롬보국제공항 정비사업	1981 년	개발조사	20 백만엔
"	1982 년	"	7 백만엔
"	1982 년	유상원조	10,200 백만엔

자료 : 스리랑카 국별원조보고서 1991, JICA

현재 콜롬보공항은 그 규모에 비해서 교통량이 적으므로 당분간의 교통량 증가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다. 인접국가의 同규모 공항과 비교해 보면

스리랑카의 항공수송량은 비교적 적다. 공항이 여러개 있긴 하나 인구가 1,700만으로 스리랑카와 비슷한 규모인 말레이시아 및 1개의 공항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 등과 그 활동규모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 - 45 스리랑카와 인근제국공항의 활동량 비교

나 라	여객 (백만 km)			화물 (백만톤)			관광객수 (천명)		
	1980	1986	1987	1980	1986	1987	1980	1986	1987
스 리 랑 카	671	2108	1994	9.7	56.1	50.6	322	267	236
말레이시아	4076	-	7608	109.9	-	254.7	800	5120	
싱 가 포 르	2114	3708	3768	71.6	226.8	248.7	2562	3043	3201

자료 : 국제통계요람 1989

上記 관광객수에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내여행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선박을 통한 출입국자 수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공항을 통한 것인데 이를 봐도 스리랑카의 관광분야 개발은 아직 본격적인 단계에 도달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스리랑카의 국제항공수요는 당분간 콜롬보공항만으로도 대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지방공항의 경우에는 內戰상태가 종료될 때까지는 그 정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협력방향은 외국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고 외화를 획득하며 콜롬보공항을 활성화시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공항의 확장정비보다는 관광 등에 대한 홍보·선전이나 관광지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5. 상하수도

가. 개 요

스리랑카에는 전국적으로 약 400개의 淨水場이 있으며, 이중 200개를 정부의 주택건설省(Ministry of Housing and Construction)관할하의 "National Water Supply & Drainage Board"(NWSDB)이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있다.

나. 상하수도 시설현황

스리랑카의 상수도 시설은 1인당 GNP가 470(1990)달러인 나라로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며 급수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급수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IV - 46 상수도 급수율

년 도	도 시	농 촌	주거지역	전 체
1963	45.6 %	13.3 %	-	18.3 %
1971	45.3 %	44.8 %	74.8 %	20.1 %
1981	48.5 %	55.1 %	65.6 %	17.6 %

자료 : Statistical Pocket Book 1989

위 표는 독립가옥에 대한 급수율을 나타낸 것인데 그밖에도 共同水栓에 의해 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도 있으며 이 兩者를 포함할 경우 전국 평균 급수율은 다음표 IV-47과 같다.

표 IV - 47 급 수 율

년 도	도 시	농 촌	주 거 지 역	전 체
1988	76 %	64 %	-	67 %

자료 : NWSDB 자료

정부에서는 200리터/人·日을 급수 공급목표로 삼고 있는데 실제로는 독립가옥의 경우 140리터/人·日, 공동수전의 경우 60~80리터/人·日 수준이며 수도 콜롬보에서는 斷水되는 경우는 적으나 주변도시의 경우 時間給水가 보편적이다.

淨水施設의 경우, 정수기계가 오래된 것이 많고 유지관리를 허술히 하여 전국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며 콜롬보市 정수장의 기계조차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콜롬보市에서의 급수공급은 선진국에서는 금지되어 있는(정수장에서 鹽素를 직접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염소도 투입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는 주로 투입기계의 고장과 鹽素 기타 淨水用 藥品の 구입지연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은 자금부족에 기인한다. 또 동일 정수장에서 각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을 혼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下水道시설은 콜롬보市 인구가 60만 임에 비해 처리시설은 5만명 분량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몇 개의 하수처리 전용수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江 등에 無處理 투하하거나 지하에 흘려버리고 있다. 인구가 증대하고 공업화가 진행되면 향후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나 하수시설 문제보다 상수시설 정비가 시급한 스리랑카로서는 하수시설 정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나 현재 개선의욕은 없다.

上下水道 부문에 대한 일본의 원조는 다음과 같다.

표 IV - 48 상하수도에 대한 일본의 원조

원 조 프 로젝 트	년 도	원조형태	원조금액
지방상수도 정비계획	1981 년	개발조사	28백만엔
음료수 공급개선(광역)사업	1983 년	무상원조	1,200백만엔
"	1986 년	무상원조	670백만엔
상수도 처리시설 개선(콜롬보)사업	1984 년	무상원조	1,490백만엔
콜롬보 동부지역 상수도 계획	1989 년	유상원조	1,997백만엔
대 콜롬보권 排水시스템 보수계획	1989 년	유상원조	299백만엔
음료수 공급개선(캔디) 계획	1989 년	무상원조	854백만엔
캔디 상수도 개선계획	1990 년	유상원조	753백만엔

자료 : 스리랑카 국별연구보고서 1991, JICA

다. 상하수도 개발계획

증대하는 給水需要에 대처하기 위해 NWSDB가 추진 중인 상수시설 개발계획이 달성되면 도시지역 82%, 농촌지역 61%, 전국 평균 66%의 급수율을 기록하게 되나 그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스리랑카 북부 자후나地區와 남부 마타라地區를 중심으로 한 반정부세력의 활동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 이 계획이 필요로 하는 소요자금의 반 이상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NWSDB의 재정상황은 1988년을 예로 들면 수도요금의 44%가 未納상태에 있다. 89년의 경우 운전자금을 회수할 정도의 요금수입 조차 없어 공사비나 신규투자는 모두 정부보조금과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수도요금을 국가의 재정보조금에 의해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은 스리랑카 정부의 자유이겠으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지나치게 싼 요금체제를 지속시키고 한편으로 그 징수조차 허술하게 하면서

상하수도 시설의 근대화 및 급수인구의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외국의 원조에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ODA는 의퇴심을 조장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며 정부보조 또한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속히 內戰을 종결시키고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그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협력으로서는 전문가 파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 일수록 급수시설의 관리상태가 나빠 50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30년도 못가 못쓰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淨水分野 전문가 뿐만 아니라 누수대책 전문가 및 전국각지에 있는 정수기의 유지점검법 및 그 사용법을 설명할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한국의 정수장에 파견하는 것보다는 각지를 순회하며 기술을 전수할 전문가 파견이 바람직하다.

下水道の 경우에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을 통해 개발경험을 전수할 필요는 있겠지만 스리랑카정부 자신이 그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하기 전까지는 원조의 의미도 희박하고 설사 시설이 갖추어져도 그 운전자금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인원을 배치할 가능성이 적다.

6. 전화통신

가. 전화통신 조직

전신·전화사업은 스리랑카 전신局(Telecommunications Department)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나. 전화보급을 및 현황

전화는 1991년 12월 현재 17만 5천회선에 불과하며 국제전화는 192개국과 가능한데 그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85개국과는 국제직접전화(International

Direct Dialing Telephone)통화도 가능하다. 또한 콜롬보市와 콜롬보근교, 지방 주요도시간 국내 전화통신망도 자동화되어 직접통화도 가능하지만 동북부지역은 민족분쟁 및 좌익단체 테러로 통신시설이 파괴되어 직접통화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ADB, IDA 및 일본, 프랑스, 핀란드 등으로 부터 통신개발 차관을 도입하여 1995년까지 50만회선의 전화회선을 증설할 계획이다.

표 IV - 49 전화통신 보급현황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국내전화					
전화회선	97,832	104,208	105,007	121,388	125,834
신설회선	5,073	5,000	6,087	20,226	6,579
신청자(件)	27,016	50,994	48,400	47,945	61,313
실수요	124,848	155,202	153,407	169,333	187,147
보급대수(백명당)	0.59	0.62	0.62	0.71	0.73
국외통신					
텔렉스설치대수	1,378	1,535	1,591	1,666	1,740
신청자(件)	135	127	59	89	84

자료 : Central Bank of Srilanka 1992

다. 통신부문의 일본원조

전화통신부문에 대한 일본의 원조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V - 50 전화통신부문 일본원조 현황

원 조 프 로 제 크 트	년도	원조형태	원 조 금 액
인도네시아 - 스리랑카間 해저 케이블 건설계획	1982	개발조사	3백만엔
대콜롬보 전기통신망 정비계획	1982	개발조사	36백만엔
"	1983	개발조사	81백만엔
"	1984	유상원조	10,359백만엔
전국 전기통신망 정비계획	1984	개발조사	75백만엔
"	1985	"	62백만엔
통신훈련센터 기자재 정비계획(광역)	1984	무상원조	570백만엔
라디오 방송국 정비계획 (I)	1988	"	1,273백만엔
" (II)	1989	"	1,180백만엔

자료 : 스리랑카 국별연구보고서 1991, JICA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다른 개도국과 비교하면 스리랑카의 전화보급을 및 전화통신망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은 적어도 B. H. N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다른 원조기관의 전화통신부문에 대한 원조동향을 고려하여 협력해 나갈 것이 요청된다.

V. 개발원조 현황

1. 스리랑카측의 원조에 대한 입장

스리랑카는 제2차 세계대전후 독립한 많은 나라 중 독립직후에는 비교적 좋은 경제상태에 있었으며 서방제국으로부터의 자금(외화)의 유입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同國은 정치외교적으로는 비동맹외교노선을 견지했으며 당시 외국의 원조는 국가의 경제사회개발이라는 원조 본래의 목적보다는 외교적 선물로서 취급된 면이 강했다. 하나의 예로서 중국에 의해 건설된 반다라나이케 국제회의장을 들 수 있다.

한편 오일쇼크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생필품가격 불안정을 경험한 후, 1977년 스리랑카 국민은 사회주의형 자급경제체제의 한계를 인식, 개방형 자유경제정책을 추진한 자야와르데네 정권을 성립시켰다. 同정권은 소규모의 정부세입으로는 실시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도 각국의 원조가 집중된 마하웰리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전반기까지 외국원조는 정부의 개발사업예산을 충당하는 중요한 자금원이 되었다.

한편 당시까지의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주로 홍차, 고무, 코코넛 등의 수출로 얻은 자금을 재원으로 한 사회복지예산을 일시에 대폭 삭감할 수는 없었고,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플랜테이션 이외의 산업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야와르데네 정권에 의한 경제정책의 전환은 일방적인 수입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원조를 통해 무역적자를 보전케

되어 원조액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더우기 1983년부터는 격화된 민족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도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스리랑카는 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한층 외국원조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편 1989년 프레마다사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스리랑카는 외국의 원조에 대한 입장을 새로이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예컨대 대형 개발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그 개발이익이 국민전체에 미치기까지는 장기간을 要하고 원조국측이 원조를 종료한 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프로젝트의 운영이 어려워 지는 점, 외국원조(차관)의 반대급부로서의 부채 증가, 국가경제의 재건을 위한 세계은행, IMF의 구조조정정책 제언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리랑카정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적자재정 상태하에서, 적어도 中長期的 차원에서는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정비 원조, 외화부족을 메우기 위한 자금원조가 스리랑카 경제개발상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상품차관이나 프로그램원조가 유효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스리랑카측은 향후 원조를 받을 때의 희망사항으로서 의료,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 정비 등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무상원조를 바라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자립·영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관리운영 노하우의 移轉에 중점을 둔 원조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1977년 이후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국민당 정권은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빈곤층에 원조효과가 큰 개발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모색 중인데 이러한 프로젝트의 입안 및 시행에 외국 원조기관

의 참여 및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2. 원조 현황

1977년 東西 양진영이 대립하는 국세정세하에서 스리랑카정부가 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일본을 포함한 서방제국의 원조가 급증했다. 이는 당시 서방제국의 원조가 자금과 물자와 사람의 자유로운 흐름에 근거하여 특히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77년 이후 스리랑카에 대한 정부개발원조 공여 현황은 표 V-1과 같다. 1978년 스리랑카의 ODA受援 총액(net)이 324백만 달러를 기록, 전년比 72% 증가한 이후 이러한 증가세가 그 후에도 계속되어 1987년 이후에는 500백만 달러를 넘게 되었다.

표 V - 1 對스리랑카 정부개발원조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81년	1985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O D A 총 액	377.5	484.6	501.7	598.3	546.8	664.9
증 차	223.5	205.8	268.2	302.1	295.0	317.7
	154.0	278.9	233.5	296.2	251.8	347.2
양 국 간 원 조 국 제 기 관 원 조	287.6	339.6	328.6	442.3	394.5	399.6
	89.9	145.0	173.1	156.0	152.3	265.3
對GNP比(%)	8.09	8.13	7.53	8.58	7.86	8.31
1인당수취액(달러)	25.1	30.6	30.7	36.1	32.4	39.1

자료 :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OECD

최근의 ODA총액은 정부 예산세출의 20%이상에 상당하는 규모가 되고 있으며 GNP에서 차지하는 ODA총액도 다른 대부분의 피원조국이 7%임에 비해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피원조국과 비교하여 볼때 특별히 스리랑카에서의 개발 수요가 높다는 것보다도 스리랑카의 원조흡수 능력이 크고 원조도입 정책을 포함한 스리랑카정부의 유연한 대응에 의한 바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조액을 형태별로 보면 국제기관 원조 약 30%, 양국간 원조 약 70%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및 미국, 독일, 네델란드,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원조가 큰 부분을 점하고 있다.

국제기관의 경우에는 IDA, ADB, UNDP의 원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OPEC제국은 최근 10년간 스리랑카가 공여받은 원조총액의 10%를 공여하였고 사회주의제국으로부터의 원조는 1977년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舊소련으로부터의 원조는 거의 없으며 중국이 연간 5백만 달러 정도의 원조를 행하고 있다.

한편 양국간 원조의 주요 원조국은 1971년-72년 미국, 1973-74년 서독, 1975-79년 미국, 1980-81년 영국, 1983년 일본, 1984-85년 미국, 1986년 이후에는 일본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미국의 주도 하에 당시 경제상황이 좋은 국가가 최대 원조국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기관 원조는 IDA, ADB, UNDP 등 3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IDA가 그 중심적 역할을 행해왔지만 최근 ADB의 원조증대가 눈에 띄고 있다.

원조형태는 1984년부터 1986년 사이에는 차관이 50%를 초과했으나 그후 차관과 공여는 거의 동액으로 확대균형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연도별 차관상환규모(ODA 순수취액)는 1980년 18.9백만 달러에서 1988년에는 54.6백만 달러에 육박했다. 즉, 스리랑카가 공여받는 ODA의 약 10%는 그 상환을 위해 충당하고 있다.

원조대상 분야로는 대규모원조의 계기가 된 마하웰리지역 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부문 원조가 權漑事業을 포함,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사업, 운수통신분야 3/4, 식량원조는 1/10을 점하고 있다.

한편 최근 원조국측은 민족분쟁과 관련된 인권보장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소수민족인 타밀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북동부지역에서의 개발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 않는 현실의 개선 등 스리랑카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분쟁으로 파괴된 분야의 부흥원조로 원조액이 증대했으나 향후 반드시 지금까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양국간 원조

양국간 원조의 주요 원조국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을 들 수 있으며 다음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여액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대폭적인 공여확대에 의한 바 크다.

표 V - 2 對스리랑카 양국간 원조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국 가	1981년	1983년	1985년	1987년	1989년	1990년
일 본	49.1	73.1	83.7	118.3	185.2	176.1
독 일	9.6	42.6	53.6	39.7	40.8	26.2
미 국	31.0	62.0	85.0	35.0	43.0	75.0
네 델 란 드	49.5	25.4	14.5	23.5	18.0	22.3
카 나 다	32.8	36.1	21.9	21.8	15.4	4.3
스 웨 덴	22.7	28.3	33.3	19.9	6.3	10.6
영 국	50.4	42.3	12.3	16.3	30.9	21.3
기 타	42.5	39.8	35.3	54.1	56.9	64.2
합 계	287.6	349.6	339.6	328.6	394.5	399.6

자료 :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OECD

주요 원조국별 원조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일 본

일본의 對스리랑카 ODA공여 현황은 다음 표 V-3과 같다.

표 V - 3 일본의 對스리랑카 ODA공여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81년	1985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ODA 총액(Net)	49.1	83.7	118.3	199.8	185.2	176.1
증 여	31.6	41.1	66.6	86.9	93.7	91.0
자금협력	27.5	33.4	54.1	65.6	75.9	74.4
기술협력	4.1	7.7	12.5	21.3	17.8	16.6
증여율(%)	59.2	45.8	51.4	40.5	46.7	46.5
차 관(Net)	17.4	42.7	51.6	113.0	91.6	85.1

자료 : 上 同

일본원조의 특징으로서는 그 규모의 거대함과 함께 전략성이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1977년 이전에는 기술협력 이외에 식량원조(무상자금협력) 및 상품차관 등이 소규모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었으나 同年 이후부터는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유상·무상자금협력이 개시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마침내 총액 200-300억엔 규모로 증대하여 스리랑카 양국간 원조 수원총액의 3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일본의 원조가 스리랑카의 개발동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스리랑카측으로 봐서도 다른 원조국의 원조규모가 거의 정체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의 원조배증계획에 기대하는 바가 크며 현재로서는 일본의 원조에 대한 위기감은 갖고 있지 않는 듯 하다. 한편 다른 원조국·원조기관 역시 일본의 원조동향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후 일본의 원조방침 및 원조사업에 있어서의 협조가능성에 관한 문의도 늘고 있다.

최근의 스리랑카에 대한 일본원조의 특징을 형태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상자금협력

일본의 무상자금협력은 BHN분야, 특히 의료와 교육분야에서 건물과 기자재의 집중적 투입에 의해 단기간내에 협력대상분야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무상자금 원조를 받아 설립한 "페라데니아 교육병원", "스리자야와르데네 종합병원", "마타라 교원양성학교", "필수의약품 제조연구소", "청소년 교육센터", "遺傳資

源 연구소", "자동차 정비공 훈련센터" 등은 기존의 스리랑카가 보유한 제시설의 수준을 상회하는 표준화된 건물과 기자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은 이들 시설의 완공후 이를 활용하여 기술협력도 행하고 있다.

다른 원조국의 개발프로젝트와 비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우선 무상자금협력을 통해 건물 등을 건설하고 이를 개발據点으로 하여 집중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원조를 공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원조전략적으로 보면 전시적 효과 및 원조의 홍보효과를 노린 건물프로젝트 據點主義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형태 외에도 전국의 지방병원이나 대학을 대상으로 한 기자재 공여도 행해지고 있다. 또한 식량원조, 식량증산원조 및 채무구제원조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원조를 통해 적립한 자금은 주로 농업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표 V - 4 일본의 對스리랑카 무상자금협력 추이

(단위 : 백만엔)

구 분	1987년	1987년	1987년	1987년	1987년	누 계
무상협력	8,594	9,279	7,723	6,600	5,217	105,593
일 반	4,986	6,500	5,257	4,513	3,180	64,567
수 산 업	562	-	-	-	-	2,733
문 화	46	-	-	48	17	422
식 량 원 조	-	-	-	-	-	2,076
식 량 증 산	2,800	2,600	2,300	1,900	1,900	32,500
채 무 구 제	200	179	159	140	120	3,283
소규모무상	-	-	7	5	-	12

자료 : 경제협력의 현상과 문제점 1992, 일본 통산성

표 V - 5 일본의 對스리랑카 무상자금협력 내역

(단위 : 억엔)

년 도	내 용
85년까지누계	페라데니아병원 설립 및 식량증산원조 등 총 558, 59억엔
86 년도	○ 재해긴급원조 (0. 21) ○ 청소년교육훈련센터 건설계획 2/2기 ((18. 6) ○ 필수약품 제조센터건설계획2/2기 (7. 04) ○ 의약품자재창고건설계획 (13. 43) ○ 식량증산원조 (28. 0) ○ 식물유전자원센터 건설계획1/2기 (9. 73) ○ 채무구제 (2. 21) ○ 기초과학연구소 정비계획 (8. 77) ○ 음료수공급계획 (6. 70) 총 94. 15억엔
87 년도	○ 식물유전자원연구소 건설계획 2/2(10. 15) ○ 교육성 음악교재보급 (0. 46) ○ 재해긴급원조 (0. 24) ○ 항만관리계획 (5. 62) ○ 국립의학연구소 건립 (10. 08) ○ 자동차정비훈련센터 건설계획 1/2기 (13. 58) ○ 식량증산원조 (28) ○ 부흥개발계획 (11. 2) ○ 채무구제 (2) ○ 말라리아방지 기자재정비계획 (4. 56) ○ 모라토와대학 교육용 기자재 정비계획 (9. 09) 총 95. 27억엔
88 년도	○ 국립의학연구소 정비계획 (18. 42) ○ 자동차정비 훈련 건설계획2/2기 (7. 86) ○ 긴급의료대책용 기자재정비 계획 (2. 36) ○ 라디오방송 정비계획1/2기 (12. 73) ○ 모텔촌 정비계획 (14. 55) ○ 빅토리아교량 교체계획 (0. 53) ○ 채무구제 (1. 79) ○ 식량증산원조 (26) ○ 미니페 나카 데바농촌개발계획 (4. 49) 총 95. 27억엔
89 년도	○ 라디오방송 정비계획2/2기 (11. 8) ○ 캔디 상수도정비계획 (8. 54) ○ 미니페 나카데바농촌개발계획 (7. 09) ○ 간파하농촌개발계획1/2기 (9. 96) ○ 빅토리아교량 교체계획 (8. 57) ○ 국립교육연구소 확충계획1/2기 (10. 69) ○ 영양개선계획 (3. 00) ○ 채무구제 (1. 59) ○ 식량증산원조 (23) ○ 체육 기자재제공 (0. 48) ○ 소규모무상 (0. 07) 총 84. 9억엔
90 년도	○ 빅토리아교량 교체 2/3기 (8. 07) ○ 간파하농촌개발계획 2/2기 (10. 75) ○ 캔디 상수도개선계획2/2기 (7. 53) ○ 국립 교육연수소 확충계획 2/2기 (9. 31) ○ 라디오스튜디오 정비계획 (6. 47) ○ 채무구제 (1. 40) ○ 식량증산원조 (19. 00) ○ 재해긴급원조 (0. 68) ○ 여학교육 기자재공여 (0. 17) ○ 소규모무상 (0. 05) 총 94. 15억엔
누 계	총 1, 014억엔

자료 :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하권 1991, 외무성 경제협력국

2) 유상자금협력

일본의 유상자금협력에 의한 성공적 개발프로젝트로는 "콜롬보港 확충계획"을 들 수 있다. 同항구는 현재 서남아시아지역을 포괄하는 대규모 컨테이너集積港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의 외화획득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측으로부터의 円차관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마하웰리江 C지역개발계획" 및 "콜롬보국제공항 정비계획", "大콜롬보권 전화망 정비계획", 영국과의 공동협력에 의한 "사마나라웨어 수력발전소 건설계획" 외에 관개시설, 수도, 철도, 도로 등 인프라정비분야에도 일본의 유상자금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멘트공장 재건계획"이 입안되었는데 이는 스리랑카정부가 추진중인 공업화촉진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프로젝트로 인정되고 있다. 스리랑카측은 이들 프로젝트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그 사업운영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상자금협력의 기본취지인 "공여된 차관의 상환의무가 개도국의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개발사업의 실시와 운영의 자극제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일본의 개발경험 전수 및 기술이전 위주의 협력이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유상협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V - 6 일본의 對스리랑카 유상자금협력 추이

(단위 : 백만엔)

구 분	1987	1988	1989	1990	누 계
프로젝트차관	41,381	11,012	27,128	25,253	173,704
상품차관	3,500	3,000	3,000	13,100	93,612
합 계	44,881	14,102	30,128	38,353	267,316

자료 : 경제협력의 현상과 1992, 일본 통산성

(단위 : 억엔)

년	도	내	용
85년까지누계		제1차 상품차관(18.00)등 4차례	총 1,483.58억엔
86년도		○ 제20차 차관(사마나라웨어 수력발전소 145, 상품차관 25)	총 170억엔
87년도		○ 제21차 엔차관(사마나라웨어 수력발전소 139.2, 콜롬보항 확충계획 19.55, 상품차관 35) 193.75 ○ 제22차 엔차관(마하웰리강 C지역개발계획 29.5, 마하웰리강 B지역 농업개발사업 83.92) 113.42 ○ 재건차관(미니페 나카데바 관개시설 보수계획) 18.5 ○ 자금환류조치(도로재건프로그램) 123.4	총 448.81억엔
88년도		○ 제22차 엔차관(송전망 증강계획 43.02, 교외철도차량 갱신 계획 67.42, 상품차관 30) 141.02	총 141.02억엔
89년도		○ 제23차 엔차관(상품차관 30, 콜롬보상수계획 19.97, 대콜롬보권 배수체제보수계획 2.99, 제10차전력정비계획 38, 시멘트공장보수계획 35.31, 콜롬보항확충 63.29, 콜롬보-카트나야케간 고속도로보수 106.17) 301.28	총 302.28억엔
90년도		○ 제24차 엔차관(경제구조개선 131, 대콜롬보권 전기통신망 정비계획 109.68, 콜롬보항 확충 110.21, 사마나라웨어 수력발전소 32.64) 383.53	총 383.53억엔
누 계			총 2,673.16억엔

자료 :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하권 1991, 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

3) 기술 향진

'54년 일본이 콜롬보플랜 회원국으로 가맹하면서 스리랑카 연수생 초청에 의한 기술협력이 시작되었다. '77년 이전까지는 어업, 농업, 의료, 수산업분

야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 등 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협력이 중시되었으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의료 및 농업개발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적정기술 연구개발센터"('82-'87)에서는 스리랑카의 실정을 고려한 적정 기술의 개념을 구체화해 가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으며 "植物 遺傳資源센터"('88-)에서는 일본의 기술협력으로서는 드물게 각국이 자국산 種子의 해외유출을 규제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스리랑카 공동연구를 통해 종자의 보관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분야 기술협력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기술협력은 최신의 기자재를 활용한 프로젝트가 많은 것이 특징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기자재중심 기술협력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스리랑카로서는 일본의 최신기술의 도입이 매력적이나 동시에 스스로 유지관리를 행하는 것이 향후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단기 전문가파견사업으로는 "시청각 장애자교육"과 같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협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TV방송 기술" 및 "전기통신훈련"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치안문제 등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장기파견 전문가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구미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수년동안 장기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어 스리랑카측으로부터 일본의 원조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對스리랑카 기술협력에 대한 기본적 생각은 "스리랑카인도 일본인과 같이 열의를 갖고 근면하게 기술향상에 노력하면 언젠가는 서구의 기술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일본은 최신형 기자재를 활용, 이러한 목표달성에 협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80년부

터 일본청년해외협력대를 스리랑카에 파견하여 60여명이 스리랑카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표 V - 8 일본의 對스리랑카 기술협력 추진현황

(단위 : 人)

구 분	사업실시 기 관	88년 실적	89년 실적	90년 실적	90년말 누계	주 요 분 야
연수생	JICA	145	161	37	2,626	농업, 행정, 공업
초 청	AOO	29	16	24	412	경영관리, 기술, 행정, 환경보전
	UNIDO	1	1	2	15	공업
	AOTS	37	35	59	679	요업, 자동차, 통신기기
	OISCA	14	16	16	242	자동차, 농업, 인쇄
	ILO	-	8	9	51	금속, 전기기계
	ACCU	1	1	1	25	
전문가 파 견	JICA	208	159	137	2,009	농업, 보건의료, 수산
	전문가	42	50	42	503	농업, 통신, 보건의료
	조사단	132	83	78	1,221	공업, 교육, 농업
	협력단	32	26	17	285	
	APO	-	-	-	34	농업, 공업
	JODC	3	1	1	20	섬유, 귀금속, 인쇄
	OISCA	-	-	-	46	농업

자료 : 경제협력의 현상과 문제점 평성4년, 통산성

표 V - 9 일본의 對스리랑카 기술협력 내역

(단위 : 억엔)

년 도	내 용
85년까지 누 계	○ 연수생초청 1,816명, ○ 전문가파견 311명, ○ 조사단파견 716명, ○ 협력대파견 128명, ○ 기자재공여 15.79억엔 ○ 프로젝트 기술협력 10건, ○ 개발조사 22건 총 96.56억엔
86년도	○ 연수생초청 131명, ○ 전문가파견 19명, ○ 조사단파견 104명, ○ 협력대파견 44명, ○ 기자재공여 1.32억엔 ○ 프로젝트 기술협력 3건, ○ 개발조사 2건 총 14.36억엔
87년도	○ 연수생초청 130명, ○ 전문가파견 39명, ○ 조사단파견 108명, ○ 협력대파견 38명, ○ 기자재공여 6.34억엔 ○ 프로젝트 기술협력 4건, ○ 개발조사 5건 총 18.57억엔
88년도	○ 연수생초청 143명, ○ 전문가파견 42명, ○ 조사단파견 122명, ○ 협력대파견 25명, ○ 기자재공여 4.69억엔 ○ 프로젝트 기술협력 6건, ○ 개발조사 3건 총 21.45억엔
89년도	○ 연수생초청 157명, ○ 전문가파견 50명, ○ 조사단파견 83명, ○ 협력대파견 26명, ○ 기자재공여 3.45억엔 ○ 프로젝트 기술협력 6건, ○ 개발조사 3건 총 16.49억엔
90년도	○ 연수생초청 135명, ○ 전문가파견 42명, ○ 조사단파견 78명, ○ 협력대파견 17명, ○ 기자재공여 3.35억엔 ○ 프로젝트 기술협력 4건, ○ 개발조사 2건 총 16.53억엔
90년까지 누 계	○ 연수생초청 2,512명, ○ 전문가파견 503명, ○ 조사단파견 1,221명, ○ 협력대파견 285명, ○ 기자재공여 34.96억엔 ○ 프로젝트 기술협력 15건, ○ 개발조사 28건 총 184.42억엔

자료 :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하권 1991, 외무성경제협력국

나. 미 국

미국의 對스리랑카 ODA공여 현황은 표 V-10과 같다.

표 V - 10 미국의 對스리랑카 ODA공여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81년	1985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ODA총액(Net)	31.0	85.0	35.0	41.0	43.0	75.0
증 여	9.0	12.0	15.0	12.0	23.0	47.0
자금협력	6.0	6.0	10.0	4.0	9.0	24.0
기술협력	3.0	6.0	5.0	8.0	14.0	23.0
증여율(%)	25.7	13.0	34.9	23.5	43.3	55.3
차관(Net)	22.0	73.0	20.0	29.0	20.0	28.0

자료 :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OECD

미국원조의 특징으로는 전략적인 요소가 크고 원조방침도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리랑카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1948년부터 개시되었으며 1988년까지 누계 약 1,150백만 달러의 원조를 실시해 왔다. 그 내역을 보면 프로젝트원조 약 500백만 달러, 식량원조 약 550백만달러, 주택개발지원 약100백만 달러이다.

프로젝트원조 중 약 50%(약 250백만달러) 마하웰리개발사업에 충당되고 있다. 미국해군은 옛부터 영국해군의 軍港이었던 트링코말리港의 이용을 희망해 왔으나 인도의 반대로 진출이 좌절된 내력이 있는데 이 트링코말리港의 배후지이기도 한 마하웰리지역에 대한 협력은 구소련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어 미국의 마하웰리지역 개발원조는 단순히 새로운 농업용지 개척뿐만이 아닌 전략적입장에서의 고려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원조방침중 명백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옛부터 스리랑카 민간경제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 왔다. 최근 미국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국영버스회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 민간기업육성을 위한 원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각 지역의 생산성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민간부문의 역동성을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막대한 양에 이르는 식량원조는 차관 및 무상원조에 의해 공여되고 있으며 그 자금은 스리랑카 정부의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일부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공업지원을 위한 대출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향후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미국의 對스리랑카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불명확하나 현재 스리랑카가 세계은행 등의 구조조정 권고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기 때문에 계속 미국의 주의를 끌 것으로 보인다.

다. 독 일

독일의 對스리랑카 ODA공여현황은 표 V-11과 같다.

표 V - 11 독일의 對스리랑카 ODA공여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81년	1985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ODA총액(Net)	9.6	53.6	39.7	37.2	40.8	26.2
증 여	9.4	7.0	16.3	15.6	15.0	16.1
자금협력	2.0	0.2	0.2	0.3	0.3	0.3
기술협력	7.0	6.8	6.8	15.3	14.7	15.8
증여율(%)	74.0	12.4	12.3	35.9	31.8	43.1
차관(Net)	0.3	46.6	46.6	21.5	25.8	10.1

자료 :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OECD

독일의 원조형태를 보면 기술협력이 비중이 크며 그 협력기간이 비교적 長期間인 것이 특징이다.

1990년 對스리랑카 ODA(net)총액은 26.2백만달러이며 이중 차관 10.1백만달러, 기술협력 15.8백만달러인데 비해 무상자금협력은 0.3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차관에 의한 댐건설 등 큰 프로젝트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처럼 무상자금협력을 통해 短期間內에 건물을 완성시키는 등 홍보효과가 큰 원조는 비교적 적고 독일인 특유의 장인정신에 기초한 소규모 기술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 직업훈련학교를 통한 기술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질조사 등 향후 스리랑카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수집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對스리랑카 기술협력정책의 기본방침은 자국의 앞선 기술발전수준에 근거, 현재 스리랑카 기술수준이 어떤 발전단계에 와 있는가를 조사한 후에 점차적으로 협력단계를 향상시켜 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꺼번에 신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독일측의 의도도 엿보이는데 스리랑카측에서 보면 현실적이고 손쉬운 협력방안 이지만 한편, 자력으로의 신기술획득은 쉬운일이 아니어서 자칫 반영구적으로 서구의 신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목하 통일후의 독일이 어떠한 방향으로 원조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4. 국제기관 원조

스리랑카는 전통적으로 UN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으며 국제기관에서의 위상도 높다.

국제기관에서도 스리랑카의 원조흡수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국제기관의 對스리랑카 원조는 스리랑카가 받고 있는 ODA총액의 20~30%로 추산되며 ODA의 絶對額에 있어서도 최근 10년간 2배로 증가했다. 표 V-12는 국제기관을 통한 對스리랑카 ODA공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V - 12 국제기관의 對스리랑카 ODA공여 현황

【 기관 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81년	1985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ADB	9.3	29.3	46.9	62.9	76.4	112.4
IDA	27.8	73.3	81.4	55.0	51.0	123.0
UNDP	7.5	7.3	7.7	8.7	7.4	7.7
기 타	45.3	35.1	37.1	29.4	17.5	22.2
합 계	89.9	145.0	173.1	156.0	152.3	265.3

자료 :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OECD

【 형 태 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81년	1985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ODA총액(Net)	89.9	145.0	173.1	156.0	152.3	265.3
증 여	38.7	36.4	39.2	41.0	28.8	31.8
자급협력	21.8	22.6	21.4	13.1	9.4	13.2
기술협력	16.9	13.8	17.8	27.9	19.4	18.6
증여율(%)	-	-	21.7	12.8	17.7	11.6
차관(Net)	51.2	91.1	133.9	114.9	123.6	230.1

자료 : 상 동

최근 스리랑카경제에서 차지하는 국제기관의 원조비율이 급속히 높아졌는데 세계은행은 스리랑카가 다른 대부분의 피원조국이 받고 있는 ODA의 對GDP 비율(7% 정도)보다도 높은 수준의 ODA(GDP의 약8%)를 공여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국제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구조조정 정책 등에 대해 양국간 원조방식으로는 내정간섭이란 의혹때문에 의제에

올리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 스리랑카정부와 정책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對스리랑카 ODA의 바람직한 방향을 각 원조국에 제시하고 있다.

ADB의 경우에는 개발전략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된 기술협력력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1988년에는 IDA를 누르고 국제기관으로서 스리랑카에 대한 최대 원조기관이 되었으며 향후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UN기관은 대부분의 기관이 스리랑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UNDP를 주축으로 다각적으로 협력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제기관 원조사업은 전국을 망라한 대규모의 원조프로젝트를 지향하여 원조범위가 넓긴 하지만 양국간 원조, 특히 일본과 같은 據點集重型은 적다. 또한 사업규모의 大小에 관계없이 국가적 차원, 또는 세계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당해 원조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조를 실시하는 국제기관의 개발전략을 통해 스리랑카정부의 향후 개발정책에 대한 입장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종래의 농업분야에 대한 원조 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의 합리화·민영화, 중소기업진흥, 홍차, 고무, 설탕 등 전통사업의 재건에 대한 원조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제기관, 특히 세계은행 및 ADB는 양국간 원조에 비해 원조동기가 순수한 자신들의 활동에는 그다지 홍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스리랑카 일반 국민이 보면 원조공여 당사자가 불명확한데 향후 이러한 원조사업에 대하여 스리랑카정부의 관료 뿐만이 아니라 직접 원조를 받는 수혜당사자가 공여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5. NGO 활동

스리랑카에서의 비정부단체에 의한 NGO활동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경부터 "사르보다야 운동"으로 대표되는 住民參加型 농촌개발활동이 주목되었다.

현재 NGO라고 불리울 만한 단체는 스리랑카 국내에 약 200개 단체가 있으며 이중 30~50개 단체가 개발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외국 NGO 등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으며 그 활동자금의 대부분을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자금의 흐름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으나 대략 8~10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르보다야 운동연합은 농민의 계몽과 농촌의 조직화를 통한 빈곤퇴치 및 이를 위한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며 전국적 규모로 성장한 스리랑카 최대의 NGO로서 네덜란드의 NGO인 NOVID를 비롯한 영국, 미국, 독일의 NGO 및 캐나다, 노르웨이 정부, UNDP의 협력을 받고 있으며 일본도 사르보다야의 지방 거점에 청년해외협력대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많은 외국의 지원을 받아가며 스리랑카인들의 자립의지를 함양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봉사활동을 펼쳐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NGO단체들은 원조하는 측의 봉사이념(폴뿌리차원에서 인도적 개발 지원)달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활동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REDD BARNA, 미국의 SAVE THE CHILDREN FUND 등에 의해 사회개발, 주택지원, 기술교육, 보건의료 등의 협력이 행해지고 있다. 현지인들의 수원 희망사항을 발굴해 가는 측면에서는 캐나다 NGO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의 협력

을 받아 설치한 SOUTH ASIA PARTNERSHIP (SAP)가 스리랑카 NGO 단체가 제안하는 프로젝트요청사항을 접수하여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진 캐나다 NGO 단체인 FRIDRICH NAUNANN재단은 스리랑카에 인재집단인 MARGA IMSTITUTE의 설립을 지원하였는데 최근 이들의 연구업적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연수용시설로서 스리랑카 FOUNDATION을 건설, 운영자금을 지원했으나 매년 그 지원액을 축소, 스리랑카측의 자립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NGO 중 스리랑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재단법인 오이스카 산업개발협력단과 재단법인 일본 실버벌런티어스이다.

前者는 매년 스리랑카정부가 추천하는 농업기술자 약간명을 일본의 同재단 농장에 초빙하여 농업기술 이전교육을 행하고 있으며 後者는 분야에 관계없이 주로 정년 후의 일본인 기술자, 교사 등이 그 노하우를 스리랑카에서 유용히 사용키 위하여 사회복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행하고 있다.

NGO활동의 특징은 정부차원에서는 협력의 직접 대상이 되기 힘든 소규모 단체나 농촌지역 마을까지 찾아가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며 봉사함에 있다. 한편 다수의 NGO들이 각각 다른 이념과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향후 과제로 이들이 각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연대하여 더욱 바람직한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VI. 한 · 스리랑카 협력

1. 한 · 스리랑카협력 현황

1. 교역 및 투자

가. 교 역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와 1977년 11월 국교를 수립한 이래 외교 ·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왔으며 1984년 스리랑카의 자예와르데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어 투자보장협정(1980. 3), 이종과세방지협정(1984. 5), 무역협정(1984. 5) 등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와 스리랑카의 교역규모는 1990년까지 연간 1억달러 규모를 보이다가 1991년 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우리나라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간의 교역상품은 상이한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섬유류, 철강제품, 기계류 등 원부자재가 전체수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리랑카로 부터는 고무, 코코넛, 홍차 등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소비재위주의 수출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시설재, 또는 중간재의 비중이 커 일본과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다.

표 VI - 1 우리나라의 對스리랑카 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수 출	96.1	93.3	171.3	180.7	209.6
수 입	11.7	16.2	23.4	38.7	44.5
무 역 수 지	84	77	148	142	134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호

표 VI - 2 對스리랑카 품목별 수출입통계

【수 출】

(단위 : 천달러)

품 목 별	90년	91년	92년	증가율 (%)
섬유류	75,098	102,899	122,267	18.5
전자 및 전기	11,529	19,845	11,612	-41.2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39,012	12,706	25,534	100.1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7,836	10,069	13,236	28.1
화학공업제품	6,433	8,762	10,842	21.3
일차산품	7,326	8,700	2,112	-74.6
비금속광물	8,491	6,789	6,488	-4.4
철강·금속	9,996	5,385	7,259	34.8
생활용품	3,365	3,086	7,339	131.6
잡제품	2,219	2,200	2,964	34.6

【수 입】

(단위 : 천달러)

품 목 별	90년	91년	92년	증가율
섬유류	1,329	19,399	24,262	25.1
농림수산물	15,190	8,581	11,800	42.4
화학공업 생산품	4,106	7,657	25,534	100.1
전자 및 전기	2,145	1,826	13,236	28.1
기타제품	144	627	638	1.8
광산물	205	563	185	-67.1
철강·금속	323	100	277	176.4
불명	9	26	32	26.4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16	6	30	427.3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호

나. 투 자

스리랑카는 1977년 이후 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실시하여 서남아시아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투자제도를 갖추었지만 민족분쟁에 따른 사회불안이 외국인 투자진출에 최대 걸림돌이 되어 외자도입이 원활치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민족분쟁이 동북부 일부지역으로 축소되고 콜롬보와 수출가공구 등 경제기능이 집중된 남서부지역은 거의 평온을 되찾게 됨에 따라 경제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게 되어 외국인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투자건수, 금액 모두 일본, 미국, 대만 등 선발투자국을 제치고 최대의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스리랑카정부도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스리랑카 직접투자는 1992년 6월말 현재 52건 7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바 투자대상은 모두 제조업종으로 국한되어 있고 특히 국내근로자의 인건인상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잃어가는 섬유·봉제·의류업 분야에서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표 VI - 3 우리나라의 對스리랑카 해외투자 허가추이

(단위 : 건, 천달러)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1-6)
건 수	4	8	7	21	6
금 액	3,491	23,585	6,558	20,223	13,225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 현지법인현황 1992. 6. 30

향후에도 스리랑카정부가 조속히 후진국에서 탈피, 선진개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사회간접자본 확충, 투자인센티브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어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전망은 밝은 편이다.

표 VII - 4 우리나라기업의 스리랑카 진출현황

(단위 : 만달러)

진출년도	진 출 기 업	투 자 업 종	투 자 율	투 자 액
1990년	보 생 산 업	고 무 장 갑	100%	100
1991년	CNH(주)	봉제완구	60%	96
	태성산업	"	50	40
	요업개발	도 자 기	100	100
	화인상사	가 방	100	50
	이화산업(주)	보석가공	70	10
	대한코이어	신 발	31	60
	삼환직물	직 물	100	350
	대원리드	섬 유	70	10
	유성산업	구 두	28	7
	유영지실업	조 화	100	100
	구상사무역	스키용품	100	100
	엘리펀트	봉제완구	75	75
	영진이메이지	도자기인형	100	150
	제인물산	"	40	48
	효정약기	바이올린부품	100	60
1992년	호림물산	전 력 계	40	15
	효성랑카	나일론사	90	560
	진진산업	플라스틱사출품	100	140
	호신섬유	Pile직물	100	360
	파노라마	봉제완구	"	60
	백남산업	"	"	30
	조일포장	"	"	25
	대명우의	레인웨어	"	60
	신화랑카	인조진주	"	100
	대영랑카	스 웨 터	"	100
	국제콜롬보	발 진 자	"	300
	Kabil Magnetic	마그네틱헤드	"	1,820
	진웅랑카	텐 트	"	100
	Topa Sporting	테니스라켓	70	60
	동아랑카	폴리에스터	100	190
	삼선랑카	텐 트	"	100

자료 : 국별기초정보 1992.6월 현재, 대한무역진흥공사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투자대상국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 영어구사가 가능한 저임노동력이 풍부한 점

- 높은 교육수준으로 중급기술 및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가치도 높은편임.
- SAARC 블록화 움직임 등 서남아지역에서의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서남아시아 진출의 전초기지로의 활용가능성이 높음.
- 지정학적으로 중동, 아프리카 및 유럽을 잇는 항행로상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음.
- 최근 스리랑카정부가 만성 적자상태에 있는 정부기업의 매각에 외국자본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출도 고려해 볼만 함.

2. 對스리랑카 원조현황

우리나라의 스리랑카에 대한 개발원조는 1977년 양국간 외교관계수립 이전인 1973년부터 연수생초청사업 등 소규모 기술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스리랑카가 수원받고 있는 전체 개발원조자금(90년 현재 6.6억달러)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미미하나 자본과 기술의 절대적 부족상태에 있는 스리랑카에 있어서 우리의 인력개발 및 기술전수 위주의 원조는 선발개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스리랑카측의 개발전략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표 VI-5는 우리나라의 스리랑카에 대한 개발원조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VI - 5 對스리랑카 정부개발원조 현황

구 분	'87	'88	'89	'90	'91	*'92	'87~'92
기술협력							
연수생초청(명)	46	17	20	14	20	8	125
전문가파견(명)	-	2	1	-	-	-	3
IDEP(명)	5	4	5	4	4	-	22
인력협력							
청년봉사단(명)	-	-	-	15	7	5	27
개발협력							
기자재등공여(천불)	298	249	281	309	100	99	1,336
개발조사(백만원)	-	-	-	65	455	-	520
유상자금협력(억원)	-	-	-	104	-	-	104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연보, 1992. 개도국 경제협력통계 1992, 경제기획원
 * '92년 실적은 한국국제협력단 실적만 계상.

한편 1991년 개발원조 전달기구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었는
바, 다음 표 VI-6은 KOICA의 스리랑카에 대한 개발원조 실적이다.

표 VI - 6 KOICA의 對스리랑카 협력현황

년도	구 분	내 용
'91	연수생초청	컴퓨터활용과정 1, 직업훈련 기초 1, 건설기술자 훈련 2, 농기계 1, 잠업 2, 행정능력개발 2, 고위정책입안자 연수 1, 중견건설 공무원 연수 1, 수출진흥시찰 1 (9개과정 12명)
	한국청년 해외봉사단 파견	교육분야 1, 코디네이터 1, 기술협력 3, 스포츠 2 (4개분야 7명)
	기자재공여	마약환자 재활시설 및 재활장비 (총 99,615달러)
'92	연수생초청	식품발효 1, 수출촉진전략 1, 사회개발·가족계획 1, 행정능력개발 1, 잠업 2, 식물보호 1, 직업훈련 기초 1 (7개과정 8명)
	한국청년 해외봉사단 파견	기술협력 2, 간호·보건 2, 지역개발 1 (3개분야 5명)
	기자재공여	어학교육용 기자재, 컴퓨터 및 모터사이클 (총 99,869달러)
'93 계획	연수생초청	미곡생산 1, 거시경제계획 1, 직업훈련기초 1, 자 동차 정비 1, 사후관리워크샵 1, 국토개발계획 1, 행정능력 개발 1, 가족계획 1 (8개과정 8명)
	한국청년 해외봉사단 파견	교육분야 2, 간호·보건 2, 기술협력 3 (3개분야 7명)
	프로젝트형 협력	○ 개방대학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기자재 및 전문가 파견) : 31,210달러 ○ 고아원 건립 : 150,000달러 (총 181,210달러)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기술협력사업의 경우 '87-92 기간 실적 150명 중 연수생초청 125명, 전문가 파견 3명, KDI에서 실시하는 IDEP사업이 22명으로 연수생초청사업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연수생초청사업 실적을 분야별로 보면 과학·교육·행정이 26.5%, 농림수산 23.6%, 보건사회 22.3%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림수산부문이 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개도국에 대한 연수생초청사업의 경우와 비교되는 것이며 농림수산부문이 스리랑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91년의 경우 전체 GDP의 23.5%, 전 취업인구의 41%취업)으로 볼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있는 보건사회부문에 대한 지원보다는 향후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 - 7 연수생 초청사업 분야별 실적(1987-91)

구 분	광공업	농림수산	과학·교육·행정	보건사회	기타	누 계
인원(명)	28	76	85	72	61	322
비율(%)	8.7	23.6	26.5	22.3	18.9	100.0

자료 : 개도국 경제협력통계 1992, 경제기획원

* 노동부 및 건설부실적은 통계미비로 제외

한편 전문가파견 사업의 경우, 동기간 중 '88, '89년에 방송기술전문가 3명을 과학기술처 주관 하에 파견한 것외에 별다른 실적이 없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는 국제개발 연찬사업(IDEP)은 스리랑카정부관리들을 초청,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및 산업시찰 등을 통해 한-스리랑카간 협력관계를 긴밀화하는 정책연찬회 및 국제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합동연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VI - 8 IDEP 분야별 실적(1982-91)

구 분	정책연찬회	협동연수	국별연수	중견관리연수	누 계
인원(명)	20	19	-	4	43
비율(%)	46%	43%	-	11%	

자료 : 상 등

인력협력사업은 한국청년해외봉사단(KYV) 파견,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사업, 직업훈련지원사업 등으로 나뉘어지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스리랑카에 대한 인력협력사업으로는 KYV파견사업은 KOICA가 전담하고 있으며 89년 KYV사업 시작 이후 제4기 단원까지 총파견인원 185명중 35명을 스리랑카에 파견하는 등 특히 KYV사업에 있어서의 對스리랑카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VI - 9 분야별 KYV파견 현황(1989-93)

구 분	기술협력	스포츠	교육	간호보건	농축산	지역개발	코디네이터	합 계
인원(명)	14	7	6	5	-	2	1	35
비율(%)	40	20	17.2	14.3	-	5.7	2.8	100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93년은 계획)

개발협력사업은 주로 수원국정부의 요청에 의한 기자재공여및 프로젝트형 원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의 경우에도 현지대사관을 통해 입수한 스리랑카정부의 원조요청사항을 협력우선순위에 따라 원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스리랑카에 대한 기자재 공여액수는 총272만달러이며 방송기자재, 발전기 등 그 품목이 다양하다.

표 VI - 10 기자재공여 내역 (77-92)

(단위 : 달러)

년 도	원 조 품 목	지 원 금 액
'77년-'86년	승용차 10대, 트럭엔진 10대등	1,392,598
'87년도	FM방송국설치 기자재, 전후복구지원	297,537
'88년도	방송기자재	249,102
'89년도	발전기 22대, 양수기 55대	281,048
'90년도	필드하키 구장용 인조잔디	308,851
'91년도	마약환자 재활시설 및 각종장비	99,615
'92년도	어학교육용 기자재, 컴퓨터및 모터싸이클	99,869
합 계	-	2,728,620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한편 개발조사사업의 경우 우리와 같은 선발개도국이 선진국에서 행하는 개발조사사업보다 더 후발개도국에 실현가능하고 발전단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84-'90기간중 48건, 73.5억원의 개발조사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스리랑카에 대한 개발조사사업은 2건, 5.2억여원에 불과하다.

표 VI - 11 개발조사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년 도	개발조사 프로젝트명	소요자금	지원금액
'90	○ 마타라-카타라가마間 철도사업 (Ⅰ)	320.0	65.0
'91	○ 마타라-카타라가마間 철도사업 (Ⅱ)	320.0	255.0
	○ 통신망 관리체계 도입기술 지원	200.0	200.0
합 계	-	520.0	520.0

자료 : 개도국 경제협력통계 1992, 경제기획원

한편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의한 유상자금협력으로 90.8월 콜롬보-고르間 도로개보수 사업비로 5년거치 20년상환에 년 3.5%의 금리를 조건으로 104억원(14.5백만달러)이 지원결정되었다. (정부간협정체결 : '91.2.8)

2. 협력 방안

1. 기본방향

가. 협력 여건

국가간 경제협력의 방향 및 내용은 상호간 경제적특성, 발전단계, 자원부존상황 및 제도적 요인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호경제적 보완성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스리랑카는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및 국민들의 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적극적이다.

비록 타밀인 및 싱할라인 사이의 민족분쟁으로 개발전략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1980년대 후반들어 경제성장이 한때 2%내외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1990년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민족분쟁도 국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반면 1947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경험 및 선진원조국들의 도움으로 국민들의 교육수준 및 수원잠재력이 다른 서남아시아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아 경제교류 또는 경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본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스리랑카가 지리적인 측면에서 서남아, 아프리카, 중동 및 동구유럽과의 경험증진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해 볼만한 나라중 하나라는 것이다. 스리랑카가 공업입지, 원재료 확보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그다지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편이고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도 적극적이어서 스리랑카의 자유무역지대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아세안(ASEAN) 가입노력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지역협력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높은 나라로서 83년 8월 결성된 아세아경제협력기구(SAARC)를 통한 지역협력에 상당히 적극적이며 이에 따라 주변국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세째,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경제에 대한 스리랑카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우리의 기여에 대한 기대도 높다.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을 펴나가고 있는 스리랑카로서는 같은 개도국이면서 단시일내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을 단순한 경제협력대상국 이상으로 바라보는 당연한 일이다. 이는 물리적 경제교류의 확대에 앞서 상호간의 동반자 의식을 긴밀히 하는 주요 動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스리랑카間 경험증진상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는 요인으로서는 첫째, 경제규모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스리랑카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대개도국 협력사업수행시 부담히는 1차적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1년의 경우 한국의 국민총생산(GNP)이 2,809억달러인데 반해 스리랑카는 90억달러로 경제규모가 한국의 1/30에 불과하다.

저소득 수준과 그로 인한 경제의 소규모성은 대외경제교류의 폭을 제한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쌍무적 협력관계의 발전보다는 인도적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협력관계로 그 폭을 제한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아직 우리의 경제력이 구미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스 양국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대상분야 및 방법을 개발해 나가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한국과 스리랑카가 부존자원 또는 경제구조면에서 경제적 보완성이

그다지 크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제 공업화의 초기에 있는 스리랑카와 균형있는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부존 등에 의한 경제적 보완관계가 크게 요구되나 스리랑카는 우리의 수요와 별로 상관없는 농산물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만 자연자원의 부재와는 별개로 스리랑카에 질 좋고 값싼 인적자원이 풍부한 점, 또한 최근 경제개발정책의 성과로 콜롬보근교의 수출가공지대에서 공산품의 생산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스리랑카경제의 구조조정 및 개발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양국간 경제적 보완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불안의 상존이다. 스리랑카의 민족분쟁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고 종교문제까지 가세되어 당분간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83년 500여명이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민족분쟁이 이나라의 경제상황에 그늘을 드리워 왔으며 결국 1993년 5월 1일에는 프레마다사대통령이 폭발물 테러에 의해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나. 기본 방향

상기와 같은 경제협력여건을 감안하여 다각적으로 협력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양국간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원조이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 기본방향 또는 원칙으로서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다만 이는 현재와 같이 對스리랑카 협력사업규모가 작고 요청주의 원조가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는 당장의 목표로서 보다는 장기적 방향으로의 의미가 강하다.

1) 경제기반 구축지원

스리랑카가 경제적 낙후상태에서 벗어나 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산업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산업 인프라및

관련제도정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스리랑카의 능력으로는 대규모재원이 소요되는 경제인프라의 건설에 한계가 있어 일본 등 서방원조국의 지원하에 공공투자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개발계획에 대한 자본지원보다는 우리의 개발경험을 살려 개발계획의 시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과 오류를 제거방지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효율성분석 및 관리운영의 노하우전수를 중심으로 원조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함께 대상 인프라사업 시설을 적절히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을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스리랑카경제가 공공부문의 비대화 및 1차산업위주의 경제구조로 만성적 재정적자 및 대외채무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스리랑카경제의 효율화를 위한 경제구조조정도 불가결하다. 현재 세계은행과 IMF 등에 의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들 국제기관과 연계하여 개발원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산업간 균형성장 지원

스리랑카에 있어서 농업은 최대의 산업이며 농촌지역인구의 대부분은 농업 또는 그 관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同國의 건전한 공업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지탱하는 농업의 근대화 등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농업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효율성이 낮은 人·畜力으로 영농하는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리랑카의 농촌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즉, 스리랑카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필연적으로 대량의 농업노동자가 필요하게 되므로 농촌지역의 잉여인력에 대해 공업부분으로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영농의 근대화와 적정한 기계화대책의 수립이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농번기대책이 없이는 노동력부족에 의해 적기 농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며 수확량 감소, 품질저하 등 농업부분

불안정화의 주요원인이 되어 농업이 만년 저개발 상태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공업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농업의 근대화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원조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농업의 근대화와 농업생산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농촌소득의 증대를 통한 국내수요를 진작시킴으로서 공업 등 타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농업을 중심으로 이들 제산업간 균형있고, 조직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민간부문 육성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역동적 기업가와 자유경쟁적 시장의 존재이다. 스리랑카는 영국으로 부터의 독립 이후 한때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의 역할을 중시, 결과적으로 공공부문기업의 비대화 및 비능률을 초래하였다. 1977년 통일국 민당정부가 집권하면서 경제의 자유화·개방화와 함께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미약하다. 우리로서는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 근거한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민간부문 육성을 위한 금융 및 투자제도정비, 공기업의 민영화방안 마련, 경제분권화의 확대, 자유경쟁적 상품시장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지역간 균형개발

스리랑카는 작은 섬나라이면서 건조지대/습윤지대, 고지/저지 등과 같이 변화가 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더우기 이나라는 다채로운 역사를 갖고 있어서 섬내에는 다양한 민족의 이질적 문화요소가 엮여있다.

경제발전수준도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중심지인 콜롬보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과 기타 다른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다. 이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계획·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지역사정에 적합한 프로젝트의 발굴·선정, 실시가 요청된다. 예컨대 차후나를 중심으로 북부주 또는 북동부주에서는 內戰에 의한 토지의 황폐화가 매우 현저하여 同지역에 대한 원조를 고려할 경우 농토복구 및 주민간 일체감형성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KYV과전, 전문가과전 등 기술협력사업이나 자금협력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 수혜당사자인 각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주민의 Need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현지조사, 지역주민의 지식활용, 현지 NGO 등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타국 원조기관, UN기관 및 국제금융기관과의 연대 강화

다른 개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에서도 他선진국 원조기관, UN, 국제기관 등이 제각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같이 스리랑카는 현재 IMF, 세계은행의 지원하에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 작업의 성공여부는 스리랑카의 장래를 생각할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서독·미국과 같은 선진국 원조기관, 세계은행·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 UNDP·FAO·UNCEF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스리랑카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은행, IMF와의 충분한 협의후에 이들이 실시중인 구조조정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스리랑카정부와도 보다 적합한 구조조정정책의 실시를 위해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2. 분야별 원조방안

스리랑카 개발원조를 위한 분야별 원조방안이란 전술한 협력여건 및

기본방향의 토대아래서 스리랑카의 사회·경제개발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것이다.

일부의 사회지표가 이미 중진국의 영역에 있는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향후 농업 및 공업개발을 경제성장의 양축으로 하여 이들을 기능적으로 연결하고, 빈곤퇴치를 구체적 목표로 삼아 경제성장과정에서 생기기 쉬운 지역적·계층적 불균형 및 격차의 시정, 환경보호 및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자립경제사회의 확립을 지원하는 것이 원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 농 업

스리랑카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농업은 GDP의 23%(1989), 노동력의 45%(1988), 수출의 39%(1989)를 점하여 근년 그 위치가 후퇴하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스리랑카의 주요 산업이다. 스리랑카 국민의 70%가 농촌지역에 살고 그 대부분이 농업 및 관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통적 수출상품인 홍차, 고무, 코코넛과 자급농산물인 쌀, 콩류 등이 농업생산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 前者는 수목의 노령화와 한발 및 가뭄에 의한 생산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後者는 재배면적, 수확량 모두 증대경향에 있다. 공공투자 5개년계획(1990-1994)에서는 기본식량생산(쌀, 생선, 사탕, 콩, 우유)의 자급을 향상, 수출확대를 위한 樹木작물의 생산성 향상, 재배작물의 다양화, 농가수입 증대 및 취업기회의 확대를 농업부문 주요개발목표로 삼고 있는 바, 이는 이전까지의 쌀증산 중시 농업정책을 변경한 1984년의 농업·식량전략을 계승한 것이다.

한편, IMF, 세계은행의 지원에 의한 구조조정정책에서는 부문별 정책으로서 농업부문의 효율성 향상, 재배작물 다양화, 농산물수출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위와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분야에 대한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등 기술협력사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경운기

등 농업기자재 공여사업과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개발조사사업을 병행함으로써 협력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VI - 12 농업분야 협력방안

협 력 대 상 분 야	협 력 수 단	기 대 효 과
식량 자급 미곡생산 토지개발 시비법 농산물저장및 보관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 식량 안보의 확보및 인도주의 원조이념 충실
농촌 근대화 농촌 지도 농용관개수로 개발 농산물유통시장 근대화 국영 플랜테이션 합리화 농업자원개발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연농기자재공여	○ 농업부문 유희인력 흡 수및 농가소득 증대 ○ 농업생산성 증대및 타 부문 경쟁력강화 기여 ○ 우리의 새마을정신전 수를 통한 친한 이미 지 고양
수출 진흥 수출작물 선정·재배	전문가 파견	○ 노화된 기존 수출작물 의 대체작물개발을 통 한 외화가득을 향상

나. 공 업

스리랑카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은 빈약하나 풍부한 노동력 및 지정학적 이점으로 프레마타사 정권이후 개방적·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스리랑카의 공업개발정책은 他지역에 비해 산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콜롬보주변의 수출가공구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의 공업화 역시 농촌지역에서의 고용기회 확대 및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며 향후 지방의 중점개발후보지선정을 위한 개발조사 등을 통해 낙후된 지방의 공업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무역자유화정책의 원칙하에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수출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협력이나 정책금융의 도입을 통한 협력을 생각할 수 있다.

스리랑카의 공업발전수준은 우리의 60-70년대 수준에 불과한 형편으로 同國의 공업화를 위해 경제발전의 전단계를 거친 우리의 개발경험과 체화된 기술의 제공은 스리랑카가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바, 특히 우리가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있는 섬유, 봉제 등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의 기술 및 생산시설 이전뿐만 아니라 전자, 자동차부품산업 등 중급기술분야의 합작사업 등을 통한 기술이전도 스리랑카의 공업화촉진 및 우리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우회기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공업분야에 대한 협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생각할 수 있다.

표 VI - 13 공업분야 협력방안

협 력 대 상 분 야	협 력 수 단	기 대 효 과
공업기반 조성 공업개발 정책 유통구조 개선 산업구조 근대화전략 민간기업 육성방안 기술이전 (섬유, 봉제, 전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공여 개발조사	○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 개발정책 기 달성 ○ 비교우위분야에 조기 특화 ○ 한-스 경제의 상호 보 완성 증진, 실익달성
수출 촉진 수출촉진전략 공기업 민영화 수출전략산업육성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 비교우위 있는 수출산 업 육성, 외화획득 ○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수출기업화 유도
고용 증대 소규모 농공단지개발 노동집약산업육성	개발조사 전문가 파견	○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都農간 소득격차 해소 ○ 농촌의 잠재적 실업층 구제

다. 사회 간접자본

교통망의 정비를 비롯한 경제인프라의 정비는 스리랑카의 공업, 농업 등 각 부문의 활동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또한 국내 각 지역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연계강화에도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경제사회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빠질수 없는 요소이다. 특히 스리랑카가 향후 공업개발을 축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콜롬보 주변지역과 주요 지방도시권을 잇는 에너지, 교통, 통신망 등 산업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원조는 대규모의 원조자금과 지원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우리로서는 전문가파견 및 타당성조사 등 개발조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국제기관 또는 타원조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리랑카의 도로보급율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원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과거 건설된 도로보수 및 정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도로의 확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도로의 유효이용이 낮아 새로운 도로건설기준 강구, 또는 도로의 유효이용모델이 될만한 도로의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전문가파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철도는 同國의 지리적 사정상 차량수송에 대한 우위성은 없으며 기존 철도의 보수, 운영방법의 개량 등을 통한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현재 스리랑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수송기관 효율화, 민영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콜롬보항은 단순히 스리랑카 최대의 무역항일 뿐만아니라 동북아 및 중근동을 연결하는 해상수송의 중계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바, 향후 同港의 확장 또는 고르港이나 다른 항구의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역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염병통제를 위한 상·하수도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 상수도는 콜롬보에서조차 그 시설의 노후화가 현저하여 개보수가

시급하다. 하수처리는 더욱 늦어 수도인 콜롬보에서도 생활하수의 약 6%가 처리되는데 불과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분야에서는 계획적인 개보수 및 설비신설과 함께 이들 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술협력도 불가결하다. 또 장기적으로 홍수대책 및 생활환경 대책의 일환으로 콜롬보지역의 배수로 확충을 위한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에너지생산의 증대는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바, 지나친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으로 가뭄 등에 의한 정전이 발생하고 있어 가뭄 및 전력수요 급증시를 대비한 소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며 한편 생산전력의 20%에 이르는 송전손실을 막기위한 기술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I - 14 사회간접자본분야 협력방안

협 력 대 상 분 야	협 력 수 단	기 대 효 과
도 로 도시 계획 도로 설계(콜롬보-항만間) 교통영향평가	전문가 파견 개발 조사	○ 경제 하부구조 강화
항 만 해운 행정 항만개발(토링코말리, 마타 라)	연수생 초청 개발 조사	○ 장래 항만수요 대응
철 도 철도경영 합리화	전문가 파견	○ 철도수송기능 강화
상 수 도 수질관리 漏水, 淨水機관리	전문가 파견 기자재 공여	○ 식수및 공업용수 공급
에 너 지 송전손실 개선 화력발전소 건설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 에너지 효율향상

마.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은 개발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요소이다. 스리랑카가 인근 서남아시아제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교육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업발전을 위한 직업교육 및 공학교육의 현대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고학력실업 등 인력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로서는 현재 스리랑카정부가 추진중인 중기교육개발계획에 따라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지원하되 콜롬보주변 수출가공지대에 입주해 있는 우리나라기업들의 인력수요와 연계하여 전문가파견 및 직업훈련소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VI - 15 인적자원 개발분야 협력방안

협 력 대 상 분 야	협 력 수 단	기 대 효 과
교육 행정(인력개발 계획)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 개발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자원 적기 공급
교육 설비(콜롬보工大, 자후 나工大)	기자재 공여	○ 교육의 질향상을 통한 기초 기술수준 향상
기술및 직업훈련 고등교육기관(컴퓨터) 직업 훈련원(용접, 제봉, 자동차정비, 라디오수리, 전자부품 조립, 섬유)	연수생 초청 KYV 파견 전문가 파견 기자재 공여	○ 실업인구의 산업인력 화 ○ 부문별 개발수요 대응 ○ 현지진출 한국기업에 훈련된 노동력 제공

바. 보건 · 의료분야

스리랑카의 보건지표는 인근나라 중에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발병율 · 사망율 모두 지역간 격차가 크다. 또한 질환에 의한 사망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발병율이 높고 전염병 발병율도 여전히 고율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1940년 발병된 말라리아가 계속 재발(10년에 1번 유행, 1987년 발병을 1위)하고 농약에 의한 약물중독(1989년 사망을 6위)이 빈발하는 등 보건의료체제의 낙후성이 보인다. 우리로서는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시정과 전염병예방 및 예방의학의 보급을 보건의료분야 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국내의료분야 NGO 또는 KYV활동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의 중심이되는 지방병원에 대한 의료기사 및 간호사 훈련, 의약품·시약공급 및 의료기자재·시설관리, 의료시설·기자재공여, 의료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PHC(Primary Health Care) 활동강화가 요청되며, 이를 위한 보건담당기관의 정비, 보건교육의 확대, 충실 등도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지금까지 UNICEF, WHO 등 국제기관에 의해서 여러 형태의 협력이 행해져 왔으며, 이들 기관과 협조, 제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스리랑카는 다른 서남아시아 제국에 비하여 양질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인구의 27%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빈곤문제의 경우, 이 나라에서는 국민의 70%가 농촌지역에 살며 그 대부분이 생산성이 매우 낮은 취업형태 또는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인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우선 독립이후 장기간에 걸친 사회개발투자에 의해 양성된 질 좋고 풍부한 인적자원이 정치적, 정책적요인에 의해 경제개발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업층으로 전락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로서는 빈곤의 원인인 실업인구의 감소를 위하여 개발이 뒤쳐진 농촌지역 여성 및 젊은층의 기술습득을 통한 취업기회의 창출을 중점적 빈곤대책으로 삼는 한편, 민족분쟁지역 주민, 도시빈민 등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스리랑카정부가 실시중인 빈곤퇴치 프로그램(자나사비아)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표 VI - 16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

협 력 대 상 분 야	협 력 수 단	기 대 효 과
전염병 퇴치(결핵, 말라리아)	전문가 파견 KYV파견(PHC분야)	○ 인도주의 원조이념 충실
의료인력 지원(임상병리, 제 약, 방사선치료)	전문가 파견 KYV 파견 의료분야 NGO	
보건 행정(의료시설, 기자재 관리)	전문가 파견 기자재 공여	
빈곤 퇴치(재활교육, 계몽활 동)	KYV 파견 무상자금협력	

사. 환경 보호

스리랑카에서는 최근 몇가지 환경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빈곤층의 증대에 따른 무질서한 개간 및 거주, 농지개발과 댐감사용에 의한 산림파괴외에 향후 연안부의 개발에 따른 해양오염도 우려된다. 또한 이미 여러 외국원조기관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남부 및 남서부해안의 침식은 보고에 의하면 연간 1-7m에 이르며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는 19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원인으로 해면상승, 몬순기의 과도침식, 해안지역 개발 및 개간이주에 의한 생태계변화, 특히 자연방파제인 망그로브林的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환경문제 부각으로 우리나라로서도 스리랑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개발계획의 작성, 실시 및 동국의 환경보전 체제의 강화, 환경 보전기술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것이다.

표 VI - 17 환경보호분야 협력방안

협 력 대 상 분 야	협 력 수 단	기 대 효 과
환경 보호 조립및 해안선유실 방지 환경교육·계몽 환경 행정	전문가 파견 KYV 파견 환경NGO	○ 화전경작, 망그로브림 산호초유실로 인한 생태계 파괴방지 ○ 환경보호의식 고취

